

격월간

1993 · 5 · 6

중국어문선교회

동권 22호

중국어문선교회

1993. 5/6. 통권22호

중국선교 전문지

중국을 주제로

고문/방지일 목사
 대표/박진국 장로
 총무/이요한
 사무간사/임화평
 재정간사/노재은
 기획간사/전하리
 교육부간사/김성근, 김성순
 교육부협력간사/안거안
 연구부간사/석은혜
 연구부협력간사/배다니엘
 출판부간사/한영혜, 조에스더
 선교부간사/정선영, 김만섭
 훈련원간사/장희락, 김바울
 인천지부간사/주미애
 인천지부협력간사/김성수
 사랑의집간사/이순덕, 서정애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 윤승일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
 예보람(해외)
 정선영(본부)
 협력선교사/주성지, 강성광,
 고대위

발행인: 박진국
 편집인: 한영혜
 편집주간: 석은혜
 미술: 정광숙
 컴퓨터: 민하은
 발행일: 1993년 5월 20일
 발행처: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Tel. 594-8038, Fax.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세계선교센터 308호)
 Tel.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Tel. 878-2570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사업**: 선교지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 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연구사업**: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 선교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번역 및 출판사업**: 각종 선교책자 번역, 회지발간 및 각종 관계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 **방한중국교포사역**: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분은

1.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러 손과 발로 펼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 7602362

수취인 : 중국어문선교회

우체국 : 010892-0027775

국민은행 : 008-01-0454-178

상업은행 : 104-05-106251

외환은행 : 099-19-18518-7

조흥은행 : 325-1-062234

신택은행 : 30907-2405608

제일은행 : 378-10-063302

중소기업은행 : 002-01-0154-683

선교사 후원

수취인 : 정선영

제일은행 : 378-20-128961

조흥은행 : 350-06-112337

국민은행 : 084-01-0273-191

수취인 : 박애린

제일은행 : 378-01-067724

한일은행 : 081-167297-12-001

국민은행 : 084-01-0283-633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

1993. 5. 6 통권 22호

목차

말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 박순종 전도사/2

특집/중국의 소수민족

아득히 먼곳-內夢古教會/6

위그르族/8

羌村人の 종교/13

壯族/20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 석은혜/25

中國少數民族人口, 宗教信仰
及分佈地區一覽表/29

탐방

왕성교회를 찾아서/31

세미나 • 연구

기독교 21세기 운동과 중국선교 • 노봉린 박사/33

최근의 중국 종교문제에 대한 처리문제/38

계속 추진해야 하는 三自愛國/42

中國教會 神學建設의 思考/44

인물 • 간증

기독교 청년회 사업에 헌신했던 개척자 • 余日章/47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그리워 하며 • 무명/54

선교상식

민속풍물/北京 동쪽 교외지역의 民俗/59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 중국어/주님 부활하셨다/64

중국선교 참고도서/66

중국어로 찬양을/68

중국선교 헌신자가 모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 강성광 선교사/69

소식 • 기도

무제 • 전영구 목사/73

중국선교훈련을 마치고 • 송국선 목사/74

최근중국동향/75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81

중국선교훈련원/82

알림/84

지난 3·4월 또는
본회의 사정상 건
너워개 되었음을
알리드리며 너그
러운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1. 중보기도란?

-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설립케 하고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기도사역. (겔22:30)
- 중보기도는 해산의 고통까지도 짊어지는 기도 (갈6:2)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중보기도의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신다.
- 중보기도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연결시켜 준다.
- 중보기도(도고)는 하나님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딤후 2:1-3)

2. 중보기도의 능력

1)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준 미스바에서의 중보기도 (삼상 7:5-12)

사무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큰 우뢰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

2) 한 나라를 구출한 모세의 중보기도 (출32:9-11, 32-33, 33:14-15)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2백만의 생명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행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죄를

박순중 전도사
(한사랑교회)

그는 산에서 40일 간 밤낮을
가리지 않은 채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 하시도록 탄원했고,
“만일 그렇게 못하신다면 그분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탄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들과도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범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로부터 우상으로 기울어진 목이 곧은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다. 모세는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지만 진멸당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됨을 견딜 수 없었다. (출
32:9-11)

그는 산에서 40일 간 밤낮을 가리지 않은 채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
하시도록 탄원했고, 만일 그렇게 못하신다면
그분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
려 주십시오라고 탄원했다. (출32:32-33) 하나
님께서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고 이스
라엘 자손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리고 그들과도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출33:14, 15)

인간의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우
러나오는 사심이 없는 중보기도는 이렇게 큰
능력을 보인다.

3.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1) 겔22: 30, 31

위의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
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연관된 한 가
지 특징 있는 일면을 알게 해준다. 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나라
가 건짐을 받느냐의 국면에 접해 있을 때, 하나
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돌이키게 할 중
보자를 찾으신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무너진 데를 막고 설 만
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다.

2) 창18:20-33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큰 도시였다.
하나님은 그 성을 처리하실 필요가 생기셨다.
이 일을 알게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
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도 소돔
성에는 없었다. 만일 루이 중보자로서 아브라함
처럼 기도해 충실했더라면 그는 그의 가족을 건
졌을 뿐만아니라 무너진 데를 막아서 소돔을 구
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돔성에는 하나님께
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기 위해 찾으시는 중보자
가 없었던 것이다.

4. 중보의 내용

- 1)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딤펴2:1, 2)
- 2)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
- 3) 세계선교를 위해 (마9:37, 38)

5. 영적전쟁이란?

1) 엡6:12

영적전쟁이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세상
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한다.

2) 벧전5:8, 9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의 때가 짧은 것을 어
는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기 위하여 필

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 요일2:15,16

사탄은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그들을 패배시키려고 한다.

6.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주 앞에 설 때, 암흑의 세력과 대적하여 전쟁을 할 때가 있다. 사람의 생명을 움아매고 있는 암흑의 세력인 이 강력한 진들을 기도로 파괴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에 들어갈 때는 사령관인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쾌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전쟁을 해야 될 부분과 싸야 할 영적 무기와 계획을 들어야 한다.

1) 엡6:11-18 / 전신갑주

① 진리의 허리띠

--성경에 일치하는 삶의 양식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② 의의 흉배

--의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올바른 성품과 행위를 가리킨다. 의로운 심령은 생명의 근원이 되며(잠4:23) 정죄,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며 담대함을 갖게 한다.

③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음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굳건히 서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므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며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⑤ 구원의 투구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죄악을 용서 받게 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죄악과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구원의 소망을 알고 생각을 잘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사탄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혼란을 통한 공세를 물리치게 한다.

⑥ 성령의 검, 곧 말씀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하는 데 크게 효과적이다.

⑦ 기도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 준다. (마6:13)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


2) 시편149:6-9 / 찬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여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라도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함을 통해 원수를 벌하며 결박한다. 찬양함으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수8장) 악신이 떠나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다.

3) 계12:11 / 보혈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준다. 

특·집

중국의 소수민족

중국인!

우리가 중국인을 부를 때 대부분 임두에 두고 있는 것은 漢族이다. 그렇지만 14억에 달하는 중국인 속에는 93%의 민족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이 다양하다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일컫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곧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종교권만 해도 불교, 힌두교, 회교 등 세계 굴지의 종교로서, 그 선교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리라는 점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대다수의 소수민족이 중국 서북 및 서남의 변경지역에 퍼져 있는데 면적으로는 중국 전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본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중국의 동북, 서북, 서남, 중남, 동남 지역에서 소수민족 하나씩을 선정해 그들의 종교적 역사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 드리려고 한다. 중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관심이 싹트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아득히 먼곳 內蒙古教會

어느 화요일 아침 나는 아득히 멀고 외진 內蒙古의 수도 呼和浩特에서 뜻밖에도 많은 군중이 기독교회로부터 밀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심 아주 호기심을 느꼈고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가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받들어 모시던 교회지도자(일찍이 內地會의 성원인 曹牧師)가 방금 임종한 것이었다. 내가 보니 조목사의 추도예배가 끝난 후 흩어지는 사람들의 물결이 적어도 2,000명은 되어 보였다. 曹牧師는 사람들에게 깊이 받들어 모셔졌음이 분명하였다.

내몽고의 광대한 영토는 중국북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몽고공화국에 인접해 있고 인구는 21,000,000명(1990년 인구 일체조사에 근거함)을 넘고, 그 중 대부분은 漢人(18,000,000명)이고 단지 3,400,000명(16%)이 몽고인이며 물과 풀을 따라 거주하고 초원에서 가축을 기른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내게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 이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수도 呼和浩特 거주민은 1,000,000명을 넘어 중국 기타의 대도시와 같고 시장의 군중들도 왕래가 빈번하고 변화하며 아주 활자지절하다. 몽고사람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은 바로 모든 건축물상에 모두 우아하고 아름다운 몽고 및 漢文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내몽고 교회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三自의 목사는 내게 이르기를 현지에는 적어도 10,000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였고 이 숫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수년

전 한 三自會議의 보고 중 언급하기를 내몽고의 다른 큰 성 包頭는 적어도 10,000명의 신도가 있다고 하였다. 呼和浩特에는 3개의 교회가 있는데 내가 방문한 곳은 중요한 곳 중의 하나로 고정집회의 회원은 2,000명을 넘는다. 근년에 이 교회는 700-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 그들은 33인의 非全職同工(파트타임 종사자)이 있으며 매주 모두가 신학과정을 참가한다. 내가 그 중 한 목사와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 앞에 작은 무리의 나이 든 부녀들이 원을 이루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여 보았다.

그러나 교회를 공개하는 일이 좋은 점이 많기는 하지만 불리한 점 또한 많이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지난달 전문적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 과거 2년 간 정부당국은 일찍이 내몽고의 세 교회를 파괴하여 평지로 만들었다. 그 중 두 교회의 회원은 구금령을 받았고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 두 곳은 1949년 이전까지 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세번째 교회는 1970년 이래 줄곧 정직하고 진실되게 집회를 하였는데 후에 이를 질투한 三自목사에 의해 公安局에 고소되어 교회는 이로 인해 참혹하게 뿌리까지 뽑히는 운명을 당하였다.

어떤 신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내몽고의 어떤 지구에서는 가장 강경한 公安員을 동원하여 기독교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면 呼和浩特的 규제는 包頭보다 엄하다. 本省

동부지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가정교회 전도인은 수년 전 체포되어 투옥되고 후에는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현재 이 지구의 기독교인이 말한 바에 의하면 내몽고에는 많은 가정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엄중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극히 적은 규모의 집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에 많아야 4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상 20명 정도가 모인다. 어떤 가정교회는 극단적으로 三自愛國運動을 반대하고 있고 스스로를 「曠野中的教會(광야 교회)」라고 여긴

몽고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몽고어 성경을 그들에게 공급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어떤 대학에 다니는 한 몽고인의 가정 식구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그 몽고인이 예수를 믿은 후에 漢人교회나 가정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마도 몽고어를 사용하는 집회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한 몽고 목회자는 1991년에 예수를 믿고 그 때부터 呼和浩特市에서 멀지 않은 곳의 몽고인으로부터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제안받았다. 本省동부는 여전히 많은 몽고인들이 漢文을 모르고 있다. 현지에는 완전히 교회도 없고 심지어 도로조차도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漢人 기독교인이 설령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여도 걸어 다니는 데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 몽고공화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욕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몽고에 거주하며 중국통치하에 있는 몽고인(340만명)은 많은 수가 이미 오래 전에 몽고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몽고인을 초과하였다. 극동방송국은 현재 정기적으로 내몽고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복음방송을 하고 있다. 모든 간행물과 방송이 저 외진곳까지 이르러 몽고인들의 수중에 이르도록, 漢人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내도록, 그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갓고, 아직까지 복음이 이르지 못한 곳에 복음의 단비가 적셔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자. 우리들은 동시에 극동방송국이 漢語방송을 할 때 선교의 비전을 전달하여 漢人 기독교인들의 호응을 일으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임무를 공동으로 짊어지길 호소한다. ◈

(興旺中華福音(OMF), 93년 3월분 중에서)

* 위 글은 OMF의 한 선교사님의 선교보고로 내몽고의 교회상황을 전해줄 수 있어서 번역했음.

번역/남궁양석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씩씩한 내몽고 사람들...

다. 1991년 내몽고 서부의 한 작은 성에서는 公安員이 홍콩에서부터 온 많은 성경을 몰수하였고 현지의 한 신도를 4개월 동안 구금하였다. 기독교서적이 부족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손으로 베껴쓰고 있다.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감추인 신도가 있고 심지어는 공산당 내에도 이러한 신도가 있다. 兒童지역은 어려움이 거듭되고 우리가 이르는 곳에 兒童지역은 극히 적었다.

내몽고에는 또한 천주교인이 20만 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곳의 로마천주교는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적어도 32개의 로마천주교당과 100여 곳의 가정집회 장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몽고인은 어떠한가? 그들 가운데에는 기독교인이 극히 적은데, 들은 바에 의하면 鄂托克旗(湖北省의 별칭)에는 2,000명의 몽고 천주교인과 두 명의 몽고 敎士가 있으며 기독교인은 소수가 있다고 한다. 어떤 漢人 기독교인들은

위구르 族

위구르족은 모두 595만 7천 명으로, 新疆 위구르自治區의 인구 가운데 1/2을 점유하고 있다. 그중에 대다수는 新疆의 和田, 喀什, 阿克蘇와 庫爾勒 등 4개 지역에, 나머지는 新疆의 각지에 거주한다. 13세기 무렵, 위구르族 29姓이 內地로 옮겨갔는데, 현재는 湖南의 桃源, 常德 양 지역에 3천여 명이 살고 있다.

'위구르'는 스스로 부른 말이다. 한문 史書에서 보면, 위구르族은 '袁紇' '韋紇' '回紇' '畏兀兒' 등으로 칭하고 있는데, 모두 '위구르'의 다른 시대의 다른 표기 방식에 의한 漢文 音譯인 것이다. '위구르'란 말은 "團結, 聯合"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위구르族에게는 그들 고유의 言語와 文字가 있으며, 이 언어는 알타이어 계통의 突厥語族에 속한다. 본래 있었던 문자는 아라비아字母를 기초로 한다. 1959년 또한 라틴字母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문자정책을 마련하였다.

위구르族의 주경제는 농업이다. 해방 전, 사회경제구조는 봉건제도가 우세하였으나 자본주의 상품 경제도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었다.

위구르族의 보편적인 종교는 이슬람敎이다. 그러나, 위구르族의 역사상에서 일찍이 여러 가지의 종교신앙을 거쳐왔다. 鄂爾渾河 시대에는 샤만敎와 摩尼敎를 신봉하였다. 9세기 西遷 이후에는 또한 祆敎, 景敎, 佛敎를 신봉하였다. 이러한 종교는 위구르族으로 하여금 일반 민들의 정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현재 新疆의 많은 불교 동굴이나 그곳의 조각, 벽화 등 불교유물은 바로 역사적인 증거로 고대 서역불교의 창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슬람敎는 약 10세기말(一說은 8세기),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으로부터 新疆 등으로 전입해 들어와 먼저 그 南部 一帶에 전파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摩尼敎나 불교 등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 이슬람敎는 新疆 남부에서 불교의 위치를 대신할 정도로 성장하여 점차 북으로 확장, 전파되었다. 13-4세기에 이르러, 위구르族의 민간 종교신앙 가운데는 통일되지 못한 국면을 이루어 어떤 이는 불교를, 어떤 이는 '胡達'(즉 '알라'의 新疆에서의 별칭)을 믿었다. 15세기에 이르러, 이슬람敎는 대부분의 위구르族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다른 종교를 배제시키면서 전위구르族 종교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이슬람敎는 위구르족의 경제, 정치, 문화, 생활 풍습 등에 걸쳐 고르게 심원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슬람敎의 敎派는 복잡한데, 新疆의 위구르族 내에는 양대 교파가 있다. 즉 '伊瑪目藝則木'과 '伊瑪目薩菲爾'이다. 전자에서는 '依禪派'가 분리되어 나왔다.

薩菲爾敎派는 주로 남쪽 新疆의 위구르 자치 지역에 분포한다. 그것은 哈乃非敎派와 함께 이슬람敎의 정통 敎派에 속한다. 위구르族의 주요 교파는 그 敎義와 敎規에 있어 모두 기본적으로 서로 동일하지만, 다만 약간의 종교의 식상의 세부 예절에 있어 다소 다른 관점과 방식을 갖고 있다. 비교적 특수한 것은 '依禪派'이다. 이 교파는 별도로 아라비아에서 발원하였다. 700년경 발생하여 후에 널리 퍼져 하나의 교파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新疆을 제외하고도 지금의 아라비아 각국 터어키,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간, 소련 일대 모두 이 교파가 있다. 新疆의 依禪派는 喀什, 和, 莎車 등에 분포한다.

'依禪'이란 말은 아라비아어로 '깊이 바른 길을 향한다'는 뜻이다. 그 주요한 주장은, 인생의 일체의 모든 것이 '胡達'의 은혜로 말미암은 바이며 빈부귀천도 정한 바이므로, 지금의 생애에 있어 苦行하고 經을 외우고 예절을 다하여 전심으로 '胡達'에 다가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만 지금의 생애 衣食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후에 '天堂'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만일 독사가 와서 물더라도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한 마음이다. 또한 殺生을 금하는 계율은, 한 생명을 죽이는 죄가 이슬람교의 '天房' 聖地를 파괴하는 것 만큼 무겁다고 여겨진다.

依禪派의 종교 지도자는 '依禪'으로 불리운다. 최고의 지도자는 '大依禪'으로, 일반적으로 모두 세습된다. 依禪은 현세를 사는 聖人으로서 여겨지고 가장 '胡達'에 다가간 사람이기 때문에 교우들에게는 전심으로 '依禪'을 숭배할 것이 요구된다. '依禪'은 그들에게 있어 지금과 후세 행복의 보호자이므로, 단지 무조건적으로 '依禪'의 의지해 복종하고 그를 숭배해야만 비로소 현세의 罪過를 사함받고 후세에 天堂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숭배는 西北地方의 이슬람교에 있어 門宦制度和 유사점이 있다. '依禪' 외에도, 교파 내에 아직도 '海里拜' '阿皮子' '蘇皮' 및 일반 신도 등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依禪派의 교파 조직은 비교적 엄밀하여, 최대의 '依禪'은 南疆 종교 중심지의 喀什市에 주재하면서 전지역의 依禪教徒(1949년 초의 통계에 의하면, 전 新疆에 약 20만명 정도의 교도가 있었다)를 영도한다. '大依禪' 아래는 약간의 교구로 나누며, 매 교구의 교주(일반 依禪이나 海里拜)는 大依禪의 계통을 통하여 직접 지휘한다.

의선교파의 신비주의 역시 그 색채가 농후하고, 종교활동의 형식도 타 종교와 비교하면 복

잡하고 비밀스러운데, 가령 교도를 흡수하려 할 때에는 맹서의식을 행해야 하며 교도로서 다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①교내의 비밀을 지키는 것 ②현세의 영화나 부귀를 흠송하지 말 것 ③시비를 다투지 말 것 ④분수에 넘치는 재물을 얻지 말 것 ⑤매일 5시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것 ⑥부녀는 밖으로 다녀서는 안되며 지아비를 거스르지 말 것

몇 지역의 의선교도들은, 매 예배를 교도의 집에서 일차 집회를 하고, 둘러서서 발을 구르면서 큰 소리로 경전을 외우고 나아가 함께 식사를 한다. 장례 때에는 죽은 자를 에워싸고 방이나 들 그리고 致地에서 모두 발을 구르면서 큰 소리로 경전을 외운다. 교내에는 아직도 '塔罕' '伯西'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 '黑經'(주문)을 외우며 法術을 행하여 병을 치유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의선교파와 타교파와 다른 점이다. 각각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의선교파와 다른 교파는 과거에 항상 상호 모순적이었으며, 각기 자기의 세력확장을 위해 압투를 거듭하여 위구르族 일반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던 것이다.

위구르族의 종교제도는, 기타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민족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장 현저한 것은 종교법정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종교법정은 阿古柏 시대에는 엄격하게 이슬람교 법전인 '沙里阿特'의 규정을 따라 위구르族 마을에 보편적으로 설치되었다. 중공성립 전까지, 위구르族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에는 모두 하나의 종교법정이 있었다. 종교법정의 庭長은 '穆夫提'(高級 阿訇- 이슬람교사의 칭호)이 맡았다. 또한 범인을 심문하고 형을 집행하며 종교법정에서 복무하는 관리가 있었다. 그 외에 審判官 1명이 '卡孜'(阿訇)가 맡았다. 종교법정에는 專門 審訊案件을 위한 庭室이 마련되어 있고, 각종 刑具와 임시로 체포된 범인의 看守所가 있다. 이 법정에서는 일체의 민사와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死刑, 徒刑, 벌금, 체벌과 기타 각종 형벌을 판결할 수 있다.

위구르族의 종교조직은 매우 엄격하다. 교구는 區級, 縣級, 그리고 縣 이하의 區級 등 3가

지로 구분되어 있다. 縣級 교구가 완전한 행정적인 구분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타 두 급은 모두 완전한 행정적 구분에 따른 것이 아니다. 거대한 縣, 區級 교구는 모두 '阿訇辦事處'와 유사한 조직이 있는데, 1개 지구의 종교업무를 관장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며 각급 종교인사를 임명, 파견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위구르族이 거주하는 1개 縣 안에는 그 '阿訇辦事處'는 종교대권을 장악하는 6개의 지도 조직으로 구성된다. 각 조직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卡孜庫札提'는 최대의 큰 '阿訇'이고, 1 縣의 교주로서 全縣의 종교업무를 장악하며, 縣 管轄 區級의 교주와 각급 阿訇을 임명, 해임함과 동시에 각종 계약 및 문서공증을 담당한다.
2. '艾疎木'은 '二阿訇'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全縣의 부교주이다.
3. '穆夫提' (三阿訇)는 縣 종교법정의 庭長이고 民刑事 判決을 처리하며, 나아가 종교법정의 판결서에 서명한다.
4. '卡孜' (四阿訇)는 縣 종교법정의 심판관이며, 법정을 열어 民刑事을 처리하지만, 그러나 판결문서상에는 서명하지 못한다.
5. '穆德里斯' (五阿訇)는 縣級 종교학교의 敎育長이다.
6. '卡孜熱依斯' (六阿訇)는 縣級 종교 계율의 감찰관으로서 교민이 종교계율을 준수하는 정도와 집행실태를 감찰하는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고위 종교관계자는 권력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행정, 사법, 수공업, 상업 등 모든 일에 간여할 수 있다. 교주가 공중한 권력은 제한된 것이 아니고, 위구르族 일반인들이 모든 중요한 문서와 계약, 예를 들면 가옥, 전답의 매매, 상업합작, 저당, 임대, 결혼, 이혼, 유언, 상속 심지어 소송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주의 도장을 받아야만 합법화되고 실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공중권은 다만 縣級과 縣管轄 區級의 교주에 속한 권한이고, 기타 각급 阿訇에게는 없는 것이다. 교주는 공중에 있어 매번 공중한 재산이나 상품 가치의 1/10을 거둬들인다. 한 번의 유산상속권을

증명하고 1/40을 취한다. 결혼, 이혼 등에서도 모두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로 거둬들인다.

'卡孜熱依斯'는 敎規의 집행실태를 감독하고 확인하는 것 외에도, 매번 집회 때 수행원들이 전후에서 웅위한 채로 높은 말을 타고 손에 채찍을 들고서, 부녀자들이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거나 敎民들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상인들이 가격을 부추기거나 저울을 속이면 바로 채찍으로 그들을 내려치고 중한 자는 종교법정에 회부시킨다.

위구르族의 사회제도는 비록 '政敎合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上述한 실태에 따르면 위



<코란경>을 읽고 있는 할아버지

구르족내에 교권세력이 매우 막대하고, 종교세력과 정치권력의 상호 결합과 타협은 견고하여 봉건통치 계급의 각가지 특권을 유지하고 있다.

清真寺는 종교 조직활동의 중심지로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신성한 곳으로 간주된다.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교민들의 집회와 종교수업이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대개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교도들은 清真寺로 모여 이곳을 기점으로 출발한다. 군중들에게 무슨 분규가 발생하면, 때때로 清真寺로 와서 시비를 가리고 조정한다. 위구르族 사원의 숫자는 이슬람교를 믿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훨씬

많다. 新疆지역 특히 남방에서는 도시나 시골을 막론하고 도처에 크고 작은 각종 사원이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喀什市 같은 경우는 4만여 명의 인구에 清真寺의 사원 숫자는 126개나 되었다. 和闐縣은 해방 초기 통계로, 크고 작은 清真寺가 1,543개였고 莎車縣에는 1,653개나 되었던 것이다.

위구르族의 清真寺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清真寺이다. 이곳은 교민들의 기충사원으로 지역성을 가지며, 각 거리나 마을에 모두 이러한 종류의 사원이 있다. 교도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清真寺로 가서 일상의 예배를



清真寺에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모습

드리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원에 속한 교민들인 것이다.

그 다음은 '主麻' 清真寺로 이슬람敎 규정에 교도들은 7일마다 한 차례씩 대예배를 드리며 阿訇의 강론을 듣게 되어있다. 이 날은 '主麻' 日이라고 부르며, 매 금요일에 해당한다. 主麻 清真寺는 일반 清真寺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고 몇 개의 일반 清真寺의 교민들이 금요일마다 이곳에 모여 예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없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벽촌의 화전민이나 여행자들이 예배를 행할 수 있는 清真寺가 있다. 이곳을 行人清真寺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清真寺는 각자 寺院財産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답이나 가옥, 가축과 목장 등이다. 喀什市的 '夫特卡大寺'와 '衿祥巴札清真寺' 등은 모두 4천여 畝의 토지와 수많은 가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원 경제의 기반은 신도들의 헌금과 각종 종교세와 기타 방식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임대나 신도들의 무상노동으로 경작된다.

위구르족은 清真寺 외에도 '麻札'이라는 종교형식을 갖춘 麻札이 있다. 이는 回族的 Cubbar(지붕이 둥근 건축형식)에 해당하며 교주나 봉건귀족 등 통치계급이나 혹은 아라비아에서 온 전교자의 묘지이다. 위구르族의 麻札 신앙은 유래가 깊어 天災나 흉년을 만날 때, 麻札에 가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 水災를 당할 때, 麻札에 가서 양을 잡고 讀經하며 홍수가 멈추기를 기도한다. 어떤 부녀자들은 아기가 없거나 다른 소원이 있을 때에도 麻札에 가서 기도한다. 麻札의 숫자 역시 많은데, 喀什과 和闐, 莎車一帶에 가장 유명한 大麻札로 11개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麻札 내에는 清真寺와 종교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麻札에는 '木特宛勒'이란 사람이 麻札의 전재산을 관리한다. '夏黑'은 傳敎를 담당하며, '哈提甫'는 主麻日에 念經을, '伊麻目'은 평상시에 念經을 각각 주도한다. '買會'는 主麻日에 교도들을 불러서 예배를 거행한다. 한편 '司派爾汗' 수십 명은 경전을 연구하며, '加爾魯卡希' 수십 명은 장부정리와 祭禮를 책임진다. 이러한 숫자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麻札 규모의 대소에 따라 인원은 증감된다. 麻札 土地의 기원은 清真寺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대부분의 토지는 사찰에 물린 사람들의 생전 소유지 및 권력자들이 하사한 땅이다. 이같은 땅들을 '瓦合甫'라고 부른다. 喀什의 '阿帕克和卓麻札'(즉 香妃墓)은 곧 16,000여 畝의 땅을 가진다. 이러한 광대한 토지는 특권계급과 종교상층부의 권세를 보장하며 또한 위구르族의 봉건사회에 있어 유력한 경제적 기반이 된다.

이슬람敎는 경전의 교육을 중시한다. 해방 전, 위구르族의 종교학교는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예컨대, 과거 南疆의 莎車, 英吉沙, 疏附,



위구르족 아가씨가 시집가는 날.
(친구들이 와서 단장해 주고 있다)

阿圖什, 巴楚, 岳普湖 등 6개 縣에 모두 312개의 종교학교에, 10,000 여명의 학생이 있었다. 평균 매 縣에는 모두 50여 개의 종교학교가 있다. 위구르族 지역에는 비종교학교보다 종교학교가 훨씬 많다. 이러한 기형적인 발전 역시 종교가 위구르族 일반인들의 생활 가운데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한다.

종교학교는 阿訇을 양성하는 곳으로, 고급, 중급, 초급의 세 가지 과정이 있다. 학교에서는 고정된 학업년한은 없으며, 주로 학생의 학업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중, 초급 학교의 과정은 구분이 있는데, 주요한 과정은 <코란經>, 教規, 아라비아語, 터키語 및 이란語 등이다. 위구르族의 최고 종교학부는 南疆 喀什의 '航力克'이다. 南疆의 이곳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000여 畝이며, 이 외에도 두 곳에 고등 종교학교가 있다. 新疆 각지의 고위층 위구르族 阿訇은 모두 이같은 종교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다.

수많은 清真寺와 각종 종교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구르族 인민들은 매우 엄격한 종교 체제에 묶여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종교의식과 교구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 이슬람敎의 五

功(念, 禮, 齋, 課, 朝)은 교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로 규정된다. 이로 말미암아 교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 일생 동안의 활동을 모두 종교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 한 사람이 출생하면 阿訇은 즉시 經名을 내려주며 남자 13세, 여자 9세가 되면, 종교규정에 따라 성인으로 간주된다. 이로부터 이들은 성인으로서 종교에 대한 각종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연령 역시 결혼의 '敎規許可年齡'이다. 종교는 통혼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와의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은 부녀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를 위반하면 종교법률의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장례의식도 완전하게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다. 시체는 반드시 종교관계자가 깨끗한 물로써 한번 씻고, 白布로서 싸서 阿訇이 念經 祈禱를 한 후에 무덤에 묻게 되는데, 매장 시에 시체의 얼굴은 西方을 향하게 한다. 이렇듯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교적인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위구르族 일반인들의 종교세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鳥受爾' 糧 같은 것은 매년 농민들이 수확물의 1/10을 清真寺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爾提' 稅는 목장주나 공, 상주가 매년 清真寺에 이익의 2.5%를 내야한다. 그 외에도 '費特爾' '奶孜爾' '菲地叶' '宰洋稅' '伊斯哈提' '開普生' 등등 이러한 종교적인 세금은 언제나 근로인민의 수입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빈곤한 처지로 떨어뜨렸다. 해방 전 新疆의 위구르族 인민 중에는 종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6만여 명이나 되었다. 위구르族의 전체 인구가 360만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 60인이 낸 세금으로 한 명의 직업 종교자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로써 위구르族의 인민들의 과거의 종교적인 부담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中國少數民族宗教概觀』중에서)

번역/ 빈미정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羌村人の 종교

徐平(中國藏學研究中心助理研究員)

羌村은 사천성 문천현 면호향의 羌族 자연촌이다. 필자는 박사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4년 간의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강촌의 종교는 다원적인 문화가 섞여 있는 소수민족 종교의 일반적인 상황을 비교적 잘 대표하고 있다. 본문은 강촌의 종교에 관한 전문 연구이다. 강촌인의 종교사상은 먼저 현세와 허세의 대립을 표현했다. 현세는 현실적인 생활을 가리키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이다.

허세는 현실적인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정신세계로 현실세계와 비슷하나 만질 수 없는 커신세계이다. 한편으로는 꿈과 현실의 유추에서 나오고 한편으로는 생과 死의 유추에서 나오는데, 강촌인의 만든 현실세계와 아주 비슷한 커신의 세계로 이것이 강촌인 종교사상의 기초이다. 강촌인의 커신세계 중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생활하여 돈이 필요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며, 출입도 할 줄 안다. 부계혈연관계가 있는 사람과 여전히 함께 살며, 같이 조상의 무덤에서 산다. 살아 있는 사람은 노인을 모시듯이 죽은 조상을 부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선배가 후배를 징계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 있는 사람을 징계할 수가 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커신세계에서도 마치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분이 있는 것처럼 鬼와 神의 구분이 있다. 神은 바로 현실세계의 관료와 선배처럼 세계의 통치자이다. 강촌인은 天帝 아바목비담에서 가정의 각종 신령에 이르기까지를 만들어 냈다. 현실세계의 법관이나 삼촌 등의 사회콘트를 SYSTEM

을 근거로 저승의 통치기구도 유추해 냈는데 열라대왕이 권세가 가장 커 사람의 생사를 관장한다. 또 그의 부하로 여러 가지 저승사자가 있어 항상 기세등등하게 잡아들여 더욱 그에 대한 대책과 뇌물이 필요하게 된다. 마치 인간 세상에 건달, 거지가 있는 것처럼 저승에도 여러 가지 사람을 먹고 해치는 惡鬼와 孤魂이 있어서 항상 못되게 굴고, 살아 있는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힘이다. 또 사람에게 사상과 감정이 있다는 사실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과 사상이 있다는 범령론을 유추하여 가축 심지어는 모든 동식물 모두에게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부여했다. 또 불교의 윤회론을 끌어들이어 현생은 전생을 정하고 현생은 또 후생을 정하며, 전생의 선악은 현생의 좋고 나쁨의 원인이며 현실세계의 일거일동은 또한 저승 생활과 내세로 바뀔 때 영향을 미친다. 강촌노인은 종종 젊은이에게 개를 괴롭히면 죽은 후 구가촌을 벗어날 수 없고 나쁜일을 저지르면 열라대왕 면전에서 통과할 수 없고 내세에서 소나 말로 변한다고 훈계한다. 이런 사상은 사회 구성원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도록 하여 내세를 위하여 현세에서 절제케 하거나, 혹은 전생의 빛을 갠기 위하여 빈곤하고 초라한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등 사회의 안정에 대하여 상당한 마취작용을 했다.

羌村인의 종교관념 중에는 자기 민족의 소박한 커신 관념에 한족의 도교, 장족의 라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섞기는 신령이 특히나 번잡하고 관계도 아주 복잡다단한데 이는 분명 그들이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소박한 전통종교

관념으로 무리하게 외래 민족의 신령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외래문화의 강한 영향하에 있는 강촌의 문화 조화상황을 상당히 전형적으로 반영했다.

강촌인의 제사

羌村人の 일년 중에는 많은 제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서술한다.

중공정부 수립 이후 미신타파는 대형종교집회가 거의 소멸되게 하였고 특히 한족으로부터 배워온 각종 “會”는 대부분이 완전 소멸되었다. 최근에 대부분의 강촌인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명절을 지낼 때 차례차례 매 신의 이름을 읽고 각 신위에 향을 올리며 감실(사당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역주)에 술, 고기, 과자를 늘어 놓으면 된다. 혹은 재난을 당할 때 어느 한 신에게만 기도를 한다. 우리는 또 상례나 제사 때의 밝음과 어두움, 높음과 낮음, 어그러짐과 순조로움 등의 대립적 개념을 함께 쓰는 것을 연상해 본다면 이런 것으로 유추하여 어렵פות 영혼을 추상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나 현재 어떤 가정들은 연례적으로 하던 설달 그믐날의 조상묘 행사도 생략하게 되었다. 단지 정월 저녁에 神龕 앞에서 불러내어 한번에 모든 귀신 혼령들을 전부 들보게 되어 의식이 갈수록 간단해지게 되었다. 40세 이하의 중년이나 청년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제사 때 쓰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단지 향을 피우는 것만을 할 줄 알아 혼인이나 상을 당하면 법도를 아는 노인을 청하여 도움을 받는다.

강촌인의 일년 중 제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12월 30일 아침 조상의 무덤에 가서 조상에게 설을 보내게 하려고 종이를 태우고 향을 살라 술과 밥을 올리는데 이를 送年飯이라 부른다. 그날 저녁에 온 가정이 모여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고 일찍이 대문을 잠그고 빗자루로 문을 가로막아 야커가 들어움을 방지하며 30일 저녁은 절대로 문을 나서지 않는다. 저승이 휴가라 후손이 없어 제사를 못 지내는 孤魂과 野鬼들이 도처를 다니며 말썽을 일으킨다. 빗자루로 문을 가로 막는 외에 또 체로 지붕에 있는 2개의 통기 구멍을 덮는다. 전자는 빗자루

의 많은 빗자루 살로 야커가 문을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뇌물을 들이밀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자는 체에는 구멍이 많아 귀신이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힘이 세다고 여겨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외에 구약나물(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초로부터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지배함. 이 뿌리로 근약을 만들어 식용함;역주)로 만든 흑두부를 먹는데 먹으면서 “귀신의 골을 먹는다”라고 소리를 질러 야커를 놀라 도망가게 한다. 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장이 감실을 향하여 제사를 하고 각종 제수를 바친다. 그리고 각 신위에 향불을 붙인다. 설에는 후배를 상석에 앉히고 노인이 그에게 술을 준다. 닭고기 면탕원을 먹는데 왕성함과 장수 그리고 화합을 상징한다.

정월 초 새벽에 각 가정에서는 투쵸를 올리고 천제를 제사하는데 이런 풍속은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날이 막 희미하게 밝아 오면 각 가정은 집 뒷쪽에서 불쏘시개용 건초와 흑백나무 가지로 불더미에 불을 붙이고 풍곡기로 祭臺를 삼아 그 바람이 고르고 비가 순조로우라는 뜻에서 위에는 되에 옥수수과 밀(반드시 자신이 생산한 양식으로 신에게 올려야 한다)을 가득 채우고 또 그 위에 제사 때의 최고 숫자인 9개의 구공향초를 꽂는다. 이 외에 술 고기 계란 담배 등을 놓고 폭죽을 터뜨린다. 이 때는 바로 남천문이 열려 새로운 신과 옛날 신이 서로 바뀌는 때며 천제에게 감사도 드리고 또 옛날 신을 보내고 새로운 신을 맞이한다. 가장은 풍곡기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를 태우면서 羌語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

“위대한 천제아바목비탐이여, 지난 일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비길 데 없는 보호로 우리 전가족이 일년을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드리며 제수를 바치오니 받아주십시오. 새로운 1년도 당신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 우리 전가족은 가장 아낀 마음으로 뱀해의 제신을 보내고 닭의 울음소리 중에 옛날 보살은 승천하려고 하기에 우리는 당신을 배웅하며 지난 1년간의 보호와 하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말해의 제신이 내려 오시려 하니 우리 전가족은 정중하게 당신을 영접합니다. 新官이 오시니 3개의 향불로 새해 1년 동안 우리

전가족이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전식구는 모두 몇인데, 남자는 밖에서 부업을 찾아야 하니 동분서주할 때마다 보살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재물을 주시고 재물을 모으게 하시고, 한 알을 심으면 만으로 수확하게 하시고 노인 아이들이 무병무재하고 만사가 순조롭게 지켜주셔서 그들이 살찌고 튼튼하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자라며 육축이 흥성되게 하소서. 보살께서 오셔서 우리의 공물을 받으시고 神位로 가소서”

새벽 조용한 미풍 중에 수탉이 크게 울며, 간혹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연기가 가물거린다. 크고 작은 폭죽소리가 연이어지고 엄숙한 중에 들려오는 경건한 기도소리에 온 세상이 모두가 신비로운 분위기로 불현듯 제신이 앞에 있는 듯하다. 정월에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데 먼저 대문입구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문안에 들어와서는 먼저 감실에 제례와 절을 하고 나서 나이 든 사람에게 절로써 문안드린다. 친척이나 외삼촌을 방문할 때에는 제례를 올리지는 않으나 모두가 술과 하나에 한근 반이나 되는 커다란 만두, 고기 같은 예물을 가지고 간다. 멀리 시집간 처녀는 친정으로 돌아온다. 근친간에는 서로가 음식을 나눈다. 초8일이나 초9일에도 寨에 사는 노인을 청하여 春酒를 권하는 사람도 있다. 관례대로 먹고 마시고 제사를 지내는 이외에 또 대문 입구에 가서 커신을 보내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야커에게는 약간의 종이와 향을 태우고 밥이나 음식을 버리는데 첫째는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함이요 둘째는 불길한 일을 가지고 가게 하려 함이다.

설의 사자회 용등회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종교적으로 강촌인은 사자를 놀리면 牛疫(소의 전염병)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고, 더 나아가 가정과 마을의 불결을 청소할 수 있고 사람과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다. 龍燈은 바람이 고르고 비가 순조로워 오곡이 풍성하기를 기구하는 것인데, 1년 내내 특별히 기후가 좋았으면 놀림을 중지해도 좋다.

음력 2월 15일에는 老君會를 연다. 鐵匠들은 그들의 老君을 租師로 삼고, 있는데 동업자들이 모여 기념한다. 이미 없어졌다.

2월 19일은 관음회로 관음보살을 기념하며 사당에 가서 향을 피우며 절한다. 회의 조직이 있었으나 중공정부 수립 이후에 없어졌다.

3월의 청명절은 강촌인이 죽은 집안 사람을 기념하는 날로 각 가정마다 무덤에 가서 향과 종이를 태우고 술과 고기를 올리고 절을 하며 봉분에 長錢을 걸고 무덤에 종이 돈을 뜻고 나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 끝으로 나뭇가지나 줄기로 묘지를 청소하는데 지금까지 지켜오는 풍습이다.

3월 20일의 娘娘會에는 아들 딸을 원하는 집들이 河坪寨의 娘娘廟의 재에 가야만 했는데, 중공정부 수립 이후에는 없어졌고, 낭낭묘는 폐허로만이 남아 있다. 삼사월 봄 파종 이후에 거행되는 靑苗會는 산신회라고도 부르는데 회의 조직이 있다, 전촌의 각 가정은 돌아가면서 회를 주관한다. 3일 전에는 나다니길 피하게 해 행인이 신령을 번거롭지 않게 하고 무당은 1개월 전부터 몸을 씻고 준비를 한다. 무당을 청하여 태평보호케 하여 1년 내내 바람이 고르고 비가 순조롭기를 기구하며 작물이 무병무재하고 양식의 수확이 풍성하도록 산신보살에게 소원을 한다. 각 가정의 파종이 끝나고 두렁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하여 새나 벌레가 작물을 망치지 않도록 했으나 중공정부 수립 이후에 사라졌다.

4월 28일 藥王會는 華佗 李時珍을 기념하여 민간 의사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를 이들의 스승으로 여김이다.

5월 5일 단오절은 날이 밝자마자 약초를 캐러 나간다. 목은 축을 문입구에 걸고 翁황주를 실내에 뿌린다. 이로써 벌레나 뱀을 쫓아내고 翁황주를 마시고 냉채 순두부를 먹는데 이 습속은 아직 남아있다.

5월 13일 單刀會는 관우를 기념하는데 결사대원은 특히 제사를 지내야 했다. 민간에서는 서는 별로 유행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사라졌다.

5월 15일 魯班會는 목수, 죽세공, 톱장이 등의 장인들이 이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노반을 조사로 삼았다.

5월 23일 용왕회는 동해용왕 熬庵을 제사지내는데 별로 유행치 않았고 일찍 사라졌다.

6월 6일 王爺會, 왕야는 와와신이라고 하는

데 이름은 懷亞라고 한다. 그의 부모는 회아를 죽여 할머니께 효도하였는데 회안은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 일찍이 왕야묘와 회 조식이 있었으나 이미 사라졌다. 현재는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 제사를 지내는데 방 모서리에 밀가루떡과 칼날 술 향을 올린다. 6월 6일을 산왕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산 중의 만물을 관리하는 산신을 제사한다.

6월 19일은 관음회이기도 한데 이미 사라졌다.

6월 20일 四川主會는 李二郎을 기념하는데 강촌인은 이를 地盤業主로 여기며 회 조식이 있었으나 사라졌다. 죽두제에는 川主廟 폐허가 아직 있는데 현재 여전히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 데 용등 사자 놀이를 할 때 가서 공양을 해야 한다.

7월 7일 토지회는 토지할아버지와 토지할머니를 제사하는데 토지보살 또한 지반업주로써 저승사자가 사람을 마구 잡을 때 토지보살이 나타나서 막는다. 이것은 이미 사라졌다. 7월 半敬祖先, 이 날은 저승이 휴가이기 때문에 각 가정의 죽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 방문을 하는데 각 가정의 대문입구에서는 대량으로 福紙를 태우고 향을 피우며 예를 올리고 칼로 원을 도려내 야귀가 음식을 훔치는 것을 방지하며 옆에서는 야귀를 위하여 약간의 종이돈을 태운다.

7월 30일 산왕회는 산중의 만물을 관리하는 山王爺를 제사한다. 회 조식이 있으며 각 가정은 돌아가면서 주관할 한다. 1949년 이후에 사라졌다. 현재 구두 남화산에는 산왕묘 폐허가 아직 있고 안에는 목각 산왕상이 있어 산에 올라 땀감을 자르고 탄을 태우며 사냥을 하거나 약초를 캐는 사람은 여전히 종종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린다. 산왕묘 주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이미 40여 그루가 잘렸다. 山王爺는 지금 가정의 뜰에서조차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신수림은 절대로 벨 수가 없었다.

8월 초하루는 또 靑苗會 혹은 산신회라고 하여 양식수확의 풍성함을 경축하고 신령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강촌에서 가장 성대한 민족적인 절기이다. 각 가정에서는 벌써부터 약간의 옥수수를 그 해의 제주에게 건네켜서 돼지를 살찌게 한 다음 제사나 會에서 쓰게 한다. 매

가정에서는 또 수탉 한 마리 암탉 한 마리를 잡고, 두부 두 덩어리와 두 냥의 술을 낸다. 제사를 치르는 곳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일반적으로 산신표 혹은 신수림에서 무당이 기도하며 소원하고 천제 및 못신령의 보우를 감사하면서 온 마을이 함께 즐긴다. 또 종종 덕망이 두터운 사람이 新人會의 아동을 위하여 오색실을 매주며 아주 시끌법석 하루를 보내는데, 사실은 풍성한 수확을 경축하는 절기이다. 1949년 이후 사라졌다.

8월 초이틀 魁星會는 괴성보살을 제사하는데 즉 북두칠성으로 일반적으로 생육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긴다. 이미 사라졌다.

8월 15일 중추절은 月亮보살을 모시며 羌村人은 태양과 달을 두 자매로 본다. 태양은 언니로 달이 작아 감히 저녁에 나오지 못해 낮에 나오고 또 수줍어 한다. 그래서 천제가 그녀에게 바늘을 보내 그녀를 보는 사람의 눈을 찌르도록 하였다. 일식과 월식은 태양과 달, 두 자매가 만나는 날이다. 현재는 한인처럼 하늘의 개가 해를 먹어 치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며 복을 치고 징을 울려야 서로 구하게 된다.

9월 19일은 또한 관음회인데 일찍이 사라졌다.

10월 초하루는 牛王會로 닭을 잡아 우왕보살을 제사하는데 육축 특히 농사 짓는 소가 무병무난하도록 지킨다. 과거에 우왕묘와 회조식이 있었으나 1949년 이후 사라졌다.

10월 16일 산신회이기도하다.

10월 18일 地母會인데 일찍이 사라졌다.

음력 11월 19일 태양회는 태양신 徐蓋를 제사하는데 일찍이 사라졌다.

1년 중에 선달만이 회가 없고 설맞이를 준비한다.

현재 강촌인은 보살, 옥황대제, 염왕, 저승사자, 내세, 지옥 등의 관념을 보존하는 이외에 대체로 더이상 한족신령을 제사하지 않으며 더욱이나 대규모의 종교활동은 없다. 1년 중에 겨우 있던 집체적인 사자용등회도 강촌에서 사라져 종교가 강촌인의 눈에는 갈수록 희미해져 신은 전통적인 영예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공수립 이후에 미신타파와 여러 차례 정치운동의 물결 속에 문화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강촌인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증공정부 수립 이후의 생산력의 커다란 진보이다. 특히 농업 생산의 진보는 강촌인에게 두려운 대상이 갈수록 적어지게 해 神과 鬼도 존재의 터전을 점점 잃어갔다.

두 세계의 연결인

강촌의 현세와 허세 사이에는 무당 같은 특수한 인물이 연결하고 있다. 강촌인의 언어로 말하자면 무당은 “소개인”으로 사람과 신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중간인이다. 무당은 자칭 “詩卓”(시탁)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칭해 부를 때 “詩卓比”라고 하며 어떤 곳에서는 “錫祖比” 간단하게 “比”라고 부른다. 생산활동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교 인물이며 전문적인 사원과 사회조직은 없다. 그 특징은 보살교의 보살과 아주 비슷하다. (<북경대학연구생학간> 1990년 제 1기에 수록된 저서 “다우르 민족의 종교생활”을 참고 바람)

무당의 유래에 대하여 강촌인의 전설은 이러하다. 천제아바목비담의 셋째딸 목저주가 인간 세상에 시집은 후 친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때 부친과 인간사를 이야기했다. 인간세상에는 요괴와 마귀가 많다고 하면서 아바목비담에게 방법을 청하였다. 이에 천제는 하늘의 신인 무당 아바목라범을속세에 보내 전문적으로 羌人을 위해 길흉을 점치고 사악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게 했다. 아바목라가 인간세상으로 오는 길에 설산 위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잠들자마자 몇 년이 흘러 버렸다. 그가 깨어나니 땅쪽의 神복의 한면이 이미 썩어 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무당은 한쪽 면만 있는 복을 사용한다. 그리고 무당은 金絲로 된 원승이 머리로 머리 장식을 삼고 신무를 출때도 원승이가 뛰는 동작을 흉내내어 한다. 무당은 경전 없이 구전한다. 무당의 교육은 스승이 도제를 데리고 직접 가르친다. 무당에 관하여 배우고 싶으면 먼저 예물을 가지고 스승될 이를 찾게 되는데 노 무당이 “아이를 가르쳐도 되겠다.”고 여기면 도제로 받는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대를 잇게 되는데, 도제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된다.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길흉을 점치고 제사를 지내고 신무를 추어 귀신을 쫓아내는 등 오랫동안 눈과 귀에 익혀 요령을 전부 터득하게 된다. 喪禮때 쓰는 祭詞는 평상시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사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스승이 도제가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방의 무당을 청해 놓고 신참 무당을 위해 그를 심사하며 무당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 때에 각처의 무당들이 이 신참 무당의 집 뜰에 모이게 되는데, 한 사람이 한가락 祭詞를 읊어 신참 무당을 위해 신을 부르게 된다. 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낸 다음 신참 무당이 산에 올라 사방의 신령을 청해 신령이 준 마력을 확인하게 된다. 동행한 두 사람이 옷에다 침을 가득 꽂아 주어야 하는데 사귀들이 몸에 붙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함이다. 신참 무당이 아바목라(무당의 조사)를 줄곧 부르게 된다. 이때 어떤 짐승이 처절하게 부르짖으면 아바목라가 감응한 것이 되어 무당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고, 이 짐승은 이 새 무당의 보호신이 된다. 이때부터 이 무당은 무당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무당의 직능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제사를 지내, 각종 신에게 기도와 발원제를 드림으로써 평안과 풍조우순, 만사순리를 기구한다. 동시에 祭主와 일정범위의 조직체의 지도자가 된다. 예를 들면 1949년 마을 이장은 무당이 담임했는데 그들은 그 마을의 상류층으로써 물질적으로는 부유했고 더욱이 정신적으로도 지도자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당은 또한 박수이기도 하여 짐을 치고 귀괴를 찾아서 위협하거나 회유하거나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요괴나 사귀를 물리쳐서 감히 장난을 못하도록 한다. 법사를 하는 데는 돈을 받지 않고 단지 예물만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제사 후의 제물들은 무당이 갖고 양을 잡는 제례에서는 무당은 뒷다리 부분을 갖는다.

강촌인의 혼상례에서 이미 무당을 부르지 않게 되었고 이를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맡게 되었다.

王治高 노인은 지금 강촌에서는 범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무당은 아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보살(무당의 보호신 같은 것)의 도움은 없고 오로지 스스로 행한다고 한다. 순전히 자

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祭語는 쉽사리 말하지 않고 나서지도 않는다. 강촌 이외에 簇頭, 溝頭, 高東山, 河坪 등에서는 일을 당하면 여전히 무당을 청하며 특히 좋지 않은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무당을 청하여 커신을 붙들어 놓아 줄초상을 피하게 한다. 그러나 강촌인이 무당을 청하여 일자를 가늠하고 손가락 점을 짚어보는 일은 아직도 잘 보존이 되어서 혼기나 출판일자 상량시간 등은 반드시 무당을 청한다. 일이 있어서 먼길을 나설 때 모두가 신중하게 길일을 선택해 “刮不”과 “食日”을 피하고 “黑波兒”를 선택한다.

서양 종교의 강촌에 대한 영향

최근에 강촌에 서양 종교를 믿는 상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1949년 이전에 기독교는 강촌에 대하여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줬다.

광서 4년(1878) 영국 대위 질과 사병 마이스니가 최초로 성도에서 이 지역을 통과했다. 1888년에 영국 기독교 성공회의 홀스가 먼저 이곳에 와서 살면서 선교를 했다. 1898년에서 1899년까지 프랑스 선교사 莫 신부와 로마 교황청의 余 신부가 연이어서 이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선교를 했다. 1906년에 영국인 費格生이 와서 살았다. 금세기 초에 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를 했다. 서양 종교의 영향은 갈수록 커졌고 서양인의 이곳에서의 활동도 갈수록 빈번해졌다. 1920년에서 1933년에만도 외국인들이 8차례나 각종 명의로 이곳에 왔고 1939년에 미국인이 성도에 “中華基督教全國總會邊疆服務部”을 세우고 문천현의 위주진에 “川西辦事處”를 설립하여 광범위하게 선교 의료 등의 활동을 했다.(엽광영, 이소명, 주석은 저<강족사>사천민족출판사 85년판 제 274-300) 신중국이 성립되어서야 외국 세력은 전부가 쫓겨났다.

최초로 綿虎지역에서 선교한 사람은 프랑스 선교사 莫 신부로서, 대략 1899년 면호성 내구두에서 3칸 기와집을 교회당으로 삼아 “천주당”이라는 간판을 높이 걸었으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1920년 영국 목사 陶然士가 면호에 와서 선교를 하며, 馬玉豐의 집을 임대하여 복음당으로 삼아 병을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다. 도 목사는 중국어에 능숙하여 선교의 효과가 두드러져서 갈수록 많은 장, 강, 한, 가족속들이 병 치료를 하면서 점차 교의를 받아 들었다.

강촌 부근 溝頭寨의 王廷秀는 산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실맹증을 앓고 실명하게 되어 도 목사에게 치료를 청했다. 도는 그를 성도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여 왕정수가 굳건한 기독교도가 되게 하였고 이어서 도연사는 또 왕정수의 아들 王治清을 성도로 보내 서양 의학을 3년 간 배우게 하였다. 매년 여름에 도 목사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검은 노새를 타고 두 명의 일

최근에 강촌에 서양 종교를 믿는 상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나 1949년 이전에 기독교는 羌村에 대이여 매우 커다란 영향을 줬다.

광서 4년(1878) 영국 대위 질과 사병 마이스니가 최초로 성도에서 이 지역을 통과했다. 1888년에 영국 기독교 성공회의 홀스가 먼저 이곳에 와서 살면서 선교를 했다.

행과 요리사를 데리고 족두, 강촌, 구두에 도착하여 피서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강족 신도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강인은 유태인이 동쪽으로 옮긴 일파라고 부추기면서 서양인과 같은 즐기라고 하였다. 강인의 천제아바목비담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羌人 남자 조상인 열비와가 바로 아담이고 강인에게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호소하면서 무릇 믿는 자들은 집안의 신감을 부수고 친구약 성경을 배우고 아동을 학교에 보낼 것을 장려하였다.

도연사는 1922년에 강촌, 족두, 구두에 와서 활동했는데 다음해에는 신도가 여럿으로 불었다. 구두채에서는 신도에게 세례를 줬는데 남자 신도들은 도 목사가 데리고 溪溝里에 가서 물에 잠그는 의식을 차례로 거행했다. 여자 신도들은 동행한 영국인 여선교사인 임 선교사가 실내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도 목사가 신



羌族은 조상 때부터 양을 치면서 생활을 했다. 羌族은 四川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農耕과 牧羊을 業으로 삼고 있기때문에, 羊은 그들이 생활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들을 청하여 식사를 했는데 탁자가 50여 개나 되었다. 매 자리에서 8명씩 앉았는데 강촌 부근 세 마을 寨의 주민의 거의 전부였고, 주위 각 羌, 藏 村寨까지 포함되었다.

도연사는 민국 22년에 귀국했고 그 이듬해에 미국인 何爾德 목사가 면호에 와서 선교사업을 이어받아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거행했다. 동지가 지난 3일 후에 耶穌會를 열었으나 다시는 세례는 거행하지 않았고 왕정수는 복음당 장로가 되었다. 1946년 교회의 세력은 이미 절정에 이르러 그해 성탄절에 신도가 모였을 때는 80여 탁자를 채웠고 사람수도 이미 6-700명이나 되었다. 중공수립 직전에 하이덕 목사는 급히 귀국했고 따라서 기독교의 선교도 수그러들었다. 도연사가 귀국 전에 교회에 2,000조의 동전과 100개의 은돈을 남겼는데 후에 교회 내부의 재정적 분규를 일으켰다. 1935년 홍군이 국경을 넘은 후 교회의 지도층은 황급히 관현 복음당으로 도피했고 도연사는 영국에서 편지를 써서 위문하면서 은돈 20원을 부쳤다. 도연사는 이후에는 <青衣羌-강족의 역사속속과 종교>

등을 썼다. 이 책은 이미 문천현 문화관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다. 몇 년 전에 면호에서 출생한 도연사의 아들인 “陶弟弟”가 이곳에 다시 들렀고 관련 기관에 자료들을 기증했다. 이후에 기독교의 영향은 급속히 줄어들었고 신도들도 여러 차례의 운동을 거치며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 구두체의 왕치청 일가만이 유일하게 기독교 믿음을 승인받았는데 집에는 신감 없고 예배를 볼 때 성경을 외운다. 그러나 77세의 왕치청 외에 아들이나 손주들은 사실상 아주 경건치 못하다. 강촌의 많은 노인들만이 도 목사가 당시에 전한 교의를 아직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오” 몇 소절 정도를 부를 줄 안다. ◊

(『世界宗教研究』 중에서)

번역/이덕형(중국어문선교회 회원)

壯族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다. 壯族은 역사가 긴 민족으로서 과거 史書 중에 壯族을 '西甌' '駱越' '烏滸' '僚' 등의 명칭으로 쓰다가 宋代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僮'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 자체적으로는 '布壯' '布儂' '布土' '布僚' '布越' '布雅伊' '布沙' 등의 명칭을 써왔다. 그러다가 중공정부 수립 이후 統稱 '僮族'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僮'이라는 글자는 1965년 周恩來의 건의를 받아들여 '僮族'의 '僮'자를 '壯'으로 고치면서 '壯族'이 된 것이다.

壯族은 90% 정도가 廣西壯族自治區에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雲南省 文山壯族苗族自治州와 廣東 海南島 臨高縣 등지에서 분포되어 있고, 그 밖에 湖南省 江華瑤族自治縣과 廣東省 連山壯族瑤族自治縣 등지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壯族의 언어(壯語)는 漢壯語系 壯侗語族 壯僚語類에 속한다. 唐·宋代에 漢字를 근거로 方塊壯字(土俗字)를 만들어 내기도 했었다. 예컨대, '田'자를 壯語로 '那'라고 발음하는데 글자로는 '𠂔'라고 썼다. 이는 위의 글자는 독음을, 아래 부분은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필획이 번잡하고 쓰기가 복잡하여 사용하기에 아주 복잡했다. 따라서 通用치 못하고 다만 宗教의 經文이나 山歌의 가사, 기타 서신 중에서만 가끔 사용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1955년에 들어와 라틴어 字母를 기본으로 한 拼音文字를 만들어 지금은 壯族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壯族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이다. 생산수준은 그 지역의 漢族과 비슷하나, 지역간의

발전은 대체적으로 불균형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형태에 걸맞게 壯族의 과거의 종교 신앙은 상당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통일된 종교가 형성되지 못했다. 불교, 도교, 조상숭배 그리고 무술 등의 원시종교가 서로 섞이어 공존하고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는 천주교, 기독교 등이 들어와 자리잡게 되었다.

壯族人은 자연숭배에서 시작되어 조상숭배를 거쳐 최후에는 多神信仰에 이르렀다.

낙후된 사회생산력의 조건하에서 대자연의 여러 현상들, 예컨대 日月星辰、風雨雷電 등등은 壯族의 선조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홍수, 가뭄, 태풍 등으로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타격을 주면서 그들은 공포에 떨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萬物마다 모두 靈이 있다는 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壯族人들은 과거 산이라든가 나무, 강물 등에 신령이 있다고 여겨 이것들을 신성시하여 숭배했다. 예컨대 중공정부 수립 이후 壯族人이 제사지냈던 土地神, 社神, 雷神, 水神, 蛟龍神, 山神, 灶神 등등이 그렇다. 마을마다 또는 몇 채 안되는 고을에서조차 거의 정해진 제삿날이 있었다. 매년 봄 집단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春祈'가 있는데, 이는 土地神, 山神, 雷神 등 여러 신에게 곡식이 잘 자라고 고른 날씨를 기원하는 제사이고, 가을이 되면 여러 신에 감사를 드리는 '秋祈'가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보살핌과 풍성한 수확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음해에도 역시 여러 신들의 도움을 기원하는 제사

이다. 이를 통해 보면, 자연의 힘이 이미 인격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神 역시 인간의 본질적인 색채를 구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신 중에서도 '社公'과 '土地公' 神이 가장 많은 숭배를 받는 신이다. 과거 壯族 마을에는 社公廟나 土地公廟를 세우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공의 神像은 두 개의 바위로 되어 있고, 사당은 대략 1평방의 작은 집으로 망루 윗쪽의 커다란 나무 밑에 세워져 있다. 사공은 촌락 전체의 주인으로서 촌락의 禍福을 주관한다. 따라서 사공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사공이 부락 전체 촌민이 공동으로 거행하는 집단 숭배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일년 중 음력 선달 그믐에 제사를 지낸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사당에서 갖고 온 祭肉과 죽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보내온 선물을 아이가 있는 며느리 방문 밖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 이유는 아이가 속죄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때에 사용했던 죽을 가축에게 먹이는데 이것을 먹은 가축은 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이 세지고 살이 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공에게 도움을 바라며 비는 제사인 것이다. 평상시에도 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 사공묘로 가서 그에게 도움을 빈다.

龍祭 또한 壯族 각 지파가 공동으로 올리는 종교 신앙 의식이다. 壯族의 각 부락마다 '龍山'이 있는데 매년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해야만 모든 가축이 평안하고 오곡이 풍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壯族은 또한 '花王聖母'를 믿고 있다. 壯族語로는 '花婆'라고 하는데, 이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신령으로서 어린아이의 수호신이라 말할 수 있다. 壯族 부녀자들이 애를 낳은 후 산모 침대 머리맡에 花婆 神位를 세우고 거기에 들에서 꺾어온 꽃가지를 꽂아 놓는다. 전설에 의하면 남자애 여자애 모두가 이전에는 花婆 정원에 심어져 있던 神花 꽃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일단 태어나면 외갓집에서 외손자를 위하여 花婆에게 접대를 한다. 아이가 병이 나면 아이의 어머니는 花婆에게 공을 드리

고 무당을 불러 그에게 花婆의 정원으로 들어가 그 아이는 무슨 꽃이며, 꽃에 벌레가 있는가를, 혹은 꽃의 물이 말라 비틀어졌는가를 살펴 보게 하고 무당더러 그들 대신에 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라고 부탁을 드린다. 아이가 자란 후에는 매년 설날이 되면 일어나자마자 먼저 花婆에게 정중히 세배를 올려야 한다.

조상숭배 또한 壯族人에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 신앙이다. 원시사회에서 발생된 영혼불멸의 관념은 壯族人에게 사후에도 생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여기게 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하여 일종의 장례의식을 치르게 하는데, 예컨대 특별한 물을 사서 몸을 씻긴다거나 관을 사서 출관할 때 죽은 이의 손이나 눈 위, 그리고 혀 밑에 은전이나 동전을 올려 놓아 그가 저승에서 여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무덤 위에 상징성을 지닌 집을 지어 놓거나, 무덤 안에 생전에 쓰던 용구나 생활용기 등을 같이 묻어 놓고 하고, 또한 送魂의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점차 후에 조상이나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 활동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 壯族人 집마다 집안에 조상의 위패를 모셔 놓고 있으며 節日이나 명절 때마다 향을 피우고 음식을 올린다. 그리고 고을마다 성씨 단위로 구성된 종묘가 있고 鄉과 村마다 宗姓단위로 세워놓은 宗祠가 있는데 사당 안에는 역대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조상을 섬기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종묘에서 총체적으로 제사를 올리는데 이는 자손들로 하여금 조상과 가족의 과거 사적을 되새기게 하고 법도에만 따르고 그 근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조상숭배가 성행되면서 자연 토지공에 대한 숭배 역시 더불어 더욱 성행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수십 개의 토지공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 三代 이하 경우에는 家堂의 위패서열에 가담되고, 五代 이하는 집의 난간 아래에, 九代이하는 土地公廟로 가서 섬김을 받는다고 이들은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상에 제사지내고, 조상을 모시다 보면 저절로 土地公廟 또한 촌락마다 흥행하게 되는 것이다. 매년

초하루와 보름 등의 절기가 되거나 마을에 재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土地公廟로 달려가기도 드리고 닭과 오리를 잡아 공을 드리는 데 이때 土地公에 거슬리는 어떠한 경거망동이나 태만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雲南省의 壯族은 최근 三代의 조상만 龕室(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두는 장)에 모시고 나머지 代는 밭에 모시는데 이는 농산물의 수확에 도움을 빌기 위함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종교 숭배 관념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새로운 것에 옛 것을 가미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불교와 도교는 대략 唐宋시기를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壯族지구에 들어왔다. 생산력이 낙후되어 있고, 부족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낮은 문화수준과 통치계급의 선도 등등의 원인으로 불교와 도교가 壯族인의 중요한 종교 신앙이 되었다. 널리 농촌에 보급하여 건립한 사찰로는 '三界廟' '觀音庵' '關帝廟' '大王廟' '大神廟' 등등이 있다. 집집마다의 神龕 위에 조상의 위패와는 다른 위패를 모시고 多神을 섬겼다. 儒、佛、道와 壯族이 본래 갖고 있던 원시 민간종교가 하나로 결합되면서 인간의 사상이나 생산, 생활을 주재하게 되었다. 또한 빈번한 종교 활동은 엄청난 종교적 지출을 가져와 壯族을 더욱 궁핍한 상황으로 끌어들이고, 반대로 궁핍할수록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더욱篤실하게 됐다. 현실생활에 행복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희미한 來世에 기대를 걸게 되고 이는 결국 종교 신앙을 통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칭 귀신과 인간 사이의 대리인이라는 자들, 즉 인간과 神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각종 종교적 종사자가 성황을 이루게 된다.

壯族지역에서 각종 종교적 종사자는 크게 '釋' '道' '師' '巫' 등 몇 가지 종류가 있다.

'釋'은 석가모니를 신봉하는 불교를 말한다. 불교가 壯族지역에 전입되면서 필수적인 조건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적용을 해야만이 뿌리를 내리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壯族지역의 불교종사자는 단지 중만은 아니었고 소위 일컫는 '花僧'이 있었다.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잿밥도 먹지 않고 단지 한

달에 며칠만 택하여 소, 말, 개, 비둘기고기를 먹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들이 法事를 행할 때는 如來佛과 觀世音像을 걸고, 佛經을 읽으며, 架裝을 걸치고, 法器를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사찰의 佛者와 똑같다. 다만 그들이 불경을 읽을 때 매단락마다 '菩薩摩訶沙'라 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菩薩摩'라고 부르기도 한다.

花僧의 주요 활동은 사람들에게 授戒를 하거나, 죽은 이를 위해 極樂往生하도록 기원해 주며, 또한 점을 쳐주기도 하며 조상을 위해서 혹은 무덤에서 기원을 드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으며, 상냥식 때 주문을 드리고, 재계를 하는 등등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經書로는 '彌陀經' '地藏經' '金剛經' 등으로 이 經書들은 전부 漢文으로 쓰여져 있고, 讀經시에도 漢音으로 읽기 때문에 壯族 중에서 글을 아는 자들이 이 일을 주로 맡고 있다. 그들의 法具로는 일반적으로 法衣 한 벌, 昆祿朝珠(염주) 한 벌, 海螵 한 개, 十殿閻王神像 한 벌, 木魚 한 개, 銅版 한 개, 皮芦帽 한 개, 紅僧鞋 한 켤레 등등이다.

이러한 불교는 도교와 壯族 민간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불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교도 아닌 특색을 지니고 있다. 어떤 승려는 죽은 이를 위하여 讀經할 때 자주 成文經을 다 읽고 나서 出棺전에 큰소리로 "亡者回山去, 陰世大地好風流, 逍遙又耍街, 亡者不回頭, 尊吾太上老君敕令....." 이때 얘기하는 "太上老君"이 바로 道敎의 신이다. 또한 종교계율 등의 많은 부분이 정통 불교와는 사뭇 다르다.

'道'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道敎의 道士를 말한다. 일설에 의하면 그들의 先師는 먼저 梅山으로 가서 道를 배우고, 다시 茅山으로 가서 傳敎를 했다고 한다. 이 종교직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出家하지 않고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 달 중에서 며칠을 골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精進潔齋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그들이 받드는 최고의 神仙은 太上老君이다. 道經 역시 漢文으로 되어 있어 讀經시에도 漢語로 읽는다. 그러나 그들이 독경을 할 때 자주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喃喃謨謨"라고 들리는 듯하여 사

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喃謨”라고 부른다. 이 “喃謨”道師들의 특징은 그들이 고정된 사찰을 따로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고정된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만능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讀經과 법도를 행하는 일 외에, 평소 집 또는 문자점을 치거나, 지관의 역할을 맡아 풍수 지리를 분별해 주기도 한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水災, 旱災 등의 天災나 풍년일 때 讀經을 하거나 法術을 행하고, 결혼시 사주를 본다거나 길일을 택해 주고, 喪이 있을 때 독경, 귀신을 쫓는 일 등등을 행한다. 그들의 도구는 일반적으로 法書, 法衣, 寶劍으로서 이들 道士들은 대를 물려 전수하고 때로 제자를 두기도 한다.

‘師公’은 壯族의 민간 무당을 말한다. 그들은 精進潔齋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喪事에서도 法事를 행하면서 고기와 술을 다 먹는다. 이들 또한 나름대로 經典을 갖고 있다. 이는 漢字이나 土俗字로 쓰여 있기 때문에 讀經시 또한 壯語로 읽는다. 그 내용은 대부분 壯族 古代 神話 傳說이다. 壯族의 민간 원시종교는 바로 그들이 계승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壯族의 유구한 민간문화 역시 이들에게서 보존되어 내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跳神’시 얼굴에 가면을 쓰고 歌舞를 하면서 神을 봉공하고 魔神을 쫓으며, 福을 구하고 재앙을 쫓는 일을 행한다. 이러한 무용에는 ‘踩花燈’ ‘鯉魚跳龍門’ ‘跑王方’등이 있는데 이들을 ‘師公舞’라 하기도 한다. 壯戲는 바로 ‘跳神’을 기초로 해서 발전된 壯族 民間戲劇이다. 다소 난폭한 종교무용 외에, 師公이 法術을 행할 때를 보면 역시 민간 종교음악이 그 곳에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기로는 大鼓, 大鑼, 小鑼, 大鑼, 小鑼, 洞簫 등이 있는데 대부분 喪事 때에 연주한다. 師公 역시 제자를 두어 전수한다.

‘巫婆’ 또한 민간종교의 중요 인물이다. 壯語로는 보통 ‘禁婆’라고 한다. 이들이 앞의 인물들과 다른 점은 스승에게서 전수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無師自通(스승 없이 혼자 통달한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농촌에서 노래를 잘 하거나 편곡을 잘 하는 아가씨로서 감정이 풍부하나 의지가 약하여,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 정신분열

에다 헛소리를 잘 하거나 노래를 자주 부르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붙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자들이 귀신과 통하기 때문에 일단 정신을 차린 후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녀를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녀 자신도 남들의 자신에 대한 미신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몸에 귀신이 붙는다고 믿어 신의 예언자가 된다. 자신은 신선같이 별개의 세계에서 온다고 자칭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주고, 멀리 있는 영혼을 불러 저세상 일을 묻는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농촌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즐겨 찾게 되는 것이다. 巫婆 또한 특별한 經文이나 주술 따위는 없다. 단지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의식 뒤에 황홀의 경지에 다 다르면 귀신을 불러 托神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점을 치러 온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巫婆는 壯族의 民謠로 화답을 하는데, 이때 山歌는 수시로 편곡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 해서 巫婆가 될 수는 없다. ‘花僧’ ‘道士’ ‘師公’ 등의 여러 신분과 비교해 볼 때 巫婆의 지위는 제일 낮다.

이상의 여러 신분의 종교 종사자들이 전적으로 종교 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활동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이 종교적인 일이 있을 때만 나가 활동하고 그 외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 마을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 어떤 종교의식을 행할 때 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無知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다. 예컨대 ‘下油鍋’라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이는 孝子が, 죽은 후 죄의 대가로 기름술에서 고통을 받는 부모의 죄를 씻기 위하여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죄과를 받는 의식을 말한다. 이것은 커다란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 끓인 다음 기름이 필필 끓을 때 의식을 행하는 자가 효자의 손을 잡고는 불시에 손을 가마솥에 집어 넣었다가 다시 꺼낸다. 그러나 그 효자의 손은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종종 속임수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이 신령의 존재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



壯族의 남자들은 모두 漢族옷을 입는다. 廣西 西北部의 壯族 女子들은 칼라(Collar)가 없는 옷을 입고 머리카락에는 꽃무늬가 있는 두건을 쓴다.

교의식 집행자의 '초자연적인 법술'에 대해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임수는 잘 공개되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들이 가마솥에 기름을 부을 때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같이 식초를 함께 섞어 붓는 것이다. 식초는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솥 밑에 깔리게 된다. 따라서 솥이 뜨거워지면서 밑으로 내려앉은 식초가 먼저 뜨거워지고 기포가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언뜻 보면 마치 기름이 끓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때 재빨리 손을 기름 속에 집어 넣었다가 떴을 때 아무런 상해나 위험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종교는 사람을 마취시키는 아편작용을 하기 때문에 깊이 壯族人の 사회생활이나 생산성에 침투하게 된다. 예컨대 생산상의 각종 제사의식, 각종 금기, 또 무슨 '穀雨驚蟄不動土(穀雨나 驚蟄 때는 땅을 건드리지 않는다)' 라든지 '小暑不進園, 大暑不進田(小暑 때는 들판으로 나가지 않고, 大暑에는 밭에 나가지 않는다)' 또는 '액일에는 땅에 내려서지 않는다'는 등등이 농업생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생활에 있어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랄 때까지 滿月, 架橋, 安花, 解關, 逐鬼, 占, 宮合 등등의 의식을 행하며, 죽을 때에는 度戒, 打齋, 超度, 安葬 등의 미신적인 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의식 모두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종교 및 미신방면에 지출하는 1년 비용이 전체 수입의 10% 이상에 달한다.

근대에 들어와 제국주의가 중국에 침입하면서, 특히 1844년 12월 淸朝 道光皇帝 때에 천주

교를 개방한다는 칙령이 내려진 후 천주교와 기독교가 壯族지역 전해지게 된다. 1907년(淸光緒 33年) 통계에 의하면 廣西省 전역에 50여 개가 못되는 성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壯族人이 거주하는 武宜, 凌雲, 崇左, 柳城, 貴縣, 龍州, 百色, 柳州, 象州, 邕寧, 上思, 西林, 欽州 그리고 雲南의 文山 등지에는 어디에도 성당이 없었다.

1862년에는 기독교 역시 壯族지구로 들어오게 된다. 1907년의 통계에 의하면 廣西 전역에 29개의 예배당밖에 없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武鳴, 桂平, 象州, 貴縣, 宜山, 百色, 龍州 등의 壯族지구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壯族人들은 오랜 기간 동안 儒·佛·道 등과 多神敎의 종교적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一神敎의 천주교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더욱이 牧者들이 입교자에 대해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되며, 조상에게 절을 해서도 안되며, 집안에 神像이나 향로를 배치해서도 안되며, 사람이 죽었을 때 道公을 청해서도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중히 여기는 壯族人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해당 민족의 전통문화나 교유의 민족심리에 위배되는 것은 여하간의 것일지라도 그 민족에 융합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파견되어 온 선교사들이 어떠한 위협이나 속임수의 수법으로 壯族人들에게 조상의 위패를 내던져 버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와, 특히 60년대에 영국 국적의 전도사 牧屍이 일찍이 개탄을 하며 말하기를 "전도사들이 中國 18省에 들어와 있지만, 오직 廣西省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천주교나 기독교 선교사들이 壯族지역에 들어와 선교를 하기는 했으나 결코 광범위하거나 깊이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말이며, 동시에 廣西 壯族지구의 민간 원시종교가 壯族人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中國少數民族宗教概觀』 중에서)

번역/ 양승훈(중국어문선교회 회원)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석은혜 (중국어문선교회 간사)

“벨리리- 붐, 벨리리-”

'93년 1월 30일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현지를 답사하기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생들과 간사 몇 명이 출발했다. 중국선교여행 일곱째 되는 날 (93.2.5) 貴州省의 貴陽市에서 봉고차를 2시간쯤 타고서 苗族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입구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마주보고 서서 蘆笙(lúshēng; 대나무로 만든 생황으로 악기 이름)을 불고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올 때마다 환영하는 뜻으로 대나무로 만든 이상하게 생긴 이 악기를 연주하여 음악을 들려준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그 악기 연주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 나라의 낙후된 시골 같은 묘족마을로 새로운 경험을 향해 성큼 발을 들여 놓았다.

“喝酒 喝酒!(hējiǔ)”

전통의상을 입은 아저씨가 소뿔로 된 술잔으로 “곡주”라는 술을 권했다. 아니, “웬 술?” 처음에는 내심 당황했지만 우리는 빠른 눈치로 이것이 그들의 관습으로 손님을 환영하는 인사라는 것을 알았다.

아, 이것이 바로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구나! 우리 일행 9명이 모두 크리스천이며, 모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과연 현명할까? 우리 일행은 누가 그렇게 하자고 선동하지 않았지만 마시는 흥내를 내면서 술잔을 입에 대었다가 떴다. 실제로 조금 마신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도 아마 이해하셨을 거다.

조금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의상을 입고

여러 가지 장기를 보여 주었다. 그들 고유의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풀잎으로 피리소리를 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중에는 아이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그들의 재롱이(?) 귀엽기도 했지만 학교 가서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학교도 못가고, 자기들이 왜 외국인을 상대로 그 놀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왔다. 그 아이들에게 자꾸 눈이 갔다. 아,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그들의 공연(?)이 끝나갈 무렵에 먼저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고 나면 우리가 우리들의 노래로 화답하는 순서가 있었다.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등등 우리말로 신나게 찬양으로 화답해 주었다. 그들의 고유언어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고, 우리의 찬양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는 듯하여 아쉽게 막(?)을 내렸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를 안내해준 개그맨 같이 생긴 아저씨가 들려준 말에 의하면 우리가 불렀던 노래(찬양)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또 듣기 위해 그들이 녹음을 해 놓았다고 한다. 하나님! 그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

우리가 그 마을에서 나올 때 그들은 빨강계물을 들인 계란을 끈으로 묶어서 우리의 목에

걸어주었다(부활절도 아닌데). 그 계란을 목에 걸면 일년내내 건강하고 재앙이 미치지 않는단다. 이런 풍습은 아마도 그들의 다신교 신앙에서 나온 미신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 그 마을의 유지인듯한 사람이 우리일행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조그마한 회관으로 안내해 주었는데(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들소뿔이 달린 들소 머리가 벽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이 들소뿔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고 설명해 주었다.

인구가 500만 정도 된다는 이 묘족 중에는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만날 수가 없어 못내 서운했다.

묘족방문을 마치고 숙소가 있는 귀양시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소수민족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국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이 명절날 소수민족들도 모여서 축제를 연다고 하는데 이날이 바로 그 날이란다. 많은 소수민족을 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우리들은 놓칠 수 없었다.

넓은 벌판에는 소수민족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우리 눈으로는 그들이 어느 족속인지조차도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 때 모인 사람들도 이렇게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곳에선 한쪽에서 음식물과 과일 등을 파는 장사들이 장날처럼 많았다는 점이다. 우리 일행들도 그곳에서 우리 나라 국수와 비슷한 것을 2원(우리 나라 돈 300원 정도)씩 주고 사 먹었다. 약간 불결해 보이긴 했지만 눈을 뜬 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질끈 감고 그것을 맛있게 냅뎀.

그런데 이 소수민족들도 중국화되어서 인지 오후 2시에 시작한다는 축제가 3시가 되어도 시작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역시 만만디 만만디(慢慢地慢慢地)다. 기다리다 지친 우리 일행은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헤뜨는 데부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등등.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상한 말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일행을 그들

은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아직 그곳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외국사람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 끝내 그들의 축제는 보지 못한 채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축제를 보여준 셈이다. 이젠 또 무슨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 저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공허한 눈빛, 표정 없는 얼굴들에게 누가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까?

2월 6일 우리들은 시내버스를 1시간쯤 타고서 귀주대학을 찾아갔다. 그 대학의 한 교수의 안내로 천연적인 山水로 유명하다는 “花溪公園”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마침 그 공원앞에서 布依族을 볼 수 있었다. 7-8명 정도 되는 布依族들이 길가에 서서 자기네들끼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된다는 이들은 주로 산림에서 생활을 하며 도교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2월 7일 교회를 찾아보기 위해 호텔에 짐을 맡겨두고 貴陽市를 돌아다니다 보니 回族들이 경영한다는 “清真館”이라는 음식점이 눈에 띄었다.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흰 색의 챙 없는 모자를 쓴 주방장 같은 아저씨를 창 너머로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가끔 양고기를 구워서 팔고 있는 흰 모자를 쓴 回族을 보았다. 인구가 720만 정도 된다는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기에 문화와 풍습도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겨우 2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단다.



이수족 축제
(젊은 남자가 함께 노래하고 있다)



벽에 걸려있는 이 들소뿔을 苗族들은 神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

석탄공장이 많아서인지 거리마다 가스냄새로 가득차 있는 貴陽市에서 여행을 마치고 야간열차를 11시간 타고 重慶에 도착. 안개로 덮여 있는 자전거 없는 도시 풍경에서 우리는 양자강에 둘러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면서 배를 타보았다. 배 속에서 많은 중국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월 8일 무려 200원(중국인들 한 달 월급)의 택시비를 들이고도 아슬아슬하게 중경비행장에 도착하여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2시간 30분만에 雲南省의 昆明市에 도착했다.

소수민족의 박물관이라고 불리우는 이 운남성에는 2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고 한다. 운남성의 소수민족은 1천2백여만 명으로 운남성 전체인구의 1/3이며, 중국소수민족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2월 9일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민속촌을 방문해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마침 민속촌을 가는 그 길목에서 僛僛族의 축제가 있었다. 젊은 남녀가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그들의 노래도 부르고, 만도린처럼 생긴 악기도 연주하고, 龍모양을 만들어서 여러 명의 아가씨들이 들고나와 음악에 맞추어 그것을 돌리면서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곳 한쪽 옆에는 높은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사다리는 층층이 모두 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僛僛族의 한 젊은 청년이 큰 칼을 들고 나와서 칼을 높이 쳐 들고 "천지의 주재이신 칼신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서는 옆에서 있는 다른 청년에게 술을 한잔 따라 주

었다. 그는 그 술을 마시고 그 칼로 만들어진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의 발을 들어 보여주었다. 마치 우리 나라의 선무당처럼.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중국공산화 이전에 僛僛부족의 선교사였던 이소벨 선교사가 생각이 났다. 그녀도 하늘나라에서 이수족의 이 행사를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들 중에 이소벨 쿤에게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후예는 없는 것일까?

僛僛族의 축제를 다 보고 우리는 소수민족민속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白族村과 傣族村의 민속촌이 있었다.

그 때 우리를 안내해준 청년이 바로 이 白族 사람이었기 때문에 白族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白族村에는 우리 나라의 옛날 풍습처럼 시집갈 때 타고 가는 꽃가마가 있었다. 인구가 113만 정도 되는 이 白族들은 거의 漢化되어 자기들의 고유언어를 잃어버리고 거의 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白族들은 대부분 운남성의 大理 일대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종교는 다신교이나 일부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했다.

傣族村에는 그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굉장히 큰 백탑(흰 색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석가모니의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인구가 8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운남성의 德宏, 聯馬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가 8세가 되면 사찰로 보내 그곳에서 글을 배우면서 생활하게 한다고 한다. 그들은 소승불교를 신앙하고 있기에 불교적 생활에 묻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다.

2월 10일 우리는 2시간 정도 봉고차를 타고 "石林(돌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 "石林"에 도착하니 哈尼族 아가씨들이 화려한 그들 고유의 옷을 입고 뜨게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안내를 원할 경우 안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안내 없이 石林을 등산하였는데 중간지점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올라가 보니

哈尼族 아가씨 3명이 그들 고유의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래가 끝나면 관광객들이 화답해서 노래를 해달라고 제의했다. 그런데 다른 관광객들은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어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져 있을 때 마침 우리 일행이 도착한 것이다. 우리들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기꺼이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다양한 레파토리로 실력을 발휘(?)했더니 결국 그들은 더이상 부를 노래가 없어 기권을 하였다. 평소에 찬양을 많이 부르는 기독교인을 그들이 어찌 당할손가! 또한 한 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石林에서 내려와서 차에 오르려고 하나 哈尼族 아주머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려와서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화려한 수예품을 사라고 권했다. 몇 번 망설이다가 거절하고 그냥 차에 올랐다.

다시 昆明市로 돌아와 우리는 소수민족의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해 놓은 운남민족학원을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학교 안에서 몇 명의 소수민족 학생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때 그들은 우리 나라 냅비같이 생긴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이런 소수민족학원은 중국 전역에 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일꾼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을 우대하

여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잡비 심지어 운동화 사는 돈까지 보조한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은 민족평등, 민족단결, 상호협력, 공동발전을 그 기조로 한다. 민족평등이란 언어를 자기민족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옷을 입는 것도 민족 마음대로, 명절도 민족대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漢化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14박 15일의 중국선교여행을 통해 많은 소수민족을 만나보고 홍콩을 경유해서 다시 돌아왔다. 여행에 동행했던 일행들은 더 건강해 있었다(음식물이 대부분 기름진 것이었기 때문).

소수민족에 대해 책을 통해 막연하게 이론으로만 알았을 때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던 그들이 직접 보고 나니 점점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다신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미쳤다.

이 선교여행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그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한다.

주여, 저들에게 복음 전할 자를 보내주소서! ◇



소수민족 축제에 참가한 화려한 옷차림의 중국 소수민족들.



中國少數民族人口、宗教信仰及分佈地區一覽表

族名	人口	宗教信仰	分佈地區
滿族	4,299,159	薩滿教	遼寧、黑龍江、吉林、河北、北京、內蒙古、天津、甘肅等地
朝鮮族	1,763,870	部份信仰佛教、天主教、基督教	吉林、黑龍江、遼寧、內蒙古
赫哲族	1,476	薩滿教	黑龍江
蒙古族	3,411,657	藏傳佛教、薩滿教	內蒙古、新疆、遼寧、吉林、黑龍江、青海、河北、河南、甘肅、雲南
達斡爾族	94,014	薩滿教、佛教	內蒙古、黑龍江、新疆
鄂溫克族	19,343	薩滿教、佛教	內蒙古、黑龍江
鄂倫春族	4,132	祖先崇拜、薩滿教	內蒙古、黑龍江
回族	7,219,352	伊斯蘭教	寧夏、甘肅、河南、新疆、青海、雲南、河北、山東、安徽、遼寧、北京、內蒙古、黑龍江、天津、吉林、陝西等地
東鄉族	279,397	伊斯蘭教	甘肅、新疆
土族	159,426	多神、藏傳佛教	青海、甘肅
撒拉族	69,102	伊斯蘭教	青海、甘肅、新疆
保安族	9,027	伊斯蘭教	甘肅
裕固族	10,569	佛教	甘肅
維吾爾族	5,957,112	伊斯蘭教	新疆、湖南
哈薩克族	907,582	伊斯蘭教	新疆、甘肅
柯爾克孜族	113,999	伊斯蘭教	新疆、黑龍江
錫伯族	83,629	祖先崇拜、薩滿教、部份信仰佛教	新疆、遼寧、吉林、黑龍江
塔吉克族	26,629	伊斯蘭教	新疆
烏孜別克族	12,453	伊斯蘭教	新疆
俄羅斯族	2,935	東正教	新疆
塔塔爾族	4,127	伊斯蘭教	新疆
藏族	3,870,068	藏傳佛教	西藏、四川、青海、甘肅、雲南
門巴族	6,248	藏傳佛教	西藏
珞巴族	2,065	自然崇拜	西藏
羌族	102,768	多神、部份信仰佛教	四川
彝族	5,453,448	多神、部份信仰佛教、基督教、天主教	四川、雲南、貴州、廣西
白族	1,131,124	多神、佛教、部份信仰基督教、天主教	雲南、湖南
哈尼族	1,058,836	多神、祖先崇拜	雲南
傣族	839,797	小乘佛教	雲南
傈僳族	480,960	多神、部份信仰基督教、天主教	雲南、四川
佤族	298,591	多神、部份信仰佛教、基督教	雲南
拉祜族	304,174	多神、部份信仰佛教、基督教、天主教	雲南
納西族	245,154	東巴教、部份信仰道教、基督教	雲南、四川
景頗族	93,008	多神、部份信仰基督教	雲南
布朗族	58,476	自然崇拜、部份信仰小乘佛教、基督教	雲南
阿昌族	20,441	自然崇拜、小乘佛教	雲南
普米族	24,237	多神、部份信仰佛教、道教	雲南
怒族	23,116	多神、部份信仰基督教、天主教、佛教	雲南
德昂族	12,295	小乘佛教	雲南
獨龍族	4,682	多神、部份信仰基督教、天主教	雲南
基諾族	11,974	多神、祖先崇拜	雲南

族名	人口	宗教信仰	分佈地區
苗族	5,030,897	多神、部份信仰基督教、天主教	貴州、雲南、湖南、廣西、四川、廣東、湖北
布依族	2,120,469	多神、道教	貴州
侗族	1,425,110	多神、祖先崇拜	貴州、湖南、廣西
水族	286,487	多神	貴州、廣西
仡佬族	53,802	多神、祖先崇拜	貴州、廣西
壯族	13,378,162	多神、部份信仰佛教、道教	廣西、雲南、海南、湖南、貴州
瑤族	1,402,676	祖先崇拜、部份信仰道教	廣西、湖南、雲南、海南、貴州、廣東
仫佬族	90,426	多神、部份信仰道教、佛教	廣西
毛南族	38,135	多神、道教	廣西
京族	11,995	多神	廣西
土家族	2,832,743	多神、祖先崇拜	湖南、湖北、四川
黎族	817,562	多神、部份信仰基督教	海南、廣東
畲族	368,832	祖先崇拜	福建、浙江、江西、海南、廣東
高山族	1,549	多神、祖先崇拜	台灣、福建

注: 上述人口數字係1982年全國人口普查數字。高山族不包括台灣高山族人口數。

『中國少數民族風情』중에서

중국인을 아십니까?

만만디(慢慢的)

중국사람을 두고 흔히들 「만만디(慢慢的)」라고 부른다. 「느릿느릿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사람」하면 먼저 「느리다」는 느낌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중국인들이 느린 것은 사실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여유를 시간과 공간 두 분야로 나눈다면 만만디는 시간적인 여유를 뜻한다.

중국은 넓다.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약 44배나 되는 땅이다. 넓은 땅에 살다 보니 자연히 국민성도 영향을 받게 되어 서두르지 않는다. 또 서둘러서 될 일도 없다.

옛날에는 인간관계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고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동네안에서는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으며 기껏해야 이웃동네 밖을 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행동방경이었다. 그들에게 백리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다녀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四川省에 사는 사람은 평생을 걸어도 바다를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은 모두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 출신들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만주 벌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東北평원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산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천천히」라는 말은 거의 일상용어가 되어 있다. 여간해서 서두른다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허어질 때 나누는 인사가 「만조우」(慢走: 천천히 가세요)다. 어쩌다 부탁 받은 일을 약속날까지 못했으면 상대방은 대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이 판시! 만만라이」(沒關係, 慢慢來: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물론 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두르기도 한다. 그때 쓰는 말이 「마상」(馬上: 즉시)이다. 우리 말로 「즉시」이기도 하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옛날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馬)이었다. 「마상」은 지금 출발하기 위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빨리 달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상」도 우리가 보기에는 「한참 뒤」쯤이 된다.

(『中國百科-新東亞』중에서)

왕성 교회

를 찾아서



신림동 4거리에서 조금 꺾여 들어간 길가에 다른 상가 건물에 비해 가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큰 건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굉장한 건물만큼이나 다이내믹한 목사님과 교인들의 저력, 이것이 왕성교회의 길자연 목사를 방문하고 난 후 느낀 소감이었다. 그러나 대면한 길 목사의 첫 인상은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이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왕성교회는 1961년 창립된 교회로, 20여 교역자와 선교국, 출판국, 사무국 등과 장년 재적 9,000명 정도에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14,000에서 15,000명에 이르는 상당히 큰 교회였다. 1973년, 4-50명 정도의 어려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강도사를 거쳐 위임목사에까지 이른 길 목사. 오늘날 이런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이면에는 무

언가 남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넉넉히 질문해 보았다. 이에 대해서 길 목사는 명쾌히 2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것.

영혼 구원의 필요성은 많은데 인근에 감당할 만한 큰 교회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성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한국의 부흥한 전통적 교회들처럼 기도를 조직화하여 실천한 점이 그 답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왕성교회는 철야기도, 금요일 전교인 철야기도, 여름에는 산상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해 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시작된 이면에는 놀랄 만한 사실이 숨어 있었다. 애초에 이 교회 뒤에는 질이 하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길 목사는 하루에 12시간씩 근 7년이나 기도하며 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해 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길 목사의 회고에 의하면 그 당시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오늘날 이와 같은 기도의 저력이 있는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길 목사는 자기는 재주없는 '어중간한 목사'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여건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같다고 겸손히 토를 달았

다. 한편 길 목사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북한선교회와 대륙선교회 이사장의 직함이 암시하듯 왕성교회는 세계선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은 금년 선교비가 5억원이라는 사실을 보아서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왕성교회의 청년부도 선교인력 양성이란 측면에서 왕성교회의 훌륭한 자산이다. 길 목사는 이 젊은이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길러주고 이들을 선교인력화하는 데 자신의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젊은이들을 국내에서 3개월 정도 공동생활 훈련을 통해 준비시킨 후 16명 정도를 구소련, 헝가리, 폴란드, 독일 등 유럽 지역에 파송, 실제 사역훈련을 받게 하고 큰 성과를 거두게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더욱 확산할 뜻을 비쳤다.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체제로서 공개적인 선교가 불가능해 관망중에 있다고 했다.

자신은 원래 이북출신으로서 북한선교회에 간여해 오던 터에, 대륙선교회의 간곡한 청에 못이겨 이사장직을 맡게 됐노라고 털어놓는 길 목사. 무엇보다도 기도와 재정적 뒷받침을 잘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미안해 했다. 그러나 대교회의 막중한 목회 책임도 무거운데 거절하지 않고 대륙선교를 위해 굶은 자리를 맡은 것을 보면 그에게 숨길 수 없는 선교의 열정이 있음을 감지해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교포선교 제자양육의 요람인 <사랑의 집> 사역에도 왕성교회와 같은 이런 대교회의 지원이 대륙선교회를 통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반드시 문이 열리라는 믿음을 피력한 길 목사는, 자신은 중국선교를 다윗이 물맷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심정으로 하노라고 고백한다. 저 광대한 중국의 어디다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도 흔적도 없다는 회의론도 일고 있지만 14억의 중국인이 아닌 한 사람의 중국인에게 선교하는 자세로 하나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다 보면 저 한 사람의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에게 그는 또 다른이에게 전파하게 되고 드디어 언젠가는 14억이 복음화된다는 믿음 위에서 이 일을 감당하려 한다고 했다.

왕성교회는 문자 그대로 선교의 왕성한 열정을 가진 교회로서 길 목사는 이런 선교 열정에 계속적인 동기부여와 전교인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매년 선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1년에 1차례씩 전교인이 참여하는 선교헌금의 시간을 가지며, 집회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선교를 자기의 할 일로 삼는 목회자 그것을 또한 순종함으로 받아 들여 함께 뛰는 교회 - 이것이 왕성교회의 오늘일진대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글: 한영혜)

중국은 반드시 문이 열리라는 믿음을 피력한 길 목사는, 자신은 중국선교를 다윗이 물맷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심정으로 이노리고 고백한다.



기독교 21세기 운동과 중국선교

노봉린 박사

노봉린 박사는 일찍이 미국에서 13년간 일반대학과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받고, 1970년부터 1974년까지, 당시 싱가포르에서 새로이 시작된 신학교에 교수로 초빙되어 4년 간 교수로 봉직하며 선교운동에 투신. 1975년 중국인 부인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가 대중의 기독교 확원의 동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서 비교 종교학을 5년 간 강의하면서 12년 동안 대만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했다.

현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기독교 21세기운동 중무로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운동, 특히 중국선교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편집자 주)

중국 복음화의 의미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국인을 부인으로 맞고 또 오랫동안 중국인을 상대로 사역했기에 그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관심은 특별한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중국인이라 함은 꼭 중국대륙에 그치지 않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아니 전세계에 걸친 중국인들을 의미한다. 아무튼 중국인은 세계 구석구석에 그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퍼져 있다. UN의 92년도 최신 통계에 의하면 중국대륙의 인구만도 13억 7천 8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은데다가 중국정부가 출산 자녀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호적 외의 무적아(黑孩子) 수도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이어서 중국 당국도 중국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중국인구가 14억도 15억도 될수 있는 것이다. 이 숫자는 전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막대한 수치로서 나는 중국을

복음화시키면 쏠세계는 복음화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내가 대만에서 일할 때 중국인 성도들이 종종 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성경 66권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수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이름은 왜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말씀이 중국인에게 해당됩니까? 또 중국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의 성씨는 8천7백만이 李, 8천만이 王, 7천8백만이 張, 6천만이 劉, 5천만이 陳氏로 그 대표적인 성씨가 차지하는 수만도 3억5천5백만 명에 이룬다고 하니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 나는 그들에게 물론是的!(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면서, 그 근거로 나는 그들에게 뻔전 2:9-10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1세기 이방인 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국은 이제
그만큼 일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대강국인
중국을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독교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오늘날도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며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자부심 깊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당신들에게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물론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 한국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우리에게도 뻔전 2:9-10의 말씀이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는 말씀이 영어로는 “Chosen race” 가 되어 우리 한국의 옛 이름이 영어 표기로 “Chosen” 이고 보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도 멋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한다. 동시에 20세기 말에 있어서는 한국선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세아 신학협의회에서 1970-90까지 20년 동안 일했던 관계로 매년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느낀점은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라는 것이다. 여행을 해봐도 그 어느 곳에도 것처럼 많은 십자가의 숲을 볼 수 없다. 또한 세계 50여 개의 대형교회 중 25개가 한국교회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 세계 제일의 장로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국은 이제 그 만큼 일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대강국인 중국을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저 14억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다음 5가지 중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

1. 기독교 21세기 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
“10-40 window”라는 용어가 선교학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 21세기 운동’에서 비롯한 말로서 지구상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에 있는 국가들 즉 10-40 window 안에 67개 국가, 30억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인구 55억의 60%에 해당된다. 또한 그 대다수가 비기독교인으로서 4개의 거대한 비기독교 인구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가 중국, 북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 공산권 둘째가, 인도, 네팔 등 7억이 넘는 힌두권 셋째가 이슬람권으로서,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대다수의 무슬림은 아세아에 퍼져 있는데 인도네시아 1억 8천만 중 85-90%, 파키스탄 1억 1천만 중 98-99%, 방글라데시 1억 1천만 중 90%, 말레이시아 1천 5백만 중 51%, 싱가포르 3백만 중 15%가 회교를 신봉한다. 넷째로 3억 정도의 불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 지역들에 ‘기독교 21세기 운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독교 21세기 운동’이란 1988년 싱가포르에서 전세계의 교회 지도자 500명이 모여 시작한 21세기 복음화 운동이다. 이는 로잔운동의 일환으로서, 토마스 왕 박사가 주동이 되었고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에 “기독교 21세기 운동” 본부를 두게 되었다. 이 단체의 창설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는 중국인 토마스 왕 목사 이외에 Bush 박사와 한국의 이종윤 목사가 있다. 이 운동은 제 3세계의 선교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 기독교 21세기 운동은 세계적 선교운동으로서 교회 갱신을 위한 모델을 찾아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였다. 즉 21세기 선교를 위한 초점이 한국에 맞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1995년 5월 17일부터 2주일 간 전세계의 4천5백 명의 교회 지도자가 서울로 모이게 되어 있고, 그 한 해 전인 94년 6월에는 6.25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 21세기 운동”이 여의도 광장에서 2백만 국내 성도들을 모아 놓은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청해 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요 거기에는 그럴

OMF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전신인
중국내지 선교회(CIM)를 세우고 그때까지 연안
머물던 선교사역을 과감히 중국대륙의 중부 오지까지
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다가 1949년 중공수립과 함께 선교
사들의 전원 철수로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9년 중국의 개방개혁의 시책으로 조금씩
문이 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만한 이유가 있다. 국내 200여 개의 기도원, 철야기도, 새벽기도, 1.1.1 기도운동 등 한국교회만큼 기도에 열성을 보이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선교사만 많이 보낸다 해서 중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보낼 수 있을 만큼 자주 보내야 한다. 92년 7월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 때까지 90개 선교단체가 105개 국가에 2576명을 파송했으며 92년 한 해만 해도 한국교회가 400명을 파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3000명의 한국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 2000년까지는 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낼 목표를 갖고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 만 명을 중국에 다 보낸다고 해도 14억의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한강물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격으로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대륙의 교회를 포함하여 대만의 2900여 교회 40만 명의 성도들 홍콩의 12%에 달하는 성도들, 싱가포르, 말레시아, 미국, 유럽 등지의 중국인 화교 교회의 신앙개신운동을 통해 이들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복음화시키자는 것이 기독교 21세기 운동의 방향이다. 한국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이제 중국이 한국 교회의 제일 주요한 선교대상지로 떠올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필리핀, 구소련, 아프리카, 태국 등에도 선교를 힘써야 되겠으나 한국교회가 열정적으로 가장 힘을 쏟아야 될 곳이 바로 중국이라고 굳게 믿는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땀 빼야 땀 수도 없는 유대관계가 있었고 생김새도 비슷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데 훨씬 용이하고 접근하기도 쉽다. 한국교회는 중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독교 21세기 운동의 선교중심지를 중국으로 잡아야 하리라 본다. 그래서 이번에 갖게 될 94년 여의도 모임에 중국의 교역자 3-4백 명을 초청하려고 계획중이다. 이를 위해 삼자교회

의 지도자와 접촉을 갖고 금년내 삼자교회 지도자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교회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정부 당국의 허락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2.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중국선교는 중국 서안에서 635년, 시리아 선교사 알로벤이 선교했다는 기록이 적힌 景教碑가 발견됨으로써 대략 이를 전후해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징기스칸의 몽고제국이 1135-6년 그 세력을 인도 북부나 유럽까지 뻗치게 되고, 이에 따라 12-3세기에 로마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북경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유럽과 중국은 너무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다음으로 1552년에 프랜시스 자비에르가 중국대륙 남쪽에 가서 천주교의 복음을 전했고, 1581년부터 1610년까지 마테오 리치가 예수회 신부로서 북경에서 선교사역을 했다. 네번째로는 개신교로서는 최초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 중국의 홍콩 근처 마카오에서 1834년까지 머물며 성경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이어 OMF의 창설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전신인 중국내지 선교회(CIM)를 세우고 그때까지 연안에 머물던 선교사역을 과감히 중국대륙의 중부 오지까지 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다가 1949년 중공수립과 함께 선교사들의 전원 철수로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9년 중국의 개방개혁의 시책으로 조금씩 문이 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중국은 정식 선교사를 용납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여러 모양으로 파송하여 중국복음화를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자 중국 정부는 그 억제책으로 각종 종교 탄압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그 주요 대상이 기독교임에는 말할 나위가

소수민족들의 대다수가 중국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그 인구는 대략 1억에 이르고 있다. 이것 또한 대단한 숫자로 한국교회가 이 소수민족의 복음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선교시를 따승히도록 힘써야 한다.

없다.

중국현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문공부는 교계에 선교사역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중국소수민족

나는 홍콩의 전세계 화교교회 연합단체인 C.C.C.O.W.E(Chinese Coordination Center of World Evangelism)에서 펴낸 소수민족에 관한 책자와 비디오를 통해 중국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소수민족들의 대다수가 중국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그 인구는 대략 1억에 이르고 있다. 이것 또한 대단한 숫자로 한국교회가 이 소수민족의 복음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교 자료들을 구해서 보기를 노력하며 중국실정을 배우고 개교회마다 이런 소수민족 한들을 대상으로 선정, 언어를 익히고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4. 중국선교단체, 기관, 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20여 개에 이르는 중국선교 연구원이 있는데, 그 대다수가 홍콩에 있다. 그 몇을 소개하면,

* OMF의 중국선교 연구소

책임자는 토니 램버트 박사이다.

* 중국교회 연구소 (CCRC)

조나단 차오 박사가 책임자로 있으며 중국선교교회 연구소로서는 가장 유명한 기관이다.

* 복음중추협회(CCL)

출판사로서 윌리엄 테드시애가 책임자로 있다.

* Asian Outreach

오순절계통으로 데이비드 윙과 볼 카프만이 함께 일하고 있다.

* 극동방송(FEBC)

홍콩 극동방송으로서 케네트로 목사가 주동이 되어 중국선교를 연구한다.

* Transworld Radio

F. E. B. C와 유사한 라디오 선교단체로서 윌리엄 올 목사가 책임자이다. 이 외에는 루터교나 중국신학연구원 등 신학교 여러 곳에 중국선교 연구소가 있다. 앞서의 여러 곳에서 각종 잡지가 출판되는데 이를 통해 중국대륙교회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홍콩을 중심으로 각종 중국선교정보가 수집되고 이런 선교정보가 필요한 전세계의 교회와 단체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륙에 드나드는데, 특히 설날 등 명절에는 인구 600만의 1/6 정도인 100만이 친척방문을 위해 중국전역으로 흩어져 들어가게 된다. 많은 기독교인도 이들 속에 있으므로 중국의 사정이 소상히 수집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곳에 많은 연구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곳에서 중국선교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한 것이다.

5.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중국선교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

나는 앞으로 중국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는다. 나는 중국인들의 포부와 그 열정을 잘 안다. 어디를 가나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필리핀, 대륙,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어디든 상점주는 거의 화교들인 것이다. 다만 우리 나라만이 화교들에 대한 억제책으로 화교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청년층은 이민 등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의 중국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 중에서도 14억의 중국을 선교
 하고자 하는 불길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역을 생각할 때 그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에게서 크나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열심히 사는 중국인들인데 중국인 중 가장 못 사는 곳이 중국대륙이다. 대만하고 비교해도 한 20년은 뒤졌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참 중국의 모습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공산체제가 오늘의 그들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중국은 반드시 변화한다. 나는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믿는다. 중국이 세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더욱 개방되고 현대화되고 아울러 자유가 올 것이다. 현재는 공개적으로 선교가 불가능하지만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중국대륙에 변화가 일고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한중 수교 상태인 까닭에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가고 수백, 수천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아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국내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이제 개별적 활동을 하기 보다는 타 선교단체들 즉 중국 복음선교협의회, 핏빛희선교센터 등 주요한 단체와 연합하여 동반자의 입장에서 협력선교를 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14억 중국의 복음화이다.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교한다면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국내의 선교단체뿐 아니라 한국내 화교교회, 아시아, 특히 대만, 홍콩의 중국교회와 연결되어 선교해야 된다. 이러한 때 우리의 입장만 고려하고 독단적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 관심을 가지고 협력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홍콩 CCRC의 조나단 차오박사는 한국교회와 협력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선교단체는 아니지만 사회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OMF도 들어가 있는, Friends of China, 같은 단체들은 한국교회에 직업선교사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분발해야

지난 92년 7월 CCC의 청년대학생을 위한 수련회가 대학생 만 명이 모인 가운데 대천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중국선교에 헌신할 것을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평신도 가운데서도 중국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때에 4만여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중국선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는 30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이에 관여해 파송한 교회가 4만교회의 10%에 해당할 뿐이요 나머지 90%가 무관심한 상태라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 중에서도 14억의 중국을 선교하고자 하는 불길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교운동을 보면서 한편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끊임없는 선교전략의 연구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

- 이 글은 중국어문선교회의 지난 2월 정기 중국선교세미나의 강연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

최근의 중국 종교문제에 대한 처리문제

- 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정광훈 氏 발언의 비평분석 -

一. 머리말

중국에서는 주로 정책에 의거하여 종교문제를 처리한다. 최근의 종교정책은 줄곧 행정관리, 감독, 제한을 강화함과 아울러 “종합처리”의 “좌로의 강경”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종교계의 상황에 [嚴], [緊], [退], [縮]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많은 종교인사들이 최근 중국종교계의 형편과 방향 및 종교문제 처리에 대하여 염려하고 초조해하면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삼자회의 주석 겸 기독교협회 회장인 정광훈은 기독교와 종교계에서 그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 뿐 아니라 현재 제 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과 전국정협 부주석을 맡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있다. 근년에 들어서 정광훈과 불교협회의 회장 겸 정협 부주석인 조박초(趙樸初)가 인민대회 상임위 및 정협회의에서 비교적 대담하게 현재의 종교정책과 종교문제에 대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며 심지어 비판도 하여 종교계 인사들의 심성과 불만을 나타내었다. 작년 7월의 전국인민대회 상임회에서 정광훈은 “종교문제의 정확한 처리”라는 제목으로 발언, 중국에서 만연되는 “단속풍조”를 즉각 중지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으며 각 기층, 당, 정 간부들의 종교문제 처리에 대한 방법에 항의했다. 발언이 비록 짧았지만 당과 정부의 부당하고 정확치 못한 종교문제 처리에 대한 종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조금도 보류하지 않고 나타내었다. 그 외에도 정광훈은 “급박한 어조”의 발언을 통해 현재 종교계에 가득한 위기감을 전했다. 본문은 정광훈이 인민대회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을 비평 분석하여 최근 중국종교문제 처리상 드러난 문제를 토론하며 당, 정 간부들의 종교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사상태도, 방식 및 문제를 지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의 현재의 “좌로의 강경” 종교정책과 종교업무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二. 최근 종교문제 처리상의 드러난 문제 - 정광훈 발언의 중점 내용

근년에 들어서, 정광훈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에서 모두 세 차례의 발언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모두 정부의 종교에 대한 관리 및 정부의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 작년 7월의 발언에서 정광훈은 최근의 당과 정부가 종교문제를 처리하면서 생겨난 두드러지고 심각한 문제를 특별히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첫번째 문제는 국내에서 만연된 “단속풍조”이며 그 다음은 각지의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당의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관한 것이다.

1. 중국에 만연된 “단속풍조”

중국에서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종교활동장소(가정교회를 포함)가 폐쇄되거나 단속당하는 일을 줄곧 쉽게 볼 수 있으며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광훈이 여기서 제기한 “현재 우리 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단속풍조” 현상도 먼저는 정부의 비준을 얻지 못해 삼자교회에 속해 관리되는 전국 2만여 집회장소가 정부에 의해 폐쇄, 단속을 당한 일을 말하고 있다. 운남성 회택현의 일곱 기독교 신도들이 장기간 임의 체포, 감금, 구타, 벌금 등의 일을 당한 것과 최근 2년 간 회택기독교회가 불법으로 심문당한 것이 74차례나 된다. 이 때문에 집회장소의 전도, 전도인(교역자)들이 양회에 항의를 제기했을 때 정광훈은 이것 때문에 상황이 급한 나머지 부득불 군중의 뜻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정광훈은 또한 최근의 “좌로의 강경” 종교정책이 아직 비준받지 못한 종교활동장소라는 한 가지 일로부터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으로서 타격받은 면이 실로 아주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정광훈이 반응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兩會는 신자들과 모든 교회 속에서 계속 입지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에서도 날로 심해가는 월권행위로 인해 “제한적인 권리지위”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정광훈은 오늘날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절대다수의 집회소가 소위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는 죄명 아래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많은 곳이 단속되었고, 타격폭도 넓어 중국 내에 단속풍조가 만연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정광훈은 현재의 단속풍조는 구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단정하는, 일률적 단속 방법이며, 조금도 정책의 한계가 없고, 단지 어떤 하급간부의 개인의사나 그들의 종교에 대한 악감정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단속을 중앙의 정신(북경의 중앙정부)과 지시로 오인하여 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광훈은 어떤 하급간부가 단속시에 행한 지나친 폭력행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 단속 풍조가 행정명령을 이용하여 군중의 신앙사상을 처리하는 행동으로서 이는 통전(통일전선) 정신을 무시하고 군중의 태도를 존중하지 않는 안목이 얕은 견해라고 비판했다.

2. 각지역 당, 정 간부들의 심각한 당의 정책 위반

정광훈은 요즈음 일고 있는 단속풍조는 당의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훈의 발언 가운데는 아래의 몇 가지 당의 종교정책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구별을 두는 종교정책, 즉 한 종교활동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인지 아니면 종교를 빌미로 한 불법, 위법활동이나 해외의 침투활동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그 외에, 모든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철저히 보호하며 동시에 종교를 빌미로 한 일체의 위법범죄, 반혁명과 봉건 미신활동을 철저히 배격한다.

2) 군중의 사상문제를 처리하는 종교정책에 행정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수단으로 단속할 때에는 서너 개로 분화되어 지하로 들어간다(비밀조직이 된다). 이제는 종교를 소멸시킨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종교는 지하보다는 지상에 있는 것이 낫다(신도수의 증감은 그 객관적인 규율이 있으며 억압적인 간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일체의 단결 가능한 역량의 단결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해 공헌한다. 이 때문에 마땅히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의 안정성, 연속성을 중시해야 하고 종교계 인사의 단결을 힘써야 한다. 정광훈은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거친 방법 즉 행정명령으로 군중의 사상, 신앙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통일전선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종교활동의 집회장소를 단속하며 억압적인 간부가 신도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 모든 것이 당의정책을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 여긴다. 정광훈의 이번 발언의 중점은 단속풍조가 만연되고 있음에 대한 비판이다. 사실, 이는 최근 중국의 종교문제 처리상 두드러진 문제이며 정확한 처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三. 종교문제 처리의 사상태도와 방식

“단속 풍조”의 만연과 각지역 당, 정간부들의 당의 종교정책위반은 오늘날 중국종교문제 중에 비교적 두드러진 문제이다. 사실 그 배후에는 종교문제처리에 대한 사상태도가 있다. 이러한 사상태도는 곧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광훈의 발언에서 우리는 각지역 당, 정간부들의 종교문제 처리시에 가지는 사상태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3가지이다.

1. 구별을 두지 않는 “일률적”인 태도이다. 정광훈은 단속풍조가 성행된 것은 각지역 간부의 일률적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은 당의 종교신앙정책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인데 걸핏하면 사회주의 건설과 종교, 신도,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대립시켜 질시하고 압제하며 심지어 타격하는 태도이다.

이는 일종의 단편적인 사상태도이며 편협된 사상표현이다.

2. 종교를 믿는 군중을 “전제정치의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진압”의 사상태도이며, 이렇게 하면 신도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종교를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걸핏하면 행정명령으로 종교문제를 처리하게 되어 종교활동이 정광훈이 말한 바대로 지하로 숨어들게 되는 것이다.

종교는 현단계의 중국사회주의 시기에서 그 “장기적인 성격”을 띠며 각지역 당, 정간부들이 만약에 이러 태도를 견지한다면 실로 안목이

알고 짧은 견해에 속한다.

3. 개인의 뜻이나 종교에 대한 호감정이나 악감정으로 처리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일종의 人治이지 法治가 아니다. 아울러 종교문제처리에 있어서 정책의 한계가 조금도 없어서 “사람이 말하면 그만이다”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종교를 매우 “개인화” “감정화” 심지어는 “관계화” 하여 종교신앙 및 그 활동이 연속성과 안정성을 잃어버렸다. 이상의 3가지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각지역 당, 정 간부들이 종교에 관한 일과 문제를 대할 때 매우 자연스럽게 “左로 기우는” 사상표현과 “진압”의 사상태도 및 “人治”의 추세를 갖게 되어, 종교업무를 경직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 이상의 3가지 사상태도는 종교문제 처리시에 표현하는 방식도 3가지에 국한하게 했다.

(1) 구별을 두지 않는 “일률적” 태도는 행동표현 방식에서 단칼에 베어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불법, 단속을 결정해 버렸다.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이러한 방식은 다만 정치와 종교의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다.

(2) 종교를 믿는 군중들을 전제정치의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태도는 행동표현 방식에서 거칠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게 했다. 정광훈의 발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거친 폭력적인 방법은 간부, 공안, 민병을 출동시켜 전기근봉을 사용하여 종교적인 그림, 사진을 훼손하고 성경과 서적, 간행물을 몰수, 신도불감금, 벌금, 단수, 단전, 구호양식 배급중지, 건물철거 훼손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통전업무 및 군중공작을 무시한 방식으로 정치와 종교의 충돌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3) 개인의 뜻이나 종교에 대한 호감이나 악감으로 처리하는 태도는 행동표현 방식상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행동을 채택했다. 각지역 당, 정(종교부)간부들은 당해지역의 종교사무, 활동장소에 대해 “권리권” “비준권” “인사권” “건축수리권” “처벌권” 등 최상의 권력을 갖고 있어 간부들이 종교사무 및 문제처리상 개인의 뜻이나 종교에 대한 호감정이나 악감정에 의해 간섭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종교업무가 이 때문에 정도는 다르지만 반신불

수의 상황에 처해 있고, 심지어 오히려 관리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신도들의 감정을 격동시킬 뿐이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유지할 수 없다.

四. 맺는말--최근 종교문제 처리의 문제

최근 정광훈은 전인대 상임위에서의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만연된 단속풍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뿐 아니라 이러한 단속풍조를 일으킨 각지역 당, 정간부들의 당정책 위반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정광훈의 발언을 통해 중국의 최근 종교문제의 처리상의 비교적 두드러진 문제를 투시할수 있으며 아울러한 걸음 더 나아가 각지역 당, 정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종교문제 처리시의 사상태도 및 행동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해 우리는 최근에도 여전히 중국의 종교문제 처리상 갖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되고 해묵은 일들이다. 이 외에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개혁 개방 형세의 발전이나 실제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변화와 개선이 없이 오히려 중국각지에서 심각한 모순과 충돌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돌출시키는 감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종교업무 및 당, 정 모두 같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실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문제 처리상의 문제에 있어 몇 가지 점을 지적함으로써 말을 맺고자 한다.

1. 정광훈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각지역 당, 정간부들이 종교문제 처리에서 가지는 사상태도와 그 표현하는 행동방식은 최대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좌로 기운” 사상표현과 진압의 사상태도 및 “人治”의 사상추세는 직접적으로 행동방식상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친 폭력의 방법”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행동”을 취하게 했다. 그리하여 정치, 종교의 모순과 충돌을 심화시켜 신도의 불만을 증대케 했다.

각지역 당, 정간부들은 반드시 당의 종교정책을 자세히 알고 균중을 존중해야 하며 통전업무를 잘 수행하여 종교에 대한 “방지의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중시해야 한다.

2. 중국의 종교업무, 문제처리는 정책에 의

거해야 한다.

당과 정부의 문서, 법률, 법규는 정책적으로 규정에 의거 하는 것이다. 이 외에, 중국에서 실제로 당과 정부방면의 종교업무, 문제처리는 각지역 통전부, 종교사무국, 공안간부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는 2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당, 정 의 문서가 상당한 정도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있어 이 때문에 각지역 각급 당, 정간부들이 자신들이 깨닫고 아는 대로 해석하고 실시하여 가변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때문에 지방의 당, 정 간부들에게 人治는 있고 法治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둘째, 정광훈도 말한바 있듯이 어떤 간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은 중앙의 정신과 지시이다. 여기에 각지역 각급 당, 정간부들이 중앙의 정신과 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명백히하고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과거, 장기간 중국사회가 左의 사조에 영향 받아서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단편적이며 거칠고 독단적으로 되기가 쉬워 따라서 처리방법과 행동상 일률적이고 거칠며 독단적인 경향이 있게 되었다. 해석과 실시는 각지방 간부들이 곤혹을 느끼는 문제이다.

3. 중국에서의 종교처리 문제는 실제 법에 범주와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종교문제는 더욱 문제가 되며 심각하다. 사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이 몇 년 간 이미 초안과 심의를 거쳐 완성한 “중화인민공화국종교법” 및 “종교활동장소등기관리조례”는 현재 통과와 반포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반포되지 않은 이때에 이러한 법과 조례는 실로 과거의 문서, 지방성 법규의 융졸성과 불명확성을 피해야 한다. 실제상황과 실사구시의 법치정신에 따라서 또 법률규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신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통제, 제한,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야 중국의 종교문제는 정확한 처리를 하게 되고 정치와 종교의 충돌과 모순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종교와 국가 모두에게 유익이 있고 상황에도 도움이 된다. ◊

〈『中國與教會』94期 중에서〉

번역/전바나바(중국어문선교회 회원)

계속 추진해야 하는 三自愛國

〈天風〉지는 상해에서 발행되는 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에서 출판하는 기독교 월간지이다. 아래의 글은 〈天風〉 92년 8월호와 11월호에 실렸던 것을 번역해 게재한 것으로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국내에 소개된 중국 교회의 현황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한국교회에 객관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위해 실는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이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 이 글을 통해 삼자교회가 견지하는 입장과 그들이 진단하는 오늘날의 중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삼자 애국운동은 기독교 내에서 형성된 애국주의 운동으로 기독교적인 특색을 지닌 애국운동이다. 중국의 기독교회가, 한 사람이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주의라는 大家庭 속에서 많은 인민과 함께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공동운명을 호흡하느냐 않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정과 단결에 관여하게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장래 문제에도 관여하게 된다. 삼자원칙은 전기의 교회독립의 自主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교회에 의해 “治好, 養好, 傳好”(자치, 자양, 자전을 잘 해내는) 되는 중심내용으로 까지 진화되었다. 위의 두 단계의 임무는 비록 다르지만 인민과 조국이 함께 공동운명을 걷는 애국주의 방향(보통 삼자원칙이라 칭함)에는 시종 변함이 없다. 小組의 회원들은 삼자 애국문제를 토론 할 때엔 반드시 이런 기본개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小組에서 발언한 내용을 3개의 문제로 귀납해 정리해 보겠다.

一. 40년 동안의 삼자 애국운동은 중국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

40년 전 삼자운동이 시작될 무렵, 많은 선량한 신도들은 그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의심도 가졌고, 어떤 이는 그것을 정치운동으로만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40년 후의 오늘날 모든 이들은 이 운동이 애국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앞날에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 풍성한 성과를, 몇 가지 일들을 통해 설명해 보겠다.

1. 조직, 경제, 인사면에서 있어 서방 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교회의 주권문제를 해결하여 “洋教” 현상을 소멸하게 됨으로써 중국 인민은 우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2. 중국교회가 자회(子會) 신분이 아닌 평등한 지위로 현재의 보편화된 교회 앞에 서게 되어 세계각국 교회의 존중을 받게 되었다.

3. 사상면에 있어 1949년 이전의 보편화된 신학사상의 영역 중 인민의 심령 건강에 이롭지 못한 사상을 제거했다.

4. 삼자 애국운동이 성립된 후 중국교회는

기본적신앙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신학관점과 예의, 제도에 대해서 “상호존중하며 같은 것을 추구하나 서로 다른 입장을 받아 들인다.”는 원칙을 취한다는 창조적 제안을 했다. 1958년 각 교회들은 연합예배 형식의 노선을 택했는데 이는 보편화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대단한 창조였다.

5. 80년대 삼자 애국운동이 교회 주권문제를 해결한 후, “治好, 養好, 傳好” 중심의 임무를 정의하여 대외 교류문제와 외부로부터의 침투공작 방지, 성서와 교회서적 출판, 신학원과 전도인(義工) 훈련반 개설을 통한 교회 파송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三自”가 중국의 최초의 인정받은 애국조직으로서, 10년 간 교회가 합법적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취한 활동 역시 매우 두드러진 것이라고 본다.

二. 90년대 교회의 당면한 문제로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삼자 애국원칙의 필요성을 설명해 본다.

1. 90년대의 중국교회는 비록 이미 독립자주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교회의 “治好, 養好, 傳好” 방면의 사역에 대해선 아직 거리가 멀다. 특히 농촌교회들은 요즘 들어 신도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학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도인이 심히 부족하여 목회 사역에 있어 객관적으로 수요를 채워 줄 수가 없어 신도의 신앙 수준이 향상되질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삼자 애국원칙으로 “治好, 養好, 傳好” 해야 됨은 오늘날 매우 절실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역사적 임무이기도 하다.

2. 비록 우리는 이미 중국교회의 주권문제를 해결했지만 중국교회의 自治, 自養, 自傳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먼저 교회의 自治 문제를 보면 모든것이 성경의 교훈에 부합되고, 중국 정세에 협조하고 충분히 민주적인 제도인가라는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自養 문제에 있어선 많은 농촌 집회들이 전도인을 부양할 수가 없기에 적극적으로 설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自傳 문제에 있어서 서방의 이러저러한 관념

(종교형식을 띠고 사회주의에 비협조적인 관념)들이 각종 경로를 통해 스며들어와 신도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에 동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선 “세계 대환란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 나무도 심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마라.”라고 떠들어 더욱 더 사회치안에 영향을 주었으니 自傳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절실하다.

3. 최근에 와서 중국교회의 연합단결을 고려중인데 교회가 만약 애국주의와 기독교 기본사상의 기반 위에서의 단결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고,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타인을 공격 한다면 중국교회는 아마도 四分五裂의 국면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三. 三自를 견지하고 三自를 강화시키고 三自를 추진한다.

三自 애국운동이 국가 안정과 단결, 교회 장래의 존폐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저함 없이 삼자 애국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삼자 애국정신을 강화시켜 삼자 애국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 삼자 애국운동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신도들이 나가서 삼자 애국운동의 보급과 선전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삼자 애국운동의 선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의 약점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기에 신도들이 삼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다. 삼자에 대해서 삼자는 “영에 속해 있지 않다.” “생명이 없다.” 등이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신도가 교회의 주인인데 신도가 삼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삼자를 오해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들이 반드시 자세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회의 이후 신도들이 모두 삼자는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삼자를 실행해야 함을 깨달아 오늘날 교회의 몇몇 신도들이 삼자 애국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을 고치게 되길 희망한다.

2. 삼자 애국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선 삼자 애국에 관한 문서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삼자운동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오늘날 삼자 애국운

동에 관한 조직적인 강해서적 한 권이 없으니 삼자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동역자들도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 이후 먼저 역량 있는 조직을 세워 교화성을 지닌 조직적인 삼자 강해서적을 출판하길 희망한다. 이 일은 시급하여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책 한권만 출판하는데 만족할 수 없다. 형식과 체계가 풍부한 다양한 출판물을 출간하여 삼자 애국운동의 관념이 더욱 심도있게 보급되어져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도록 해야한다.

3. 治好. 養好. 傳好는 삼자 애국운동이 오늘날의 새로운 역사적 임무로 발전된 것으로 全國兩會가 도시와 시골 교회에 건의해서 治好, 養好, 傳好의 구체적 표준이 나오게 된 것이다.

4. 훈련반, 퇴직회, 학도반, 학습회 등 각종 형식의 활동을 실시하여 삼자와 정부의 종교정책을 선전하고 기독교의 순수신앙을 전수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법에 위배되는 범죄와 정상적인 종교활동과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봉건적 미신과 순수한 기독교 신앙과의 한계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랫동안 태만하지 않고 진행해 온 이런 일들은 농촌 교회에서의 삼자 애국운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5. 최근 10년 동안 기독교인 중에서 四化建設에서 특별히 많은 공헌을 한 선진 인물들이 대량 배출됐는데, 일정한 방식을 통해 이런 경험들을 모아 서로 교류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에게 애국주의의 적극성을 지니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믿음과 행위,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한 신의 결합이 이루어져 신학사상에 풍부한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번 토론중 삼자 애국운동이야말로 말로 중국교회에 전해내려 오는 보물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삼자 애국의 전통을 대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이는 국가의 복이며 교회의 장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삼자 애국운동과 중국교회 위에 있기를... (陳忠 執筆) ◊

(〈天風〉92년 8월호 중에서)

中國教會 神學建設의 思考

自治, 自養, 自傳의 삼자 중 자전은 중국교회의 근본을 건설 하는 것으로 중국교회 건설의 기본이 되는 자전 문제는 하루 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목회 사역자들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자전이 삼자의 근본이라면, 신학건설은 곧 자전을 완수하는 핵심으로서, 신학이란 일반적으로 교회 신도들의 신앙실천 혹은 영적실천의 근본인 동시에 신앙실천 혹은 영적실천을 가르치는 일종의 기독교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층 더 깊이 말하자면 신학은 교회 혹은 신자 개인에게 교회와 자기민족, 그리고 수많은 양들과 인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신학사

고와 신학탐색, 신학축적, 신학건설에 진력한다면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 이래 기독교 신교가 생존, 발전하게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며 또한 기독교 신교의 청춘 활력을 왕성하게 하는 원천이 되어 새로 나타나는 어떠한 역사의 내적 요인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양자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동파의 “法度 안에서 新意가 나타난다.”는 문장이 인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서 法度란 우리의 기본신앙 요소와 틀을 말하는 것이고 新意란 곧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 시기의 새로운 신학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法度가 없다면 곧 기독교가 비기독교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면을 초래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독교 윤리의 몰락으로 도덕은 강론하면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논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더욱 위험한 다른 하나는 봉건적인 미신이 교회를 침식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현재 농촌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 상태를 야기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사역을 요하는 것으로 첫째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농촌 신도들 특히 새신자들에게 신학과 신앙상의 法度 즉 기독교적인 규범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法度 속에서 新意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동방 특유의 신학 新意, 중국 특유의 신학 新意, 중국 신도의 신앙과 영적실천을 반영한 신학 新意, 사회주의 사회와 어울리는 신학 新意로서, 이것은 몇몇 대표를 선출하여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야 할 아주 힘든 신학 건설 사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듯이 2000년 기독교 선교사상 복음이 어떤 지역에 전파될 때도 반드시 그 지역 특유의 문화적 입장에서 다각도화되어야만 그리스도가 비로소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접수될 수 있었다. 당. 송. 원 시대에 東派교회가 중국 서북지역에 전파될 때 역경, 노자, 오행 등과 결합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신 하나님 觀”과 “구속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관” 및 “하늘의 힘을 빌어 강해져선과 덕을 지킨다.”는 인생관을 낳았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엔 西派교회가 중국전통 문화를 주도하는 유가와 결합하여 유가 사상과 함께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졌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외적인 초월성을 보충시켜 유가에서 추구하는 내적인 초월성을 완성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유가의 내재적인 도덕 수양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 20년대 초에 이르러선 5.4 운동이 중국 전통 문화와 기독교에 대해 비판의 태도를 취했지만 제1대 신교신학자 혹은 종교 철학자라 불리는 趙紫辰. 賈玉銘. 謝扶雅 등은 여전히 기독교와 중국 전통 문화의 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중국 특색을 지닌 “믿음, 앎, 행함의 一體” “종파의 신조를 벗어난 그리스도의 탐색” “진정한 중국 전통을 지닌 중국인이 예수의 행적을 배운다” 등의 신학 命題를 제출했다. 이상

천 년의 역사 유산은 우리가 가서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길 기다리고 있다.

재난이 심하여 백성이 편히 지낼 수 없었던 구중국은 하나의 잘못된 사회였다. 이런 잘못된 사회는 잘못된 신학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중국교회가 균증성 신학을 일으키게 된 피할 수 없는 원인이었다. 혁명자와 신사회 속에 人生과 세계의 긍정적 반응, 사회변혁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능력 내의 사람의 역사,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건설에 앞장선 기독교인의 행함과 체험의 신앙에 대한 격려, 이러한 것들이 50년대 중국교회 신학 이론의 기틀이었다. 이에 앞서 40년대에 吳耀宗 선생 등은 중국신학 노선에 있어 기독교의 의미있는 法度란 신사회와 서로 잘 어울리는 新意를 구비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러한 중국신학의 노선은 서양의 정치신학의 민주색채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오히려 중국문화 전통의 ‘천하의 흥망성쇠는 백성에게 그 책임이 있다.’ 라는 역사와 사회적 도덕 양심에 더욱 깊이 몰두했다.

잘못된 역사는 잘못된 신학 思考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민족이 겪어야 했던 10년간의 고난 속에 함께 힘들어했던 중국교회가 80년대에 와서 50년대에 이미 제기되었던 신학 문제를 다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신도수의 증가에 비해 지도자가 심히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기독교인의 비기독교화 현상에 대해 신학적 도전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중국교회가 민족의 10년 간의 역경 속에서 보여준 왕성한 믿음과 영적인 실천은 신학상 큰 발전과 의미를 더해주었다. 대체로 중국교회가 처해 있는 신학건설의 임무로, 아래 몇 개의 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기본신앙과 교리의 규범과 교정인데, 이 문제는 80% 정도 차지하는 농촌 신도들에 있어선 특히 절실하다. 둘째 믿음과 행위, 영적생명과 윤리, 內功과 聖德, 친밀과 봉사, 역사의 종료와 현실의 역사, 등등 신학계의 평형과 절충에 관한 것이며 셋째 宗派 후 시기의 중국교회의 보급 및 교회관(觀) 문제의 신학사고, 넷째 기독교인의 양심에서 우러난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책임과의 심화 및 강화 등이다. 이러한 신학과제가 잘 해결된다면 중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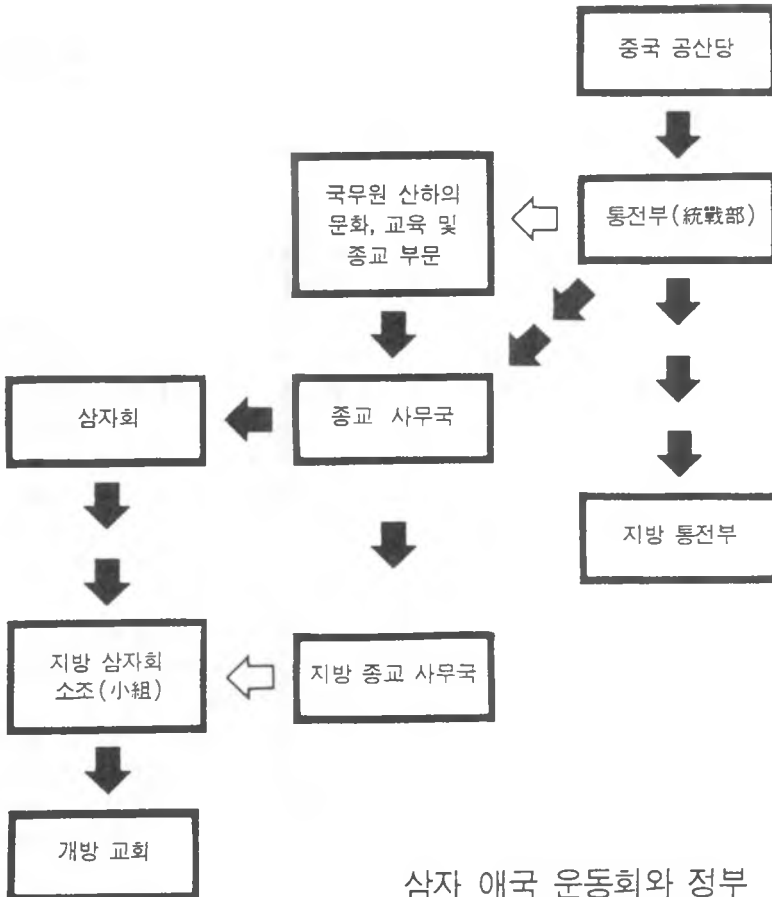
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평등도 촉진시키게 되며, 신도들도 두 문명의 건설을 위한 근본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신학 건설의 경로는 먼저 기독교 신교의 성경 중심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차적으로 신도들로 하여금 신시대에서의 신앙실천과 영적 실천을 중시하게 하여 더욱 숙련시킨 후 중국 전통 문화와 서로 융합하는 데 진력하여 중국 문화의 특색을 지닌 중국 신학을 거울로 삼지만, 서방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말고 아시아 신학을 흡수하여 중국 본토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교회의 신학건설은 먼저 강대상 위에서의 설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신학의 이론이기 때문인데 이는 곧 우리에게 목사와 전도사 전도인(義工) 양성

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기독교 지식 배양에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학관점 및 성경해석 방법에 대한 교육도 추진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짐을 잊어선 안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는 全國兩會가 신학건설 방면에 있어 중국교회들을 위해 몇 가지 일을 실천해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 예를 들어 철저히 제재를 가할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여 매년 한두 차례 중국신학 연구회를 결성하고 부족한 중국신학 특색을 지닌 책을 많이 편찬 출판하여 참고할 만한 歷史교회와 普世교회의 신학원서 및 중국어 독본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汪維濬 執筆) ◇

(〈天風〉 92년 11월호 중에서)



삼자 애국 운동회와 정부

余
日
章



기독교 청년회
사업에 헌신했던
개척자

(一八八二~一九三六)
湖北省蒲圻縣

여일장 박사는 중화민국이 성립한 이후, 기독교계의 중요한 2개의 단체-중화 기독교 청년회와 중화 기독교 續行委辦會(그 이후에 기독교 協進會로 개명)의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 때가 민국이 성립한 이후인 20년대였다. 40년대에는 기독교계의 뛰어난 인물로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 와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청년회와 기독교 續行委辦會와 協進會에 자신을 바쳤다. 그리하여 중국에 기독교 신앙을 확장시키고 중국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였는데 그 공헌이 지대하였다. 그 밖에도 그는 국민의 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여 재야인사들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여일장은 淸나라 光緒 8년(1882) 10월 15일에 태어났다. 부친은 余文卿으로서 기독교 聖公會의 목사였다. 광서 8년에 호북성 武昌에서 목회를 한 까닭에 무창에 가정을 꾸미고 있었다. 이것이 무창이 여일장의 출생지가 된 까닭이다. 그의 본적은 호북성 포기현인데 포기는 호북성 남단에 위치해 있다. 그 땅은 이웃 성인 호남성

에 가까웠는데 그 땅에 陸水라 불리우는 강줄기가 있었다. 그 강은 북으로 흘러 포기를 지나고, 포기를 지나 다시 북으로 흘러 長江에 흘러 들어 갔다. 포기현에는 또한 고속도로가 남으로 호남과 통하게 되어 있는 岳陽이라는 곳이 있어서, 호북성 남부의 수륙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고향인 포기에 대하여 여일장은 스스로 낮설게 느꼈다. 어린시절 몇 차례 고향에 가서 잠시 머무르는 것 이외에, 그는 그의 시간을 부친을 따라서 외지에서 목회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취업한 이후에는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 훨씬 적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일장의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 항상 그의

에 시험을 쳐서 무창에 건립된 文華書院(Boone School)에 입학하게 되었다. 문화서원은 성공회의 유명한 목사인 顏永京 목사가 同治 9년(1870)에 창립하였다. 처음에는 이름이 文華學堂이라 하였는데 그 이후에 확충되어 文華書院이 되었다. 서원은 교사들은 물론이고 시설도 매우 좋았다. 무창지역에서는 가장 일찍 건립되었는데 신식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학교 중의 하나였다. 얼마 후에 문화서원은 다시 文華大學으로 확충 발전하였고, 마지막에는 華中大學이 되었는데, 무창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고등학부 중의 하나였다. 여일장은 문화서원에서 모두 5년간 공부하였는데 학기중에는 德, 智, 體, 群 네가지 교육에서 고르게 두각을 나

“확실하고도 근실했고, 단정함과 아름다움에는 민감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수학할 때에 보여 준 특징이었다. 그의 문문과 영문의 필체의 단정함은 이러한 그의 특성을 기이 증명해 준다 이겠다. 그의 문체는 우아하면서도 간결하였고, 사고는 청신하였으며 창작과 강연에 있어서 사람을 감동 시키는 힘이 있었다.”

본적을 무창이라고 썼는데 사실상 무창은 다만 그의 출생지일 뿐이다. 여일장은 4.5세쯤에 그의 숙부와 함께 무창 연지산의 서당에 입학하여 글을 읽음으로써 그의 계몽교육을 시작하였다. 그 후에 아버지 文卿公이 교회의 파견을 받아서 바로 호북의 沙市, 宜昌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전도를 하게 되었다. 그는 곧 교회 내에 부설된 小學堂에 다니게 되었다. 당시 이런 종류의 교회부설 소학당의 교육과정 수준은 높지 않아서 다만 암송과 글자 익히는 정도의 과정만이 있었다. 여일장은 배우는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였기에 진보에도 매우 제한을 받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경공의 가르침이 매우 엄격하였고, 아울러서 교과과정 이외의 책으로 보충하여 일장을 계몽하고 일깨웠기에 여일장의 유년 시절의 학업정도는 다른 동년배의 친구들에 비하여 높았고, 성적도 줄곧 상위권이었다. 광서 20년(1895년) 문경공은 漢口로 파견되어 전도를 하게 되어서 집도 한구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이 때 일장은 이미 나이 13세였다. 그는 성공회

타냈고 班에서도 뛰어난 존재였다. 그의 친구-- 후일에 교회에 헌신한 성공회 鄭和甫 主教--의 기억에 의한다면, 그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당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남다른 눈으로 그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장래에 반드시 나라에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졸업한 이후의 일평생 업적은 모든 선생님들이 예측한 것에서 과연 아나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 국적의 성공회 신부 吳德施 主教(Bishop Logan Roots)가 여일장이 학교에 있을 때의 상황을 기술한 글에도 일장을 매우 칭찬하였는데 그는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확실하고도 근실했고, 단정함과 아름다움에는 민감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수학할 때에 보여 준 특징이었다. 그의 한문과 영문의 필체의 단정함은 이러한 그의 특성을 기이 증명해 준다 하겠다. 그의 문체는 우아하면서도 간결하였고, 사고는 청신하였으며 창작과 강연에

있어서 사람을 감동 시키는 힘이 있었다.”

광서 26년(1900) 庚子年에 義和團의 난이 발생하였다. 난은 비록 주로 북방의 각성에서 발생 했지만 장강유역 일대도 난의 영향을 받았고 무한일대의 기독교 교회도 위협을 받게 되어 외국國籍의 목사들은 난을 피하여서 모두 가족들을 이끌고 바다와 닿아 있는 상해로 가서 난을 피하였다. 문경공도 가족을 모두 이끌고 상해로 와서 잠시 머물렀다. 무한지역 성공회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吳德施 主教는 의화단의 난으로 인하여 상해에 피해은 성공회 동역자의 자제들이 상해에서 학업이 중단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상해에 있는 聖約翰書院(St. John's College)의 광비위 주교(Rev. Frederick Rogers Graves)와 상의했는데, 잠시 동안 그들의 자제들이 성약한서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성약한서원은 성공회가 창립한 것인데 피차 교분이 있어서 당연스레 그 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일장은 상해에 피난해 있으면서도 교회의 배려에 의하여 학업을 그만두지 않고, 순조로이 성약서원 예비학교(중학교에 해당) 4학년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다음해(1901) 의화단의 난이 평정되어서 무한지역도 평정을 찾게 되었다. 성공회의 외국 목사들도 모두 가족을 이끌고 무한으로 돌아왔다. 성약한서원에서 잠시 몸담아 공부하던 이 청년 자제들은 부모를 따라서 무창의 文華學校에 돌아와서 수업을 받았다. 다만 여일장만이 상해가, 개항이 비교적 빠르고 풍조가 개방되어 있어서 인문과학이 모여 꽃 피 있는 땅이고 공부 환경도 무창에 비하여 낫다고 생각하여 계속 상해에 머무르면서 공부하기길 바랐다. 그래서 성약한 당국과 무한 교회 쪽에 청했고, 학교 당국의 광비위 주교, 筋濟 校長(Pr. F. L. Hawkspot) 및 段德生 主教 (Bishop James a. Ingle)가 승락하여 여일장이 학교에 계속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서 27년(1902) 여일장은 성약한서원의 예비학교를 졸업한 후 순조로이 같은 학교의 정규과정(대학부)에 올라가서 과정을 이수하였다. 당시 대학교 학제는 3년이었는데 광서 30년(1905)에 순탄히 성약한을 졸업하고 문학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대학교 3년의

시간은 비록 그 과정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엄격하였으며 탈락 비율도 높았지만, 일장은 영특한 자질에다 전심으로 노력하여서 성적이 시종 상위권에 속하였으며 순조로이 단계를 밟아 졸업할 수 있었다. 성약한에서 공부하던 여일장은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다른 방면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났다.

한번은 그가 전교 축구 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에 참가하여 용감히 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4개월 간 입원하였다. 다리 부상이 매우 심하여 의사가 다리를 잘라낼 것을 고려해 봐야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도에 의뢰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어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는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때의 다리 부상은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에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독교 분위기가 짙은 목사가정 출신이었다. 나중에는 교회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였고 일상 생활 중에서도 점차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게 되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고 본받으려고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성약한에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영적인 일에 힘써서 전학교 내의 종교교회 활동에 즐거이 참여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여 교장인 卜筋濟의 눈에는 가장 우수한 청년으로 비친 교우였다. 재학 시절중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의 짜임새 있는 재능과 삶을 대하는 열정은 타고난 지도자적인 인재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말재주도 풍부하여 변론하고 연설하는 데 뛰어나 몇 차례 상도 받았다. 교장과 친구들은 모두 그가 장차 남다른 인물이 되어 반드시 교회 내에서 지도자적 인물이 되리라고 믿었다. 광서 30년(1905) 그가 졸업하던 해 많은 학교에서 다투어 그를 초빙하여서 교원을 맡기려 하였지만 한 두 번 생각을 해 본 후에 모교의 초청을 받아들여 무창의 모교에서 교직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영재를 길러내는 교사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일장은 문화서원의 교직을 맡아서 3년 반 동안 계속하였다. 재직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덕목이 고르게 발달되도록 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그는 죽자하고 책만 읽도록 하는 교육 방식에 가장 반대하였고 학생들이 알맞은 과외 활동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을 이끌고 鼓笛軍樂隊, 銅器軍樂대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교육을 길러주었다. 또한 <文華學生界>라는 간행물을 만들어 신사상을 고취하고 학생들을 계도하였다. 그는 항상 <신중국의 국민>이라는 필명으로 써서 혁명사상을 고취하였다. 수업 이외의 여가 시간에는 한편으로는 교회 활동에 참가하여 <救世軍>을 조직하여 교회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한편으로는 <日知會>라는 단체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였는데, 일지회는 만주족의 청나라를 반대하는 혁명당 정부의 외곽조직이었다. 이렇게 볼때 그는 혁명사상의 선양, 선전에 있어서도 공헌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3년 여의 교사생활은 비록 성과가 풍성 하였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미래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연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광서 33년(1908)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그는 또다른 다채로운 유학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에서 유학중이던 여일장은 宣統 2년(1910) 유학 2년만에 순조로이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기중에는 경제 사정이 항상 궁핍했으나 이런 것 때문에 그의 학문에 대한 뜻이 줄어들지 않았고 시종 낙관적으로 연수하고 공부하였다. 여일장은 글을 쓰고 문장을 짓는 데 재간이 있어서 한번은 교내 논문 대회에 참가하여 <論中國 舊時的 學校制度> (Schools in Old China)라는 글로 장원을 하여 Bowdoin prize를 받았다. 이는 그 개인적으로나 중국 유학생에게 커다란 영예를 안겨준 것이었다. 여일장은 유학생생활중에도 본래 국내에서 공부할 때의 활발한 습성이 있었는지 유학생들의 과외단체활동에 열심히 참여 하였다.

그는 전부터 미국, 캐나다 두 곳의 중국 유학생들이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극히

높음에도 서로간의 연락이 부족함을 보고, 마침내 王正廷, 李庚文, 曹雲祥 등과 공동으로 재미 중국기독교학생회 (The Chinese Student Christian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를 발기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기독교 학생들간의 연락과 연합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단체가 조직된 이후에 유학생들에 대하여 매우 아름다운 봉사를 하였다. 이 단체는 미국 유학생 단체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고 성과도 가장 뛰어났던 단체 중의 하나여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여일장은 이 학생회의 창립 공로자 중의 하나이다. 이 학생회는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論功行賞을 따지자면 여일장을 최고로 쳐야 할 것이다. 여일장의 중국 기독교학생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그가 하버드대를 졸업하자, 동료들이 추천하여 이 학생회의 <游行幹事>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각 대학의 가서 중국 학생들을 방문하고 그곳 유학생들과 협력하여 분회를 조직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유학생들의 봉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서로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余가 일을 맡은 이후에 발전된 상황은 매우 좋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상황이 매우 발전했는데 이는 모두 여일장이 조직력과 지도력 방면에서 탁월하고 범상치 않은 지도적인 재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중국기독교학생회는 다행스럽게도 사람을 얻었다 싶었고 여일장 자신도 학생회 봉사 업무에 전력을 쏟던 중, 여일장은 갑자기 그 동생이 국내에서 병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동생 日宣과는 평상시 수족과도 같이 정이 들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매우 초조해져서 마침내 재미중국기독교학생회를 사퇴하고 여장을 꾸려 고국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선통 2년(1910) 그가 미국에서 무창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그의 동생 일선이 병은 이미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동생이 평안하여 별 탈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오랫동안 이별했던 부모, 처자, 아이들과 만나게 되니, 그는 돌아온 것이 매우 유쾌하고 마음 놓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가 국내에서 사업상의 발전을 도모해 볼 것을 결정하도록 하였

다. 이에 그는 전에 그를 길러 주고 원조해 주던 성공회의 오덕시(Bishop Logan Roots) 주교를 찾아갔다. 주교는 그가 배움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여 전에 그를 보살피 주던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여일장을 出長의 光華大學 부속중학으로 초빙하였다. 일장은 기쁘게 받아 들이고 선통 3년(1911)에 퇴직하였다. 그는 본래 교육학을 전공했던 터라 이제 교무를 주관하게 되니 이는 가벼운 수레를 물고 익숙한 길로 나아가는 듯하여 능숙하게 일처리를 하고 교무를 크게 정돈하여 학교가 더욱더 향상되었다. 그리하여 명성이 떨기까지 퍼져서 그 이름을 사모하여 오는 학생들이 그치지 않았고 학교의 명예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선통 3년(1911) 10월 10일 혁명당이 무창에서 봉기하여 일거에 성공을 거두어 무창성을 점령하였다. 청군은 명을 받고 바로 반격하여 이로부터 양군이 무한지역에서 서로 대치하여 교착하는 상황을 이루게 되었다. 여일장은 몸소 포화가 작열하는 무창성에서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먼저 가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후에 그런 뒤도 돌아볼 겨를도 없는 우환 속에서 성안의 국내외도 명망이 있는 토호 상인들과 더불어 적십자회를 조직하였다. 성안에 식량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던 때에 그는 또한 친히 적십자회 깃발을 단 배들을 이끌고 항구에 가서 쌀 수만 석을 운반하여 와서 무창에 유입하여 들어와 곤경을 해결하였다. 몇 차례 양쪽 진 사이의 강물을 오가다 한번은 청군의 사격을 만나서 총탄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때에도 일장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무창의 봉기가 성공한 후에 혁명 지사들은 黎元洪을 추대하여 군정부 도독을 맡겨서 군정부를 이끌도록 하고 일체의 내정, 군사, 외교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외교는 원래 黎씨가 자신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까지 신경쓸 겨를도 없어서 마침내 일장을 청하여 협조하도록 하였다. 일장은 비록 동맹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줄곧 혁명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민주, 평등의 신중국을 찬성하고 있었기에 기쁘게 黎씨의 청을 받아들여 군정부의 대외외교 사무에 협력하였다. 그는 수교와

괴로움을 마다 않고 군정부가 해체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정식으로 정부가 성립되고 나서야 이 외교 교섭의 막중한 업무에서 벗어났다. 군정부 성립 초의 최초의 외교 업무물 회상해 본다면 여일장의 힘이 가장 컸다고 꼽을 수 있겠다. 民國 원년(1912)에 교육총장 蔡元培는 북경에서 제 1차 전국 교육회의를 소집하여 각 성 교육계가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와서 혁신적인 교육 방안을 토의할 것을 전보로 통보하였다. 蔡씨는 전에 여일장이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를 초청하여 회의에 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일장은 이해 8월에 여장을 꾸려 북으로 올라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교육회의가 끝난 후에 그는 친구 陳友仁이 초청에 응하여 英文 北京日報(Peking Gazette)의 편집을 맡았는데 재직기간 3개월 만에 그의 기자 생활을 끝마쳤다. 民國 2년(1913) 정월부터 다시 중국청년회전국조합(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Y.M.C.A.) 강연부 주임간사 직책을 맡았는데 이는 그의 좋은 친구 王正廷 박사의 추천을 거치고 또 스스로도 오랜 생각을 거친 후의 결과였다. 결국 이로부터 중국청년회에 대한 평생의 그의 헌신이 비롯되었다. 여일장이 맡고 있는 중국청년회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세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민간 사회 단체 조직의 깃발하에 일개구별 혹은 지역적 성격의 분회였다. 광서(光緒) 10년(1885)에 청년회 조직이 처음으로 중국에 생겨났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국 27개의 '학교 청년회'의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 '도시 청년회'도 연달아 이루어져 함께 전국 대표회에 가입했다. 그리하여 '중(中)한(韓)항(港) 기독교 청년회 총위원회'의 성립이 있었다. 각 지구별 학교별 특징을 가진 청년회의 사업을 책임지고 협조하며 처리해 나갔다. 다시 10년이 지나고 民國 원년이 되어서는 정부에게 안전을 내었으며 조선 지구의 청년회도 총회를 독자적으로 결성하였다. 전중국 기독교 청년회의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앞서 말한 '총위반회'가 '중화기독교 청년회 전국조합(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Y.M.C.A. in China)'으로 바뀌어졌다. 民國 4년

이 되자 전국조합도 이름을 바꾸어 '중화기독교 청년회전국협회'로 하였다. 이로부터 이 전국협회는 계속하여 중국 각지의 청년회 최고조직으로 대외적으로는 각지구 각학교 청년회도 완전한 독립자치권을 소유하여 전국협회 아래 청년회 각 부문의 일을 하는 회장, 총간사, 각부 주임간사 및 간사 등 수십 명의 사람을 뽑았다.

중국기독교청년회의 지도하에 있는 각지구청년회와 각학교 청년회는 이미 하나의 민간 단체 조직이었다. 비록 명칭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라는 세 글자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성격으로 말한다면 결코 기독교 교회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체의 명칭상 명확히 기독교라는 세 글자가 있으며 종지(宗旨)상으로도 '예수에게 충성을 다 하고 섬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그 단체는 그래도 신앙색채가 농후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그들은 아울러 기독교 혹은 기독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나타내준다 하겠다.

'청년회는 교회의 보조기관이다. 교회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회의 간사는 청년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교회로 잘 도와야 하며 교회의 책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여일장(余日章)은 관직을 담당하던民国 2년(1913) 즉 '전국조합'이라고 불리던 때에 강연부의 주임간사의 직책에 관여했다. 정식으로 취임한 후에 그는 전국순회연설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는 유창하고 생동감 있는 말재주와 풍부한 내용과 연설 내용에 맞도록 제작한 그림과 교재물 전시 작업 때문에 청중들에게 훨씬 깊은 인상을 남겨줬으며 연설할 때마다 청중들이 그에게 감동한 표정을 지어냈다. 그의 연설은 국민들의 지혜를 깨우치는 데 큰 공이 있었다.

여일장(余日章) 선생은 교육의 출발점이, 중국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것에 있고 바로 그 원인은 국민의 도덕성의 퇴화에 있다고 주지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덕성을 제창하고 인심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 했다. 어떻게 착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일장(余日章)은 예

수 그리스도가 도덕과 영적 능력의 근원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가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받들고 더 나아가 예수로부터 위대한 사랑의 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인격수양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가 제창했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또한 '인격으로 나라를 구원한다(人格救國)'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그것이 곧 노력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상을 위해 그는 청년집단을 위한 기독교의 전도 사업에 열심을 내었다. 그 효과는 아주 좋았다.

민국 6년(1917)에 '전국협회' 총간사인 왕정정(王正廷)이 사직하고 여일장(余日章)이 총간사직을 맡아 대행하도록 추천되었다. 곧 이듬해(1918)에 그는 총간사직을 맡았고 이 때부터 12년 동안 연임하였다. 그는 말은 입기내에 청년회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다해 그의 '인격구국(人格救國)'의 이상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재직할 동안 그의 실적과 공헌은 아주 컸다. 도시 청년회를 40여 곳으로, 학교청년회를 200여 곳으로 늘렸던 것이다.

이 밖에 그는 농촌청년회를 개척하여 중국농촌이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그는 평민교육을 펼쳐 문맹을 없앴으며 공민교육운동을 추진하여 공민교육을 보급시켰다. 그가 주관하는 서보(書報)출판물에서 인쇄하여 출판한 총서들은 종교를 다루었거나 지식을 다루었거나를 막론하고 널리 배포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청년회 사업 외에 그는 또한 기독교회의 봉사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중화교회의 교우로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의 신분으로서 성공회의 선교사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큰 종파 간의 일들에 참여하였다. 당시 전국의 교회는 크게 두 개의 연합성 기구가 있었다. 하나는 '중화기독교속행위반회'였고 다른 하나는 '중화기독교협진회'였다. 여일장(余日章)은 이 두 기구 모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당시의 유명한 성정태(誠靜齋)목사와 협력하여 두 기구의 중심인물로서 큰 공헌을 하였다.


'중화기독교속행위반회'는 民國 2년(1913)에

이루어졌는데 성정태(誠靜苔)를 총간사로 맞이하여 외국교회와의 교류에 힘을 다하였다. 또한 각 교회간의 합작사업을 제창하였다. 여일장(余日章)은 민국 3년 청년회와 관계를 가졌고 '위반회'와의 접촉을 계기로 점차 위반회의 일에 참여하다가 민국 6년에는 위반회의 부회장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민국 11년 '위반회'는 실제 필요에 기초하여 '중화기독교전국협진회'로 확전되었는데 여일장(余日章) 선생은 이 '협진회'가 성립한 후에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협진회는 전국 각개 기독교회의 연합조직을 대표하는 일에 관여한다. 여(余)선생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으로 일을 맡아 회의와 실무를 주도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회를 10년 동안(1922-1933) 이끌었다. 그가 교회토착화운동을 추진할 때 비기독교동맹과 대항하고 반기독교운동 등의 일들에 대항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지만 그와 다른 몇 명의 지도자들의 인도하에서 교회는 몇 차례의 치명적인 타격을 겪어야 했다.

여일장(余日章)은 박학다재하여 청년회와 협진회의 일을 맡은 것 외에도 또한 적극적으로 국민외교사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일찍이 민국 20년(1921) 워싱턴 9개국 회의에 참석하였고

중일관계가 긴장되고 더욱이 민국 20년(1931), '9.18'사변 이후 다음해에 여일장은 다시 명령에 따라 호소차 미국으로 급히 갔을 때 불행히도 워싱턴에서의 피로의 과다하여 갑작스런 뇌일혈을 일으키게 되었다. 응급조치를 취하자 생명은 구했지만 손상이 심했다. 그는 민국 20년에 상해로 돌아와 휴양하다가 민국 25년 1월 22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여일장(余日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생전에 절친한 친구였던 범벽희(范璧熙)가 여(余) 선생을 위하여 묘표(墓表)를 써주면서 "그는 학문은 넓고 도덕은 고상하였노라. 그는 스스로 노력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에 매진하는 데 끝이 없었기에 시종일관한 그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다. 선생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가 섬기고 희생하라 한 말씀에 따라 몸은 힘써 행하였고 실천함에도 부끄러움이 없었도다. 이 성취의 위대함이 이에 이르렀구나." 라고 찬양했으니 범(范)선생의 말은 결코 과분한 칭찬은 아니리라.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에서)

번역/서울대중국어성경반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무 명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어머니가 주신 두 차례의 수혈과 주야로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 덕분이다.

내가 한 살이 되었을 무렵, 「흑열병(黑熱病)과 「비장비대증」을 앓아 심한 고열로 물 한방울도 삼키지 못하고 전신이 바람을 불어넣은 고무인형처럼 부풀어 올랐다. 병원으로 보내져 위급함을 다투었으나 의사는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하여 받지 않으려고 했다. 어머니가 여러 차례 간청하자 의사는 「안될 줄 알지만 치료는 해보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나를 받아들였다. 그 때 나는 극도의 빈혈로 복부는 노랗게 되었고 사지는 늘어지고, 고개도 가누지 못하여 머리는 축 떨어져 있었다. 의사는 다시 한 번 "99.9 퍼센트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게다가 곧바로 수혈이 필요해요."라고 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가난하여, 나의 병 치료를 위해 이미 아버지의 자전거를 팔았던 처지였는데 무슨 돈으로 피를 살수 있었겠는가?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나에게 수혈해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하였다. 어머니의 피가 나의 혈관으로 들어온 뒤 병세는 약간 호전되었다. 어머니

는 다시 의사에게 두번째로 나에게 수혈해 달라고 간청하자 의사는 놀라며 "당신은 애기가 한 명 밖에 없습니까?"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저 아이는 여섯째 아이예요. 설사 천만 분의 일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애를 살려야 해요"라고 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선혈이 또 한 차례 나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나의 병세가 약간 호전되기는 했으나, 어머니는 두 차례의 파다한 채혈로 정신을 잃었다. 나의 몸은 약했고 병은 복합적이어서 고열은 주마감(走馬疴)으로 옮겨져 갔다. 입안은 혈어 문드러졌고 죽지 않는다면 턱까지 굵을 지경이었다. 의사는 굵는 것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삼 분마다 젠티안바이올레트(紫樂水)로 닦아 내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간호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 치료가 잘뉘질까봐 간호사가 주의를 하지 않는 틈을 타서 병실로 들어와 악물로 닦아주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나의 병세가 제일 심각했을 때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와 기도집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철야기도를 하였다. 나의 병세가 크게 호전되고 몸의 부종도 가라앉고, 입만이 험고

굵는 것도 그치게 되었다. 닷새 더 입원하여 병이 완전히 낫고서 퇴원하였는데 단지 입술 위에 작은 흉터 하나만 남았을 뿐이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인치신 흔적이며 내가 주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미합니다!

어머니는 40년대의 지식인 계층으로 작은 해서체를 잘 썼고, 말주변도 좋으며, 일처리에 밝고 유능하였다. 어머니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일곱 자매 가운데 오직 그녀만이 천부적으로 총명하여 의조부는 그녀를 아들로 삼아 교육을 시켰고, 가문을 빛내 줄 것을 바랐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재주와 고등교육을 받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사회활동에 있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목이었다. 그러나 1937년 7·7사변시에 일본인을 피하여 保定西關敎會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로부터 전심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주만을 사랑하였다.

마음의 길로 접어들다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자, 곧장 진리 추구의 길로 나섰다. 1939년 소망을 갖고 신학원에 들어가 깊이 있게 공부하였다. 1942년 아버지와 결혼 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먹는 것은 고난의 떡이요, 마시는 것은 끈고한 물이라.」와 같은 일생을 보냈다.

결혼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학원에서 1년 간 가르치며 그 월급으로 생활하였으나 그 뒤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믿음의 길로 나아가 「까마귀가 공급하는 생활」을 하였다. 당시 나의 큰언니는 겨우 4개월이었는데, 모유가 없는 상태에서 길러졌으니 그 어려운 상황은 쉽게 짐작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고 더욱이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믿음이 연약해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믿음을 굳건히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셨다. 어머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함에 한 번도 원망의 말이 없었다. 어떤 때는 밀가루를 털어서 밀전병떡을 만들어 형제들의 허기를 채웠으며, 우리 식구들은 주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길 바랄 뿐이었다.

주를 위한 사역에서 아버지는 황무지를 갈아 씨를 뿌렸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어머니는 유일한 결혼반지를 내어 바쳤다. 실로 물질에 있어서 찢어지게 가난하였으나, 영적인 면은 오히려 넘치고도 족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의 중, 더욱이 그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 대해 때를 어기지 않고 공급해

주셨고 도와 주셨다. 우리 전 가족은 모두 그의 은혜에 의지하여 생활하였고 나는 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노래하는 것을 들곤 했다.

해방 후 모든 것이 변화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각기 달리 고난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연약해졌고, 어떤 이들은 실족했다. 우리 가정도 커다란 충격속을 받았는데 특히 1958년 이후 아버지는 자유를 잃은 몸이 되어 어머니가 우리 6남매의 양육을 맡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매우 강인하였다. 매일 왕복 20리 길을 걸어 일하러 다녔는데 일당 8角의 돈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다. 어머니는 발이 다 나온 해진 베신을 신고 다녔고 발에서는 물집이 생겨 핏물이 흘러나왔다. 옷은 길고 또 기워 더이상 기울 수 없을 정도였으나 어머니는 끝내 고통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활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등불 아래에서 떨어진 천으로 우리 옷을 기워, 우리는 낡았지만 깨끗한 옷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우리들이 일 년에 한 차례 있는 봄놀이에 참가할 회비가 없어서, 혹은 월사금을 내지 못해 놀림을 받게 되었을 때 어머니의 품을 파고 들며 울먹이면 어머니는 우리를 달래시며 “우리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셨다.

생활의 어려움과 정치적 압박으로 어머니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 빈혈과 부종에 시달렸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뎌 나갔다.

어머니는 정직하고 검소하여 흠 없이 깨끗한 사람이었다. 매일 8角(한국돈으로 100원정도)의 돈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매일 잡곡빵과 채소뿐이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는 밤 늦게 돌아오셨는데 점심으로 잡곡빵을 싸가서 먹고 생물을 마셨다. 이런 날이 오래 되자 어머니와 함께 일하던 조장이 차마 보지 못하여 그곳의 참외와 토마토를 따서 어머니에게 주었으나 어머니는 완곡히 거절하셨다. 어머니는 흠쳐온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의 경우 결코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었다. 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서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까지 흠쳐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우리 가정은 어머니의 좋은 행위로 사람들의 동정과 존경을 받았으며 돈을 꾸주는 사람도 있어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주께 감사한 일이었는가!

10년 간의 탄압 가운데서 어떤 형제자매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연약해져, 신앙을 비판하고 피차에 고발하여 자기 자신과 이전의 신앙생활에 명확히 선을 그어 주를 인정하지도 않으려 했고 더욱이 형제자매를 아는 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이와는 달랐다. 한 자매가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며 다른 사람집에서 기거하였는데 그 집 부부가 모두 옥에 갇히게 되자 하나님이 그녀를 감동시켜 어머니를 찾아오게 한 것이

었다. 당시의 환경으로 말하면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맞아들여 그녀와 며칠 간 영적인 생활을 하였다.

비바람 속의 갈대

또 한 가지 어머니의 진실성을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와 동창으로, 원래는 주님을 사랑했으나 환경이 변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타협해 버린 한 자매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제국주의의 교화를 받은 洋奴이며 중국인민에 해독을 끼치는 자이며, 몇몇 교회를 설립했고, 고집불통인 唯心論者... 등등”으로 고발했

다. 이러한 무고는 아버지의 처지에서 설상가상격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고 우리 가정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들이 잠자는 침상은 교회의 긴 의자로 만든 잠자리였고 긴 탁자는 우리들이 공부하고 먹는 곳이었으며, 그 외 작은 벽거울과 성경 몇 권이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것들도 당시 한 젊은이(지금 목사가 되었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집안을 수색하여 모조리 가져 버렸다. 어머니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단지 꿇어 앉아 기도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몇 리 밖에 떨어진 농촌으로 가서는 벗짚을 얻어 와서 진흙바닥에다 깔아 침상으로 삼아 몇 년을 보냈다. 오빠가 돈을 벌게 되어 낡은 목판을 사다가 함께 못질을 하여 비로소 다시 잠잘 곳이 있게 되었다. 수색사건 후 얼마 되지 않

아 어머니의 그 동창생은 다시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그녀가 외국군인을 알고 있으며 미국인 첩자일 것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실무자는 그녀와 우리 집과는 관계가 있고 또한 그가 우리 아버지를 고발했으므로, 어머니를 설득하여 그녀를 고발하게끔 부추겼다. 당시 아버지는 아직 풀려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어머니가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인 원망으로 무엇인가를 고발



할 것으로 여겼고, 그 자매의 죄를 입증할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사실대로 그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더욱이 정치에 간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첩자가 아니며, 그녀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인도 첩자가 아니라 다만 좋은 전도사일 뿐입니다.”라고 일러 주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난 후 크게 화를 내며 “고집쟁이 늙은이 같으니! 화강암 같이 굳어빠진 머리로 네 하나님이나 만나러 가라”고 어머니를 욕했다. 이 일로

우리 가정의 생활비의 근거가 되었던 어머니의 일거리가 취소되었다. 어머니는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였다. 1985년 그 자매가 뜻밖에 우리 집을 방문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주님 앞에 죄를 뉘우쳤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그 사건으로 늘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지를 못했다. 어머니는 그녀의 두손을 잡으며 “비록 연락은 끊어졌지만, 주 안에서 늘 기억하고 있었다. 너의 날도 많지 않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라고 말했다. 이 자매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진정하였다.

분노에서 순종까지

어머니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모두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계셨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부탁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 그때 어머니는 새벽기도중에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그녀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을 보게 했는데 왕후와 같았다. 또한 어머니를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어주며 기도에 전심하라고 하였다. 그 뒤 아버지와 다른 형제는 어머니가 확실히 기도의 온사를 가졌다고 증거했다. 어머니 역시 줄곧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기도로서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

우리는 주를 믿는 가정이었

부모는 천도인이어서 우리 육 형제는 사회에서 늘 질시를 받았다.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권리도 우리는 모두 박탈당했다. 학습성적이 훨씬 좋은데도 좋은 학교에 뽑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어린 심령에는 지울 수 없는 각인이 찍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은 괴로웠다.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학력이면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런 지경에 떨어져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걸까?

우리들 마음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차고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매일 우리들 위해 격정하시며 입이 닳도록 권유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나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사로 잡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새롭게 우리 이 탕자들을 그의 곁으로 부르셨다. 1987년 11월 어머니는 당뇨병 검사시에, 병이 이미 육 년이 되어 다리가 불려지고 약취가 나니 절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치료하다가 병세가 조금 호전되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매일 약을 주었지만 어머니는 땅을 디딜 수 없었고 매일 침상에서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문을 열어 움직이셨으니 1983

년 3월 23일 나는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다. 이 탕자들 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병상에서 기적

1981년 4월 하루는 급히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어머니의 다리에 고름이 생기고 심하게 진물러지므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 온 의사 부부 (한 명은 외과, 한 명은 내과)를 불러 오라고 했다. 다리의 문드러지는 상처와 당뇨치료를 하기에 좋은 기회였



다. 나는 아버지의 소식을 받고 매우 걱정이 되어 오후에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들어서며 어머니가 두 손으로 다리를 감싸 안고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점점의 약수건을 열어헤쳐 보고는 깜짝 놀랐다. 환부가 깨끗해 졌고 다른 냄새도 나지 않았고, 거기에는 흉터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를 모시러 나간 뒤 줄곧 자기의 다리를 안고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어 정말로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것이었다. 의사

도 방도가 없다고 여긴 병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건울 수 있게 치료해 주셨다.

1983년 봄 하나님은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河北省의 농촌으로 인도하시어 사역을 하게 하셨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그릇에 지나지 않았다.

1987년 11월부터 어머니는 병세가 심하여 입원하여 몇 차례 빈사상태를 넘겼다.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한 어머니의 기도의 마음... 이런 것들로 어머니는 몇 차례 살아나 집에 돌아와 요양하였다. 여러 번의 기적을 보고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점차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머니가 집으로 요양할 때 매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증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았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복을 입어 영적인 공장이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성경은 우리 집에 온 신도들에게 크게 감화를 주어 고무시켰고 또한 전국 각지에 십여 명의 사역자를 배출시켰다.

이와 같은 중에 잠들다

1991년 1월 28일, 어머니는 고열로 다시 입원하였다. 장기간와 병생활로 대퇴부 피부와 살은 말랐고 신경염과 전신통증이 있었다. 병원에서 매일 영양제를 맞았으나 시간이 길어지자 사지의 혈관에서 주사액이 새어나와 더이상 흡수가 되지 않았다. 의

과의사를 청하여 흉부를 절개하여 직접 체내로 관을 넣는 수밖에 없었다. 언니는 옆에서 차마 쳐다 보지를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혼수중에 정신이 들자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언니를 달래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주님이 있단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시시각각 나를 돌보고 계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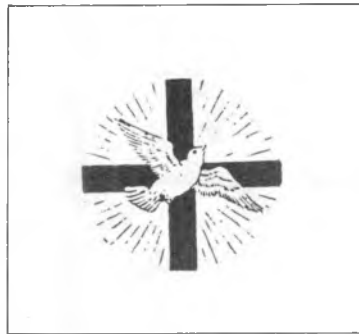
어머니가 받는 여러 가지 고통을 보니 우리들의 마음은 부서지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병세가 좋아지도록 기도했다. 나는 어머니가 말을 적게 하여 체력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하자 “내가 사는 것은 음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확실히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3월 1일 어머니는尿管을 끼고, 고름이 흐르는 욕창, 오른쪽 발꿈치가 절제된 몸으로 퇴원하였다. 퇴원 후 그런대로 하루하루를 지냈다. 일주일 후는 어머니의 일흔 다섯번째 생신이라 우리 형제들은 모두 모여 이번 생신을 맞아 감사의 날을 준비하였다.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하며 하루 종일 찬양과 할렐루야 소리에 파묻혀 지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우리는 몸소 체험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팔 개월 동안, 우리 자녀로 하여금 도리상의 효도를 다하게 했고 영적인 면에 있어 더욱 복되게

하셨다.

10월 13일 일요일, 우리는 평소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들의 기도를 이끌지 못하고 도중에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에는 호전되어 어머니는 입을 열어 말씀 올린 후에 즐쁜 기도와 회개를 하셨다. “수치와 욕됨은 나의 것, 영광은 주의 것...” 밤낮을 쉬지 않고 17일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하셨다. 어머니는 계란 두 개로 만든 계란빵을 드시고 몸을 한번 뒤척이며 잠이 드셨다. 그 때 우리는 기뻐하며 어머니가 며칠씩이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므로 깨지 않도록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이 잠이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잠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1991년 11월 4일, 아침 7시 30분에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 어머니는 일생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을 겪으면서 계속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연단과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의 부탁을 저버리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잠시 짚은 날 동안 우리를 위하여 모범을 보이시고 깨끗하고 두려움 없이 주 앞으로 가서 세상의 모

든 노고를 그치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이후로 우리들은 어머니를 본받아 성결한 생활을 하며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함보다 낮게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 ◈

(『中國與教會』93期 중에서)

번역/반미정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北京 동쪽 교외지역의 민속

北京 朝陽門 밖 六支里의 지방에는 <六里屯> 이라는 농촌이 있다. 이곳에는 대략 3백호가 살고 있다. 筆者는 전에 이곳에 갈 때마다 민속을 조사하였는데 本文은 당시에 조사한 자료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 雙夫人土地廟

東嶽廟 앞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大路는 通州로 통하는 것이고, 六里屯으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좌측의 시골길로 가야 한다. 시골길로 걸어 들어가면 커다란 면화밭을 볼 수 있고, 다시 걸어 들어가면 고적한 작은 묘를 볼 수 있다. 묘지내에는 '有求必應'(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와 '眞靈'(신실한 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주위에는 신도들이 기증한 각종의 편액들이 걸려 있다. 좁다란 大堂(큰사당)으로 걸어 들어가 보면, 안쪽에는 마치 무도회 때 장식하는 데 쓰이는 것 같은 많은 종이로 만든 안경이 걸려 있는데 안경 옆에는 조그만 형견신들이 어지러이 쌓여 있었다. 어떤 신에는 매우 아름다운 자수가 새겨져 있기도 했다. 大堂의 한쪽 구석에는 많은 龍王杖(지팡이 류)이 있었는데 색지로 붙인 일종의 대나무 지팡이이다. 지팡이 끝에는 용머리가 있다. 이 龍王杖들은 모두 이 묘가 신도들을 치료해 주었다 해서 신도들이 감사하여 바친 것이었다. 들건대, 이 지팡이는 일정한 정도까지 쌓이게 되면 불사른다고 한다. 大堂의 정면에는 三尊神像이 있었다. 가운데 있는 것은 흰 수염의 土地神이었고, 그 왼쪽에는 백발의 女神像이 있었는데 그 토지신의 夫人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토지신의 우편에는 미모의 젊은 여신상이 있었다. 이 토지신을 양쪽에 받들어 모시는 여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묘는 <雙夫人土地廟>라 하는데 비록 작지만은 매우 영험하다고 한다. 아래는 묘지기가 서술한 雙夫人에 관한 고사이다.

이 토지신은 매우 도박을 좋아했고, 도박기술에 있어서도 매우 이름이 높아서 언제나 돈을 댔다. 그래서 북경의 도박을 좋아하는 신들은 모두 그를 매우 두려워하여 감히 그와 도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通州의 토지신이 이 토지신에게 도전하였다. 이에 그는 흔쾌히 通州로 갔다. 저녁에 通州의 토지묘 부근의 주민들은 밤새 묘에서 들려오는 도박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튿날 새벽, 북경의 토지묘 부근의 주민들은 징과 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꾸역꾸역 나와서 보니 토지신이 한 명의 미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토지신의 시종들에게 사연을 물으니, 원래 이 미인은 通州 토지신의 부인인데, 通州의 토지신이 전날 하룻밤 사이에 돈을 다 잃고, 마지막에는 자기 부인까지 잃었다고 한다. 그래서, 通州의 토지신의 부인을 북경 토지신이 데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현재 通州의 토지신묘에는 당연하지만, 토지신의 부인이 없다고 한다. 이때부터 朝陽門 밖의 토지묘에 한 명의 미인이 더 늘었는데 이 때문에 <雙夫人土地廟>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묘지기가 이야기를 마친 후, 약 40세 가량의 신도가 와서 향을 사르고 절을 하고 기원했다.

얼마 후에 묘지기는 많은 대나무 죽간을 가지고 나와서 죽간을 항불 위의 위장에서 한번 움직인 후에 신도에게 건네주었다. 이 신도가 죽간들을 가볍게 몇 차례 흔드니, 자연스레 밖으로 튀어나오는 죽간이 있었다. 신도는 이 대나무를 묘지기에 건네주었다. 죽간 위에 번호가 쓰여 있었는데, 묘지기는 죽간을 가지고 들어간 후에 죽간의 번호와 같은 종이조각을 신도에게 건네주었다.

【附註】

雙夫人土地廟의 고사에 관하여서는 다만 북경지방에만 이런 전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양남쪽의 靜海縣城에도 같은 고사가 있다. 縣城 북쪽 三支里 지방의 <口子門村>이란 곳이 있고, 五支里 지방을 지나서, <劉官莊>이란 곳이 있는데, 이 두 지방에도 토지묘가 있다. 옛날에 이 두 마을의 토지묘의 토지신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자기의 부인을 내기로 걸었다. 결과적으로 <劉官莊>의 토지신이 바둑을 이겼다. 때문에 현재 <劉官莊>의 토지신에는 두 명의 부인이 있어서 이 묘는 <雙地廟>라 불린다고 한다. 濟州의 동쪽 마을에도 이 고사와 비슷한 전설이 있다. 이 전설 속에서의 도박기구는 화후였는데 쌍방은 부인을 내기로 걸었다. 다른 지방에도 이와 유사한 고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사는 모두 토지신과 관계된 것으로 토지신과 지역관계를 고찰할 때, 이러한 고사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각종 민간 전설

(1) 東嶽廟의 銅馬(구리로 주조된 말), 銅騾(구리로 주조된 노새): 東嶽廟의 大殿에는 동으로 주조한 말과 노새 한 필씩 있다. 선남선녀들이 만약 말과 노새 앞에 와서 신체를 그것과 접촉하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안질로 고생하는 자가 묘에 와서 향을 사르고, 절을 한 후에, 말이나, 노새 눈을 만지면 안질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神仙의 발자국: 銅馬, 銅騾 옆의 사각형의 돌 위에는 두 개의 神仙 발자국이 있다. 전해지기로는, 이곳에 와서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만약 이 발자국을 밟으면 다리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바뀌어 좋아질 수 있다 한다. 일설에 이 발자국은 魯班(목수의 神)이 남긴 것이라고 한다.

(3) 童子井: 매월 27일은 <井水會>이다. 신도들은 대야에 술을 담아서 東嶽廟의 神像 앞에

놓고 재배한다. 이 물은 반드시 이 마을 남쪽 끝의 黃姑廟의 <童子井>에서 길러와야 한다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童子井>을 팔 때 15세 이하의 아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童子井>이라 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옛날 우물의 重量은 15量인데 <童子井>의 물만이 15量 반이다.

(4) 무덤에서 나온 여인: 六里屯으로부터 북으로 가면 <鬼王庵>이라는 부락이 있다. 옛날에 매일 이 지방의 약초 가게에 와서 약초를 사가는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불한 돈은 나중에는 모두 紙錢(죽을 때 태우는 종이 돈)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가게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루는 몰래 바늘을 그 여인의 옷의 앞자락에 꽂은 후에 바늘에 달린 실을 따라서 가보니 어느 묘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원래 바로 그 여인은 매일 이 무덤에서 나와 그의 가게에 와서 약초를 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附註】

이러한 종류의 고사는 중국 각 지방에서 모두 전해지고 있다. 내용도 대부분, 바늘에 달린 실을 따라가 보니 한 아이를 배고 죽은 여인의 묘지에 이르렀고, 묘를 파보니 이 여인이 한 아이를 낳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아이도 또한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여인은 곧, 자기를 대신해서 아이를 길러 줄 여인을 찾기 위하여 거리에 나와서 물건을 샀던 것이다. <鬼王庵>에 전해 내려왔던 고사는 나중에 그 한쪽 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종류의 고사는 다른 지방에서도 있었는데 <女人上街買糖>(여인이 거리에서 설탕을 사다)이 발단이 되었다. 이 외에도 日本과 한국의 전설에 이런 고사가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비교 연구할 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5) 남방사람이 보물을 훔쳐가다: 북경 부근에 牛瀾山이라는 것이 있다. 옛날에 牛瀾山 기슭에 오이를 심는 할머니가 있었다. 하루는 한 남방사람이 이곳에 와서 많은 오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였다. 그는 말했다. “내가 내일 돈을 가지고 사러 오겠으니,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도 팔지 마시오.” 하고서 갔다. 이에 할머니는 저녁 무렵에 그 오이를 폈다. 다음날, 남방사람은 와서, 한번 보더니 실망스럽게 이 오이가 가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그 이유를 물으니 남방사람이 말하기를 “牛瀾山에는 매우 진귀한 작은 소가

있소. 본래 오이로 잡을 수 있었는데 오이를 이제 땀이니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잃어 버렸소” 하고 말하고 그 남방사람은 떠났다. 나중에 할머니는 그 오이만을 가지고 牛瀾山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진귀한 소가 과연 나타났다. 그가 오이로 소뿔을 치니 소가 그 뿔만을 떨어뜨리고, 산속으로 도망갔다. 결국 잡지 못한 것이다.

【附註】

南蠻子是〈南蠻北狄〉할 때의 南蠻(남쪽 오랑캐)으로서 언제나 남쪽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이다. 남방사람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와 보통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세상의 회귀하고 진귀한 보물을 알아보고 피를 써서 훔쳐갈 수 있다고 한다. 六里屯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 六里屯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두꺼비 세 마리가 그곳 연못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세 마리 두꺼비는 매우 진귀한 보물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 이런 점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남방사람이 커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마리 두꺼비를 훔쳐가 버렸다 한다.

(6) 과부의 재혼: 과부의 재혼 예식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결혼 예식과는 다르다. 보통 여인들이 결혼할 때는 집 대문 앞에서 가마를 탄다. 그런데, 과부는 家運을 쇠하게 한다 하여 재혼시에 집 앞에서 가마를 타지 않는다. 사람들은 과부의 불행한 운수를 〈獨〉이라 하여, 개가할 때는 반드시 사방에 집이 없는 草原에 이르러 가마를 타야 했다. 과부가 개가할 때 신랑집에 도착하고 나면, 신랑이 대나무 막대기로 과부를 세 번 때려야 하는데 이것을 “一棍子打到底”라고 부른다. 이것은 과부의 몸에 살기가 있는데 이것으로 살기를 제거해야 두 사람이 흰 머리 되도록 같이 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몽둥이는 언제나 거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반드시 대나무로 만든 것을 써야 한다. 보통사람이 결혼할 때는 天地에 제사하는데 과부의 재혼시에 이런 예를 행하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이 부엌 앞에서 서로 세 번 절하는 예를 행할 뿐이다. 이 외에도 보통의 결혼 예식은 끝날 때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가 온돌방에 앉아서 「子孫饒饒」(구식 결혼에서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 형식적으로 먹는 작게 만든 물만두)을 먹는데 신랑이 먼저 먹은 후에 신부가 먹는다.

그런데, 과부가 재혼할 때는 이것을 먹지 않는다.

3. 혼인習俗

부락입구에는 북쪽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안에는 5개의 흙으로 만든 塑像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五聖祠」라 칭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용왕이라고 일컬었다. 그 오른쪽은 財神이고 財神의 앞에는 穀神이 있다. 용왕의 왼쪽은 馬王神이고 馬王神 앞에는 土地爺가 있다. 또 부락입구에는 결코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

(1) 門戶帖兒: 혼사는 중매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쌍방이 잘 타협을 보게 되면 그 중매인을 통해 「門戶帳兒」을 서로 교환한다. 이것은 붉은 종이에 한 집안의 三代(조부모, 부모, 당사자)의 이름, 직업을 적은 것이다. 이런 형식은 「過」라고 한다. 물론 「過門戶帖兒」을 교환하기 전에 중매인은 양가의 대략적인 상황과 재산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밖에 서로 사람을 시켜 상대방 집안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더욱이 여자쪽에서는 남자측에 대해 신중히 조사한다. 속담에 『차라리 열 채의 절을 부술지언정 한 사람의 혼인을 깨지 않는다』란 말이 있다. 만약 다른 지방에서 중신이 들어오면 그 촌락 사람들은 혼인 성사를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한다. 말하자면 상대방 가정 상황을 조사할 때 설사 그 집안의 명성이 그리 높지 않고 신랑이 비록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不錯」(좋아요)라고 대답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측이 남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가정이 화목한가 또 신랑의 품행이 단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치중하고 「주어서는 안될 것은 가산이고 주어도 되는 것은 신랑이다」란 속담과 같이 재산의 정도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여자측은 남자측의 재산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2) 相看: 「過門戶帖兒」이 교환된 후 중매인은 적당한 날을 택하며 쌍방의 모친이 서로 만나게 한다. (相看) 만나는 장소는 일정치 않고 이 때에는 예물을 주어서는 안되고 다만 함께 차를 마실 뿐이다. 만약 서로 만족하면 「八字帖」을 교환해야 한다. 「八字帖」은 쌍방 남녀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과 시간을 적은 붉은 종이

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다른 마을사람끼리 혼례를 치를 때만 필요한 것이다. 만일 같은 마을 사람끼리 결혼한다면 이것은 필요없다.

八字帖이 교환되면 접쟁이에게 「犯相」(궁합이 나쁨)을 묻게 된다. 즉 이것은 쌍방의 十二支, 생년월일과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궁합이 나쁘다면 쌍방은 결혼할 방법이 없다. 북경성에는 도처에 접쟁이가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을 「命館」이라 칭한다.

(3) 訂婚: 접쟁이의 점이 좋다고 나오면 쌍방은 결혼하기로 결정한다(訂婚).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한다. 訂婚은 또한 「放訂」이라고도 불리는데 「放小訂」과 「放大訂」으로 분류된다. 「放小訂」은 결혼하기 전 약 1개월 동안 여자측에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放大訂」은 정식으로 여자에게 일체의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훨씬 이전에는 반지 대신에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물건이 무엇이었던지는 모른다. 이 반지는 여자가 월경때 손가락에 끼으로써 그 사실을 암시해 주는 일종의 신호였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반지가 단지 장식품으로 사용될 뿐이다. 결혼이 결정된 후에는 결혼 날짜를 빨리 잡는다. 결혼 날짜도 접쟁이가 정하는데 上陽日(1일 부터 15일) 또는 下陽日(16일 부터 30일)중 각각 한 날을 택한다. 이것은 여자의 생리 주기를 고려하여 여자측으로 하여금 적당한 날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4. 장례풍습

(1) 喪頭: 만약 가족 중 누가 죽으면 친척, 친구들이 곧 조문하러 온다. 만일 죽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면 판상주는 나와서 조문객 모두에게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이것을 「喪頭」라 하는데 상이 난 날로부터 출관할 때까지 죽은 자의 판상주는 이 예를 삼가 지켜야 한다. 六里屯에서는 상가집 판상주는 순백색 마포로 만든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마포건을 쓰고 조문객에게 예를 갖추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고로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때에는 상가집 사람이 반드시 친척집에 머리를 조아리고 집안에 상이 났다고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報喪

頭」라고 한다. 다만 죽은 사람이 어리다면 「喪頭」라고 하지 않고 「小口」라고 칭한다.

(2) 入殮: 집에 일단 상이 나면 곧 음양가에게 염을 할 적당한 날을 택하게 한다. 그 후 가족은 따뜻한 물로 시신을 닦고 죽은 이를 위해 이발하고 흰 옷을 입힌다. 게다가 대퇴부 아래는 흰 끈으로 꼭 묶는데 이것을 「拌脚絲」라 부른다. 이것은 시신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시신을 관에 넣는데 동시에 몽둥이 하나, 약간의 돈, 찻쌀로 만든 동그란 모양의 병을 같이 넣는다. 왜냐 하면 죽은 자가 앞으로 음침한 길을 가다가 「餓狗園」이라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 때 몽둥이로 굶주린 개를 쫓아내고 병든 굶주린 개에게 먹을 것을 주며 이곳을 편안히 지나가라는 뜻에서이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 뚜껑을 덮는다. 또한 뚜껑을 닫고 난 후 입관하기까지 중으로 하여금 경문을 읽게 한다.

(3) 靈棚(영구를 안치해 두는 탁): 집안에 일단 상이 나면 곧 靈棚을 준비하게 한다. 靈棚이란 나무로 만든 시렁인데, 후에는 삿자리를 쳐서 네모진 임시거처를 만든다. 六里屯에서 본 바로는 靈棚은 거의 남쪽을 향하고 있다. 靈棚은 입관 후 빈소에 가기 전까지 관을 놓아 두는 장소인 것이다. 관을 靈棚에 놓아두는 머리는 입구를 향해야 한다. 밤이 되면 친한 친구들이 와서 「坐夜」를 하며 날이 밝도록 계속 운다. 이를 때 되면 경문을 읽는 의식만이 남게 된다.

(4) 接三送三: 상을 치를 때 接三, 送三은 상당히 중요하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상가 사람들은 마을 서쪽 끝으로 가서 「接三車」를 이용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집으로 끌어온다. 이를 「靈鬼三天到家來」라 한다. 「接三車」는 종이로 만든 것으로 어떤 지방의 사람들은 城隍廟, 土地廟, 五道廟에 가서 接三제사를 지낸다. 北京에서는 집안의 상이 났을 때, 五道廟에 보고하고, 그후 五道廟를 중심으로 제사 의식을 거행한다. 六里屯에서는 五道廟가 없으므로 마을 서쪽 끝에서 이 의식을 행할 수 있다. 「送三」은, 「接三」의식이 있는 당일 저녁에 거행하는 행사로서, 새벽에 영접해 들인 영혼을 서쪽하늘 올려보내는 것이다. 또 「接三」과 「送三」, 모두 동일한 종이 수레를 사용한다. 어느때는 셋째날

에 거행된 각종 행사를 「接三」이라고도 한다.

일몰 이후,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중들은 마지막 경문을 읽기 시작한다. 靈棚 안에 백색 상복을 입은 상가 사람들은 관 양옆에 선다. 관은 정원 가운데 위치한 채, 대문을 향한다. 관 앞에는 가늘고 긴 탁자를 놓고 그 위에는 각종 제사드리는 물건, 향단, 촛대 등을 놓는다. 이것이 필자가 당시에 본 것이다.

이 외에 이 상가의 천장에는 수십 장의 만장을 걸어 놓는다. 靈棚 안에는 계속 향이 살라져 기분이 묘해지게 된다. 5명의 중이 관 우측에서 중 앞에는 십여 명의 도와주는 이웃들이 탁자 옆에서 바쁘게 일한다. 우리를 인솔해 간 사람이 손에 영전에 바칠 돈(봉투같이 생긴 돈 봉투로서 상가집에서 冥紙를 사게 될 때 쓴다)을 가지고 영전에 나아가 4번 머리를 숙인다.



중국의 남부에서는 찢을 당할 때 이웃 사람이 사진과 같은 물건(음식물 등)을 모아서 찢을 당한 사람에게 갖다준다고 한다.

이때 관 옆에 백색 상복을 입은 사람 중 약 3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 사람에게 예를 지켜 인사를 한다. 그러더니 돌연히 우리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 우리는 엄숙히 머리 숙여 답례를 했다.

이 때 중들이 종을 치고 경문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후에 중들이 모두 일어서 관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靈棚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영혼이 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혼이 중에 의해서 이끌려 나아갈 때 백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방שמ대곡 하며 울기 시작했다. 이 때 죽은 이의 장남과 유족은 중의 뒤에 따르고 계속에서 친척과 이웃들이 줄을 서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새 정연하고 질서가 있게 되어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았다. 우리도 한 줄로 행렬의 뒤를 따랐다. 중이 때문에 이르렀을 때 즐거운 소리가 퍼졌다. 대문 밖에는 이미 종이로 만든 送三車와 紙馬, 紙人 등이 있었다. 3번 「上車了!」라고 외친 후에 종이말(紙馬)의 다리를 자르고 (이 때 영혼은 이미 수레에 타 있다), 4명의 남자가 送三車를 메고 밖으로 나갔다. 이 때 줄을 서 따라오던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날씨는 이미 어두워졌다. 행렬이 東西쪽의 큰길을 통과한 후 계속해 서쪽으로 갔다. 수레가 교외에 이르자 사람들에게 부축받던 장자가 돌연 무릎을 꿇었다.

이 때 모든 사람도 무릎꿇고 앉아서 울며 고개를 숙였다. 「送三車」는 점점 멀리 멀리 갔다. 送三車가 약 200m쯤 가자 한 사람이 땅에 불을 질렀다. 불은 곧 활활 타올랐고 어두웠던 주위가 순간 환해졌다. 이때 送三車 앞에 가던 마을 아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빨리 뛰었다. 중들은 이때 경문을 읽기 시작했다. 약 5분도 안되어 送三車는 다 타서 재로 변했고 사방은 다시 어두움으로 깔렸다. 유족은 모두 작은 소리로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送三」의 행사가 끝나자 모두 영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中國民俗學〉 中에서)

번역/서울대중국어성경반

主已復活

可十六 1-7; 約廿 2-18;
太廿八 11-15; 路廿四 13-32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막16:1-7; 요22:2-18; 마28:11-15; 눅24:13-32)

禮

拜五, 在耶路撒冷城外, 拿撒勒人耶穌被釘死在十字架上, 而且被埋葬。在祭司和法利賽人要求下, 墳墓被封了, 而且還派了羅馬兵來看守。

금요일, 예루살렘성 밖에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무덤에 묻히셨다.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요구에 의해서 무덤은 봉해졌고, 로마 병정을 파견해 지키도록 하였다.



但在第三天早上, 地大震動。上帝的天使降臨, 把沉重的石頭滾在一旁。士兵驚恐萬分, 仆倒在地; 一等能勉強爬起來時, 奔返耶城。 그러나 제삼일 아침에 땅이 크게 진동하였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거운 돌을 한쪽으로 굴러놓았다. 병사들은 매우 놀라 땅에 엎드렸다. 그러다가 겨우 일어나서 곧 정신 없이 예루살렘성으로 뛰어갔다.

同一天早上, 抹大拉的馬利亞和耶穌的朋友們趕到墳墓, 帶着香料來膏他的屍體。在途中, 她們担着沉重的心事, 不知道怎樣才能讓石頭滾開。但她們到達花園時—

같은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친구들은 무덤으로 달려와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했다. 길을 걸으며 그녀들은 어떻게 돌을 굴러낼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자들이 도착했을 때.





“오직 그(예수)를 썼던 세마포만 남아 있구나. 네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맞춰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는 이미 부활하셨구나. 왜 우리들은 그 때에 그의 말씀을 믿지 못했단가.”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만약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 갔다면 어디에 갔다 놓았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耶穌溫柔地叫她：「馬利亞！」
她回過頭來，看見復活的主。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다：「마리아야！」 그녀는 머리를 돌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那天傍晚，他們在以馬忤斯晚餐，耶穌祝謝了，把餅遞給他們，他們突然認出他來。그날 해 질 무렵，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저녁을 먹을 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갑자기 그(예수)를 알아 보았다.



忽然，耶穌不見了。

갑자기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소벨 쿤의 자서전 불타는 전도자 존성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이소벨 쿤의 자서전 / 이소벨 쿤 저,
권달천 역, 생명의 말씀사 (3,500원)

이 책은 이소벨 쿤(Isobel Kuhn) 선교사의 자서전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한 집회에서 감동과 부르심을 받고 리수(Lisu) 부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 당시 이 리수 부족은 버마와 중국 국경지대의 험준한 고지대에서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리수 부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좋은 여건을 다 버리고 준비하였다. 이 때부터 그녀가 체험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야기들과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 자신의 신앙 생활 등을 이 자서전에서 그대로 간증하고 있다.

그는 한 연약한 여자로서 태평양을 횡단하고, 또 중국의 그 고지대에 도착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리수 부족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부딪쳐 오는 역경은 예상 밖의 시련이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의 와중에서 그녀는 수천 리 험준한 길을 헤메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시련을 “투기장의 무대”로 생각하였다. 그 “투기장”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며, 그 “무대”위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신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완수하였다.

이소벨 쿤 선교사는 20년 간 중국 남부의 내지선교회 선교사로서 늘 하나님께 그의 뜻을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녀는 헌신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기에 리수 부족에게 복음의 씨가 깊게 심어졌고 그 열매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이소벨 쿤 선교사에게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중국선교 헌신지기 모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강성광(중국어문선교회 협력선교사)

1.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 해외 선교 관심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선교 헌신자들이 바로 중국 선교 관심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수에 비례한다면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선교지에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선교를 쉽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옛날부터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하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중국은 그리 생소하지 않고 가장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가까이 느껴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며, 또 그곳에 가면 쉽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인과 한국인과의 문화와 민족성이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공산화된 이래 40년이 넘도록 한국의 중국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해 왔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을 인구가 많고 넓은 한 큰 나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중국을 절대로 잘 알 수가 없다. 아마 그것은 한국 사람이 미국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중국은 각 지역마다 문화와 말이 틀린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3개의 직할시를 가지고 있는 방대한 연합체이다. 즉 최소한 우리 나라만한 땅과 인구를 가진 30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중국의 근, 현대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최근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만 어렵

못하게라도 중국 접근이 가능하다.

첫 서두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많은 중국선교 관심자들이 열정만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거나 선교지에 간다면 너무나 많은 오해와 오류를 범해 고생하게 되는 까닭이다. 더욱이 필리핀이나 다른, 선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지역에 서라면 설사 기본 이해 없이 접근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고생을 하고 값비싼 댓가를 지불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거쳐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한번 결정적인 실수나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면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선교 헌신자가 어떻게 모국에서 준비하고 선교지에 접근하며, 또한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간단히 논술해 보겠다.

2. 기본적인 중국 스터디

우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렵פות한 중국에 대한 선입관을 지워버리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겸허한 태도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스터디 교재로는 객관적인 “중국 근, 현대사” “중국 문화대혁명에 관한 서적” “1978년 개방 이래 현재까지의 중국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서적” “각 성이 소개된 지도책” 등이며, 그 밖에 중국어문선교회의 월간지 『중국을 주제로』 중국복음선교회의 『중국과 교회』 및 기도 소식지 등을 정기 구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어는 현재 한국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결심 여이에 따라 얼마든지 잘 배울 수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그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정말 중국 영혼을 사랑하고 중국어로 중국
 땅에서 주님과 중국 사람들을 섬기기 원한다면
 언어를 배우는 데 헌신되어야 한다.

3. 언어 준비

중국 속담에 “言不通心不通”이라는 말이 있다. 타문화권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요구 사항이겠지만 영어를 제외한 보통 다른 언어는 현지에 가야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현재 한국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결심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잘 배울 수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그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정말 중국 영혼을 사랑하고 중국어로 중국 땅에서 주님과 중국 사람들을 섬기기 원한다면 언어를 배우는 데 헌신되어야 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의 언어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언어에 헌신되지 않고는 선교사로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

언어를 공부할 때 불가피하므로 한다고 생각하면 잘 늘지 않는다. 중국어에 재미를 붙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미로 하면 노력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학원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결심했으면 중국인 사회에 가기 전까지 쉬지 말고 하라!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사회에 가서 사역할 것을 생각하고 언어 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다.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하지 않고 조선족을 50%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조선족을 상대로 사역할 사람도 역시 중국어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없고 언어 소통도 어렵다.

현지에 가서 공부할 사람도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가면 빨리 훨씬 잘 할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A와 B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중국어를 열심히 했는데, A는 현지에 가서만 2년 동안 공부했고, B라는 사람은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열심히 거의 전시간에을 공부한 다음 현지에 가서 1년 동안

다시 열심히 했다면 나는 B가 A보다 훨씬 언어 구사 능력이 풍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후원기관 선택 및 후원자 관리

아직까지 우리 나라 선교기관이나 교회들이 선교사 선발에 있어서 보수적이므로 적지 않은 중국선교 헌신자들이 후원 교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그냥 나가는 것을 보았다. 사실 중국 선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충당하기도 하면서 언어를 준비하거나 사역을 시도한다.

그러나 선교는 물질적 후원 못지 않게 기도 후원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선교 관심자들에게 중국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선교권처럼 공개적으로 선교 계획을 알리거나 공개적인 기도 편지를 쓰기 어려워 지혜롭게 후원 교회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을 하고 후원자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후원자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고 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국선교에 있어서 보안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늘 명심해야만 한다.

4. 사역 훈련

앞에서 언급했지만 많은 중국선교 헌신자들이 중국선교에 대한 계획 등이 너무 막연하다. 물론 필자도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그랬다. 누가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방향성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최소한 몇년 아니 그 이상 선교사 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보통 대만이나 다른 선교지에 가면 교회개척 사역부터 시작하여 목회 사역이 주를 이루는데 중국은 정치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은 지도자
 훈련 사역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밥이는 기술을 알려 주듯, 그들이 또한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시켜 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와 종교의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일단 외국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하는 것은 그들의 법에 의하면 침략 행위이다. 때문에 공개적인 교회 개척 사역이나 일반 목회사역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은 지도자 훈련 사역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밥하는 기술을 알려 주듯, 그들이 또한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시켜 나가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방법으로만 되지 않는다. 제자의 삶을 그들이 보게 하고, 또 그들이 그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양육하여 훈련시킬 수 있는 사이클을 형성시켜야 한다.

한국에서의 일반 목회 사역하고는 틀리다. 가능하다면 건전한 대학생 선교단체 및 제자훈련 선교기관에서 경건의 시간(Q.T) 훈련, 말씀 암송, 개인 전도, 양육, P,B,S(개인 성경공부) 등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농촌에 편중되어 있지만 중국이 공업화되면서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다. 때문에 도시 지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일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간단한 준비사항들을 언급했는데 사실 혼자서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준비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요즘 한두 중국 전문 선교 기관에서 중국선교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곳을 찾아 자문을 구하고 그곳에서 구체적인 여러 훈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사역지로 사오기 전에는 그런 기관이 한 곳도 없어 혼

자서 준비하기에 참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한국 중국선교 헌신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임이 분명하다.

5. 사역지 접근 방법

4.에서 강조하여 말했지만 특수한 사역지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독특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중국선교는 종합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문적인 목회자 뿐만 아니라 학생, 전문 직업인, 심지어 체육인, 여행자 모두가 필요하고 연합해야 한다. 전문적인 선교사라 할지라도 중국에는 그 신분을 밝히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분을 활용하여 들어가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은 단시간으로 여행객,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은 전문 직업인, 학생, 및 교수 요원 등이 있다. 이런 것들 중에 자기에게 맞게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안에 비지니스가 있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거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이나 공부 자체에 성과가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껴야만 한다. 그래서 단순히 선교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 그 안에서 즐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전문 기술을 가졌거나 공부한 학생이나 사업가는 중국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즉 중국 안에서 선교 외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면서 중국인을 섬길 수 있다.

필자인 나는 중국이 이데올로기의 벽이 허물어진다 해도 중국의 근, 현대사를 볼 때 그들이 선교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마지막으로 필자는 최소한 중국선교 헌신자
 및 훈련생에게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즉 내가
 중국에 가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에서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갈망하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지혜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으로 우선 들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는 북경만 가지 말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그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각 성마다 최소한 2-3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다. 또한 북경 표준어를 공부하는 것도 북경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북경에 가면 너무 많은 한국 사람이 있어 중국어 공부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이점은 북경보다 생활비나 학비가 보통 20-30% 정도 차이가 난다.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중국인을 섬기기 원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되어 처음에 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최소한 중국선교 헌신자 및 훈련생에게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즉 내가 중국에 가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에서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갈망하라!


※ 지역별 개요

끝으로 주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중국선교 헌신자 및 훈련생들에게 지침이 될 것 같아 중국의 각 지역을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지역별 개요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중국은 각성, 자치구, 지할시로 약 30개 지역으로 구분되지만 크게 네 구분하면,

- ① 동북지역(북경, 천진, 산서, 길림, 하북, 흑룡강, 요녕, 내몽고)
- ② 서부지역(영하 회족자치구, 섬서, 감숙, 청해, 내몽고 일부, 신장, 위구르자치구)
- ③ 화동지역(상해, 절강, 강소, 복건, 강서, 호북, 안휘, 허남, 산둥)
- ④ 서남지역(광저자치구, 운남, 귀주, 사천, 저장자치구, 호남, 광둥) 등으로 대략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언어 語根과 문화, 경제,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무척 의미있고 중요한 구분이다(작년부터 중국 정부에서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네 지역으로 나누어 경제 발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 (1) 동북지역 : 이 지역은 조선족이 많으므로 우리 나라 사역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근래들어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이 늘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중국 상황 즉, 전체적인 연구 없이 조선족만 의지하여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들의 지혜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 (2) 서북지역 : 가장 넓은 땅에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개방되고 있고, 또 발전이 늦어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다 (그렇지만 석유 자원 등 가장 자원이 풍부하여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 회교지역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 중의 한 곳이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20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거의 다 미전도 부족이며, 특이할 사항은 15여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의 어근이 우랄 알타이어계군으로 한국 사람이 가장 접하기 좋은 부족들이다.
- (3) 화동지역 : 중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연안지역을 따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도 제일 많은 지역이다. 중국 전체 기독교인의 80% 이상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삼자교회, 가정교회)
- (4) 서남지역 : 이 지역 역시 광동성을 제외한 모든 성이 내륙지역으로, 개방된 지 얼마 안되고 많은 인구(약 3억 6천만)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기독교인도 적은 편에 속한다. 

무 제

전영구 목사

“세계 최대의 추수 현장이 될 中國 그러나 오직 준비가 된 자라야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準備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찌르는 강한 문구들이 나를 사로 잡았다. 그래서 나는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의 초대를 받아 거금(?)을 투자하여 제1호로 등록을 하였고 지난 2월 20일 6주간의 훈련을 마쳤다. 그리고 수료생이라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나에게 「無題」의 글을 부탁해왔다. 차라리 「제목」을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말보다 글이 좋아야 하고, 글보다 생활이 좋아야 한다.” 는데 무엇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선교사역자」로 부르셨기에 언제나 내 입에서는 “선교! 선교!”란 語彙가 나가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방한중인 중국교포를 위한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C.C.C. 회관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고(지금은 남대문교회에서 하지만), 「예수사랑선교회」에서 소수의 중국 처소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기도 했고, 「사랑의 집」에서 조그만 사역에 동참중이기도 하다.

양무리를 치며 말씀울 전하는 목회자요, 목사인 나는 또한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한데, 내가 모처럼 피교육생이 되다보니 고되기만 한 6주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아름다운 추억이요, 중국어의 실력향상 이외에 보너스로 얻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아주 유익한 기간이었다.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교수해 주셨는데 그들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그러면서도 공군 복무시절 「공군통신전자학교」에서 교관생활을 하던 생각이 나서, 교수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다. 특히 이혼자 교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중간에 포기를 했었을지도 몰랐으니 다시 지면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어학이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時

間을 投資하느냐에 달렸는데 마침 양육하던 교포가 고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분의 출국 뒷치닥거리 때문에 목회사역과 함께 실로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기간이었기에, 본래 우등생이던 내가 빛을 만천하에 발하지 못하여(?) 심적 부담이 컸고 중도 포기를 할까 잠시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평소에 진지하고 차분하기만 한 실력과 장 총무님께서 교육기간에는 왜 그리 무서웠던지(과제물 독촉 때문에...) 그러나 총무님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으니 고마움을 다시 전한다. 교수법이 중요하다고 새삼 느껴진다.

아주 기쁘고도 먼 나라 중국은 우리가 꼭 뚫고 들어가야 할 나라요, 외면할 수 없는 이웃이다. 우리 한국과 중국사이에는 역사가 시작되던 처음부터 서로가 상호 깊은 관계 속에서 역사의 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양국간 수교 공동 성명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인간이란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체제와 완고한 지도자로 인해 만고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만 결국 인간 본연의 세계를 되찾는 슬기를 갖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사무실에서 오늘도 자비량 선교의 훈련을 쌓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교회 사역자들이여 힘을 내시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6:8-9) ◇

중국선교훈련을 마치고...

宋國宜 목사

따스한 4월의 봄별과 아름다운 들판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풍경들을 볼 때면 그 추웠던 겨울의 모습은 이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며칠 전 훈련원 주말반 총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은 주말반을 마치면서 그에 대한 소감을 몇 자 적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전화기를 놓고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은 "에이, 펜 가는 데로 쓰자"라고 하면서 하루가 지난 후에 펜 가는 데로 쓰기를 시작했다.

작년 9월 가을부터 시작된 선교훈련원은 이제 1년 간의 훈련과정을 끝내면서 주말반 제1회 졸업생이 나오게 된다.

그 동안 좋으신 강사님들의 강의로 말미암아 중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중국에 대하여 많이 눈을 뜨게 되었다. 매 주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선교의 사명에 더욱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다.

훈련 첫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하여 눈을 돌렸으면 하는 것이다. 때로는 중국의 그 큰 대륙을 생각하면서 그리 많지 않는 우리 훈련생들의 수업장면을 볼 때면 이 훈련생들을 가지고 언제 중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았다. 1년 동안 훈련에 참여하면서 출석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몇 번이나 훈련에 불참한 것 같다. 앞으로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결석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짧은 1년 동안 주말훈련을 받으면서 중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중국의 선교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과 힘과 훈련이 되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훈련이 곧 시합이요. 시합이 곧 훈련이다."라고. 선수가 좋은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훈련 없는 시합은 이길 수가 없고 승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포기하거나 기권하기가 쉽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역을 포기하거나 기권함이 없도록 그리고 실패하거나 패배함이 없도록 스스로의 노력과 많은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중국의 복음선교는 한국이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한국이 말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그러한 중에서도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헌신 봉사하는 중국어문선교회.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일찍 이 부분에 눈을 돌려 씨앗을 뿌린 수고로 이제는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훈련생으로서 중국어문선교회가 중국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참으로 세계의 자랑거리요 한국의 자랑거리요 또한 중국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느낀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사랑받는 중국어문선교회가 되어 중국복음사역에 앞장서 나가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귀한 얼굴이 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선교훈련원 1기생으로서 또한 선배로서 그 동안 받은 선교 훈련이 헛되지 않도록 중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중국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1년 동안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 원장님과 중국어문선교회 식구들과 좋은 강의로 시간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중국

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중국선교 자제 또 요청

중국을 비롯한 특정국가 선교가 현지 정부의 자제 요청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활동이 당분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무분별한 선교활동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보내 한국정부가 자제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이같은 공문을 접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와 중국 등 특정국가 선교 열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지난 1월 20일자로 선교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선교 등 종교목적의 중국방문을 자제하고 종교인의 중국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문에는 현지에서 선교용 문서와 물품 등의 배포를 일절 중지하고 신자 끌어들이기와 상호비방 등 과열선교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독신보 93.2.20, 한국기독교보 93.2.6)

* 중국교회 홍콩기독교협에 교류 협력 촉구

홍콩이 금세기 안에 중국에 반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홍콩내의 많은 기독교계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홍콩의 신앙지

도가 공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교회와 홍콩교회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홍콩을 방문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본토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홍콩교회들의 관심이 높은 데 대해 커다란 반가움을 느끼고 흥미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유대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기독교협의회 회장이며 전국삼애국위원회 의장인 텡 주교가 인솔한 중국 사절단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홍콩기독교협의회의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했다. (복음신문 93.2.21)

* “교인 급증, 목회자와 집회 장소 부족”

최근 중국교회는 기독교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교단분열과 무자격 목회자 증가라는 내우와 규제 위주인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으로 인한 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天風>의 보도로 알려졌다.

최근 허난성과 안휘성의 기독교 실태를 조사한 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들 두 곳의 기독교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이 예배장소로 이용할 집회장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정부의 공인 신학교인 난징 신학대학만으로는 늘어나는 목회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많은 무자격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교단분열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무자격 목사 중에는 순수한 선교적 열정으로 목회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차별적인

중국정부의 종교통제정책에 따라 이들까지 목회활동을 규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天風>은 보도했다. (크리스찬신문 93.3.27)

* “중국교회 성장 가속화”

중국의 교회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선교정보를 전하는 <월드미션> 봄호는 중국의 학생들, 지식인들 심지어 공산당원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션월드>지는 또 중국정부의 비공개 인구보고서는 기독교인 숫자를 6천3백만명으로 추정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특히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증가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크리스찬신문 93.5.1)

*** 중국, 직접선교 불가능**

지난 10일 한, 중교회협의회차 방한한 중국기독교협회장 K,H (정광훈)주교가 일주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출국했다. KNCC초청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한 텡 주교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 교회의 중국에 대한 직접선교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함」을 밝혔는데 텡 주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3자원칙에 따라 외국인들에 의한 선교활동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기독교선교신문 93.4.21)

*** 홍콩기독교인 해외이주 늘어**

지난 30년 간 홍콩의 기독교 인구는 전인구의 2%에서 10%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 홍콩을 빠져나가고 있어 중국본토 선교 교두보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감리교 자유선교회 소속 선교사 마가렛 넬슨씨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25%가 홍콩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홍콩 기독교의 장래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93.4.6)

*** 올해 1백만 부 성서 배포할 계획**

중국 기독교인들은 올해 한 해 최소한 1백만 부의 성서를 인

쇄, 배포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해 가을 베이징 당국과 자선출판사(The Amity Printing Co.)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1987년 12월 성서 인쇄가 시작된 이래, 난징에 본부를 둔 자선출판사는 약 5백 만부의 성서를 출판했고, 현재 한 달에 약 12만 부의 성서들을 인쇄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출판사는 한 달에 약 12만 부의 중국 찬송가와 중국 내 개신교도들을 위한 기타 서적들을 출판할 수 있다.
(복음신문 93.4.11)

*** 康州聖心大學은 명예학위를 공품매 추기경에게**

일찍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감금되어 30년 간 옥살이를 한 91세의 공품매 추기경에게 강주성 십대학은 특별히 최고 영예의 인문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것은 그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 존경을 표한 것이다. 공추기경은 답사에서, 성심대학 전체 교수와 학생이 핍박받는 중국인민과 중국교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추기경은 또한 중공이 중국 천주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임을 가슴아파하면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박해가 이전보다 더욱 잔인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말했다. (公教報 92.11.20)

*** 氣功師가 미신을 빌어 재물을 착취.**

북경시 海澱區의 인민법원은 張喬玉이 미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을 착취한 죄명이 성립됨을

확인하고 6년 유기징역과 아울러 불법으로 인한 소득 전부를 몰수하기로 판결을 내렸다. 올해 49세인 張喬玉은 본적이 海南省 瓊海縣으로 1987년 3월부터 1990년 4월까지 3년 간 북경에 머무르면서 온 거리와 공공장소, 대학교나 일반가정에서 미신활동을 행하여 군중의 재물을 착취했다. 그녀가 「옥황상제」와 대화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무지몽매하고 거짓 기공을 믿는 군중에 의해 「氣功大師」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동안 張은 북경에서 인기를 얻어 그의 「기공(공후)」을 소재로 한 서적이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나오기도 했다. 1988년 5월 張은 병환중인 소녀를 「치료」할 때 환자의 집에서 이른바 「구룡음양팔괘진(九龍陰陽八卦陣)」을 만들어 병을 치료하면서 치료비를 착취했는데 환자는 다음해에 사망했다. (明報 1992.12.3)

*** 西藏人民들은 종교자유정책을 믿는다.**

국가 헌법 반포 10주년 기념의 특별 주제 세미나에 서장인민은 중공헌법이 그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세미나에 참가한 100여 명의 대표들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 법률단체, 종교조직과 교육부문에 각각 참석했다. 대표들은 중공의 헌법은 서장인민이 중국 기타 지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 중에서 한 불교 대표 耶氏(yexe Tandui)는 문화혁명 시기에 파손된 사원이 1978년에 증축되었고, 잃어버렸던 많은 종교 용품과 聖物이 현재 모두 사

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씨는 또한 정부가 그들의 사원을 증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143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며 불교신자들도 다른 서장 인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서장(西藏)은 이미 많은 불교 신자를 훈련시켰으며 현지의 불교 사원은 85년 이후 많은 라마교인들을 모집하여 불교를 배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ina daily 1992. 12. 5)

*** 홍콩을 위한 70일 기도**

홍콩교회의 갱신운동과 홍콩 복음화 2000이 연합하여 실시한 70일 연속기도회는 92년 12월 중순에 거행되었다. 이 대형 기도집회는 6.4 천안문 사건 이후 열린 가장 긴 기도활동이었다고 여겨진다. 기도회의 목적은 홍콩의 안정과 97년 이후에 있을 정권 이양기를 성도들이 평안하게 넘길 수 있도록 구하는 것에 있다. 대회를 이끈 책임자 중 한 사람인 李健華 목사는 이번 기간이 중국과 영국이 정치론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여기며, 필요한 것은 홍콩 시민의 안정이라고 말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92. 12. 19)

*** 금릉신학원 건축 40주년**

남경의 金陵協和神學院이 11월 11일 설립 40주년을 축하했

다. 약 3백명의 정부 관원과 졸업생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경축식을 가졌다.

금릉신학원은 1925년 건립된 중국 최대의 신학원이다. 원장 丁光訓은 경축 회상에서 신학원과 중국 기독교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하에 얻어진 것이며 지금의 중국에는 13개의 신학원이 있고 6백만 신도와 7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 3분의 1이 최근에 건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년 금릉신학원은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의 신학원과 우호 관계를 맺은 바 있다. (NCNA 1992. 11. 11)

*** 중국종교사무국 인사변동**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부부장 張聲作은 최신 任務之를 대신하여 종교 사무국국장에 임명되었다. 이는 중국이 10월 12일에서 18일까지의 제14차 전국 대표대회를 마친 후 얼마되지 않아 공포된 것이다.

중국 통전부와 국무원 종교 사무국은 중국의 두 전문 종교 사무 관리 기구이다. 종교사무국은 또한 종교 출간물의 출판 사업도 책임을 지고 있다.

(《公教報》 1992. 11. 13)

*** 미 선교회 조직이 가정교회**

성경 인쇄 보급 허가를 받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에 본

부분 든 한 기독교 선교조직이 다가오는 5년 내 1백만 권이 넘는 성경을 발행하여 가정교회에 공급해 주는 안을 허락하였다.

이 공동 협의는 東門國際宣教會(East Gates Ministries International)와 중국 기독교 협회가 9월 26일 체결한 것이다. 협의 규정은 동문 선교회가 南京의 애덕인쇄소에서 백일만권의 성경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중국 애덕 성경인쇄소 매년 성경 발행 제한 부수인 1백 5십만 권의 숫자를 초과하는 숫자이다.

동문 선교회 책임자인 Doug Sutphen은 그 성경을 중국 기독교 협회의 동의하에 삼자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독립 가정교회에 보급할 것이라 밝혔다. 14년 동안 성경 보급에 주력해 온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래 성경을 운반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교류와 합작, 신임의 신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중국교회 연구가들은 이 “상호 신임”의 신시대론에 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것은 과거 몇 년 간 중국 정부가 한결같이 가정교회를 박해해 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교회가 봉쇄당하고 성도가 체포, 구금되고 있다는 소식과 정부의 교회 진압 문서가 계속 발행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News Network International 1992. 10. 23)



한중관계



* 中國동포 밀집村 점차 사라져간다

서울역주변 중국동포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끈끈한 동포애를 기대하며 찾아와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중국동포들이 당국의 단속강화와 치솟는 물가고를 견디다 못해 인천 城南이나 安養, 議政府 등 수도권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일보 93.3.8)

* 기업 대중 직접투자 급증

중국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 작년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모두 5백건, 12억 5천 5백만 달러로 91년에 비해 건수는 10.4%(47건), 투자금액은 11.5%(1억 3천만 달러)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93.2.12)

* 韓國자동차 中國서 “돌풍”

중국자동차 수출에 붓물이 터졌다. 23일 관계당국과 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말까지 중국에 대한 국산승용차의 수출은 1억 4천8백만 달러, 약 2만3천7백만 대에 달해 중국시장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자동차 수출대상지역으로 부상했다. (국민일보 93.4.23)

* 中國, 對韓 기계합작 잇단 제의

국내 기계업체들에 대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합작제 의가 잇달고 있다. 기계공업진흥회는, 지난달 山東省 기계공업 위원회가 1천만 달러를 투자, 연간 가공센터 1천 대, 수치제어선반 8백 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 참여를 요청하는 등 최근 모두 10건에 이르는 합작사업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3.2.22)

* 白頭山까지 하루에 간다

한국과 중국간 선박항로 5개가 추가로 열려 울가울부터 여객선 운항이 시작된다. 이 중에는 특히 동해상의 북한쪽 공해물 통해 東草와 훈춘(吉林省)을 잇는 「민족항로」가 개설돼 우리나라에서 만 하루만에 白頭山에 갈 수 있는 등 중국인들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93.3.15)

* 中國, 電子수출도 韓國 위협

지난 91년 처음으로 對美 수출에서 우리 나라를 앞질렀던 중국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제품에 이어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수출에서도 우리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컬러 TV와 냉장고, 컴퓨터, 에어컨 등의 對美 수출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으나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국이 전자제품의 對美수출에서도 곧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일보 93.4.1)

* 中國진출기업 어려움 많다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 가운데 적지않은 수가 당초 기대와 달리 생산성과 판로확보, 납기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한,중국관련 사업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 가운데 파트너를 잘못 선택했거나 사전준비가 부족해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3.5.10)

정치



* 중국 군사력 증강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중국 및 외국 국방전문가들이 밝혔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

력 증강은 해군을 위주로 이루어져 해군은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한편 6천여 해병대를 포함한 중국 남부지역의 특수부대의 전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3.1.28)

* 中國式 시장경제 도입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5일 지금까지 실시해온 「계획경제」 대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새 헌법 개정안은 특히 「국영경제」라는 표현을 「國有경제」라는 용어

로 수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이념인 국가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음을 명시했다.
(경향일보 93.2.17)

※ “홍콩문제 양보 못해”

中國 최고지도자 鄧小平은 「크리스 패튼 홍콩총독이 홍콩의 정치개혁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中國은 홍콩의 장래에 관한 기본공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홍콩의 더스탠드紙가 18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3.2.18)

※ 中國 全人大 결산

中國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의회) 제8기1차회의가 17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31일 폐

막되었다. 이번 全人大가 한 가장 큰 일은 「鄧小平이후 체제」의 기틀을 잡았다는 점이다.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는 지난 27일 江澤民(67)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새로운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조선일보 93.3.31)

※ 중국헌법 「국가소유경제」 삭제

中國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29일 최고실권자 鄧小平의 시장경제 개혁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全人大가 이날 채택한 헌법개정안은 국영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반영해 「국가 관리 경제」로 바꾸었

다. 또 「국가는 사회주의 공공소유제도를 바탕으로 계획경제를 운영한다.」는 조항도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조선일보 93.3.30)

※ 중국 97년 홍콩반환 이후 병력 1만 이상 주둔 추진

中國은 오는 97년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만 명 이상의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주둔시킬 준비를 구체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홍콩에서 발간되는 중국문제전문 월간지 鏡報 최신호와 더스탠드紙가 보도했다.
(한국일보 93.5.6)

경 제



※ 중국 자유兌換制 체비

中國 정부는 인민폐의 자유태환을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외환 관리체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殷介炎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14일 「중국이 금년중 외환시장의 발전에 역점을 두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환율조절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외환 시장의 운용과 관리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93.2.16)

※ 경제區설치 제한, 인플레이 우려

中國정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건설경기 과열로 인플레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경제개발구의 확산을 제한할 것이라고 관영 차이

나 데일리紙의 일요판인 비즈니스 위클리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중국 국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 등 특별혜택을 주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설치를 제한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한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일보 93.2.8)

※ 中, 긴급농가지원책 稅부담 등 대폭줄여

中國은 22일 경제개혁에 뒤쳐져 소외된 8억 농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발표한 이 긴급명령은 지방정부가 稅收를 늘

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도한 세금, 수수료 등 재정부담을 없애기 위해 농민들의 세금이 세후 순수입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관영 新華통신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93.3.23)

※ 人民幣폭락... 中國진출 기업 울상

中國 人民幣(RMB)의 美달러에 대한 실제환율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져 여러 가지 말썽이 빚어지고 있던 중국이 부분변동환율제로 바꾼 것은 지난 91년 초. 이후 美貨 1달러에 5.55元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인민폐 환율이 최근 3개월사이에 공정환율만도 4% 오른 5.77元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

는 실제환율로, 중국내 1백여 개소에서 거래되는 인민폐 환율

은 3개월 전 美貨 1달러에 7.10원에서 20%나 오른 8.50원에 고

환되고 있다. (조선일보 93.3.8)

사 회



* 티베트고원 최악의 暴雪

티베트 고원 지대에 최근 1백 년만에 맞는 최악의 눈보라가 덮쳐 주민 약 3만 명이 고립된 채 동상, 실명(雪盲)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明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中國 서부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青海省 정부관리들을 인용, 대부분이 목축업 종사자인 이들에게 식량, 의복 및 연료를 전달하는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3.5.3)

* 신흥갑부 1백만 명 돌파

현재 중국에는 1백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 중국관영 월간지인 차이나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92년 정부 공식 발표의 백만장자는 겨우 5백명 수준이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백만장자로 부를 수 있는 신흥 부자들의 숫자는 이미 1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南지역에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93.3.12)

* 패스트푸드 人氣

개방과 개혁의 숨결과 함께 패스트푸드는 중국인들의 식생활 습관을 바꿔놓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일보 93.5.18)

* 中國 사상 첫 자전거 通禁

「자전거의 왕국」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시가 생겨났다. 11일 관영 英字紙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남부 廣東省의 省都 廣州市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구 6백만인 광주시에는 현재 3백만 대의 자전거와 22만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중이며 차량대수는 10만 대 안팎이다. (조선일보 93.3.12)

* 청바지가 인민복 벗기다

사회주의 혁명과 평등의 상징이었던 인민복이 중국에서 사라지고 있다. 조만간 인민복은 천안문에 걸쳐 있는 故 毛澤東주석의 초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경제 개혁과 문호 개방에 힘입어 소득이 늘어난 인민들이 우중충하고 불편하며 볼품없는 인민복을 더이상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민복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업종 전환을 시도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北京에서는 아예 인민복 생산이 중단됐다. (경향신문 93.4.26)

* 늘어선 “기술학교 志願”

공업화 정책으로 기술인력이 우대 받고있는 가운데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직업학교에 원서를 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중앙일보 93.5.18)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몰려오고 있다.

* 中國개방 후 매춘 극성 최 근들어 수만 명 체포

중국 경제개혁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불법적인 매춘 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지역에서만 수만 명의 윤락녀와 인신매매범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 (경향신문 93.2.17)

* 中國 『毛澤東시계』 불티

死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인들의 흠모 대상이 되고 있는 毛澤東이 마침내 중국 시계 시장의 불황을 타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毛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 생산되기 시작한 이른바 『毛澤東시계』가 중국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요즘 중국의 시계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아일보 93.5.1) ◇

중국 을 위한 중보기도

1. 중국 당국이 대내적으로는 종교 활동장소등기관리 규정 등을 제정하여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등에 선교자제 요청을 해 오면서 선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하나님께서 중국의 신자들과,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믿음과 인내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장애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2.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 사회는 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나면서 물질주의 사조가 팽배하고, 마약류의 흡입과 매춘이 늘어나는 등 급속히 변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중국사회에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중국인의 공허한 심령이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길.

3. 중국교회는 빠르게 늘어나는 교인에 비해 목회자와 집회장소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 주님께서 중국교회가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유자격 목회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늘어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일을 도와주시도록

4. 중국기독교협의회의 회장인 정광훈 주교가 KNCC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고, 오는 9월에 제 1차 한중교회협의회를 갖게 되는 등 한국교회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 한국과 중국교회의 교류를 통해 한국교회에 중국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려지게 도우시도록.

5. 한국 내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 줄 일꾼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길.

6. 한국 내의 작은 중국 <사랑의 집> 제자 양육사역이 계속해서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곳을 거쳐간 100여 명의 교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현지 교회를 받드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집 사역의 방향을 주님께서 이끄시길.

7. 중국선교에는 무엇보다도 협력과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 주님께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일으키도록.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상

- 교회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 단기선교사
- 중국선교에 부름 받은 예비선교사
- 중국선교 관심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평신도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훈련기간

- 1993.9.4~1994.1.29 (5개월)
-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3.9.4(토) 오후 3시
- * 제 4기 훈련은 94년 3월에 개강합니다.

접수마감: 93년 8월 20일 (참가인원이 제한되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선교중국어 집중코스(총20주)

- 목 표: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전문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하도록 합니다.
- 교육내용: 전반(10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 중국어찬양
후반(10주) 중국어성경, 耶穌的好消息, 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信仰讀本, 我的第一本聖經
- 일 시: 매주 월, 화, 목, 금, 토(토요일은 “중국선교전문강좌”)
월(오후1시~5시20분) 화, 목, 금(오전8시~12시20분) 토(오후3시~6시20분)
- 본과정의 훈련생은 “중국선교전문강좌”를 동시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선교현지답사 실시(94년 2월중)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2주간 실시합니다.
- ▶ 계속훈련코스
“선교중국어 집중코스” 수료자를 위하여 중급이상 수준의 과정으로 개설합니다.
- 교육 내용: 전반(10주)/후반(10주) 중국어성경강독, 회화, 중국어설교
- 일 시: 매주 화, 금 오후2시~5시

중국선교전문강좌(총16주)

- 목 표 : 중국선교상황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지적응능력을 배양합니다.
- 일 시 : 매주 토 오후3시~6시20분
- 강의주제 및 강사
 - 중국문화개관 (이홍자, 전전북대 교수)
 - 중국고대사상 (김학주, 서울대 교수)
 - 중국역사 (허원, 서원대 교수)
 - 동양사상의 이해 (조경현, 철학박사)
 - 중국공산주의 연구 (이영순, 선교신학교 교수)
 - 중국의 소수민족 이해 (의건미, 중국문화 전문가)
 - 중국교회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김바울, 총신대 교수)
 - 중국선교사해연구 (김형석, 총신대 교수)
 - 중국소수민족선교의 실패 (이해돈, 예수전도단 간사)
 - 중국기독교사 (우심화, ACTS 교수)
 - 타종교이해 (권형기, ACTS 교수)
 - 최근점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주지호, 극동방송 중국어담당)
 - 해외에서의 중국선교 (노봉린, ACTS 교수)
 - 중국교회토착화와 지도자 연구 (유전명, 중국복음선교회 대표)
 - 전문인선교 (민요섭, HOPE 총무)
 - 세계선교상황 (문상철, KRIM 연구실장)
 - 세계화교와 중국선교 (미정)
 - 산동선교의 경험과 교훈 (방지일,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 타문화권의 생활과 적응 (미정)
 - 국내에서의 중국선교 (이요한, 중국어문선교회 총무)
 - 중국조선족선교의 사례 (박애린, 중국어문선교회 선교사)
- ▶ 중국어 기초과정
 - “중국선교전문강좌” 수강자 중에서 희망자를 위해 별도로 개설합니다.
 - 교육내용 : 전반(10주)/후반(10주) 초급중국어, 기초회화
 - 일 시 : 매주 화, 토 오후7시~9시30분

등 록

- 방 법 : 등록접수비(3만원)를 온라인이나 지로로 납부하고 소정서류를 제출함. 반드시 본인이 직접 와서 면접하셔야 합니다.
 - *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84-01-0283-625 (수취인: 중국을 주세요)
 - * 지 로 구 좌 : 7602362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훈련원 소정양식) 1통, 이력서 1통, 출석교회 당회장 혹은 선교단체 대표의 추천서 1통, 신앙간증서(200자 원고지 5~6매) 1부
- 참 가 비 : 선교중국어 집중코스 전·후반 각 32만원(중국선교전문강좌 포함)

중국선교전문강좌	총16주 10만원
계속훈련코스	전·후반 각 12만원
중국어 기초과정	전·후반 각 8만원

 - * 대학생, 신학생 및 중국어문선교회 회원은 10% 할인
 - * 선교현지답사 경비는 별도
-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3호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장희락 총무)
 TEL: 533-5497, FAX: 599-2786

일 령

* 정기 세미나

93년 6월 28일(월) 오후 7:00 중국어문선교회 본부에서 조경현 박사(동양철학)를 모시고 <중국선교를 위한 동양사상의 이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제3기 중국선교 훈련원생 모집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 지망자를 위한 선교중국어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일은 8월 20일이며 자세한 문의는 Tel. 533-5497(중국어문선교회)으로.

* 정기 철야기도회

중국교포협의회 정기 철야기도회가 6월 7일(목) 오후 8:00-12:00까지 제자중앙 침례교회에서 모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Tel. 309-1402으로.

* 제7회 모퉁이들 선교학교

6월 29일부터 3박 4일 예정으로 양수리 수양관에서 모퉁이들선교회의 선교학교가 개최됩니다. 등록비는 5만원이며 마감일은 6월 24일.

자세한 문의는 Tel. 796 - 8846으로.

* 사랑의 집

중국교포 제자양육 훈련장인 '사랑의 집'에서는 열 명의 중국교포 헌신자들을 각 신학대학에 진학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기다립니다. Tel. 873-2570(사랑의 집)

* 漢族을 위한 공단사업

현재 서울, 인천, 안산 등 각 공단지역에서 수많은 漢族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할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협력할 교회와 성도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Tel. 594-8038(중국어문선교회)

* 합정본 출간

중국선교 전문지<중국을 주께로> 1989-1992년(1호-20호)까지의 합정본이 출간되었습니다. 권당 2만 원이며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Tel. 594-8038)로 문의 바랍니다.

턴 집 후 기

* 숲 속의 푸르름이 한껏 싱그러운 계절, 한 차례 전쟁을 치루듯이 바삐 돌아갔던 출판부. 이리다 계절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는지? ---혜

* 소수민족을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미흡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나마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석

* 한 권의 책이 독자의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장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는 이가 얼마나 되까?

기쁜 마음으로 동역할 자원 봉사자들이 줄을 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교정에 참여해 주신 정철우 형제님과 출판작업에 수고하느라 아끼지 않았던 정광숙, 언하은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표지 설명:

중국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傣族 이기씨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성년이 되면 차이를 감개 만드는 데 이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그들은 이 차이가 깊을수록 더욱 이롭다고 여긴다.



중국선교의 유능한 길잡이를 소개합니다.

- ◆ <중국을 주께로> **입정본**: 1989년 창간호로부터 1992년 11, 12월호까지의 총보. 단순한 출판 기념비적 의미를 넘어, 중국선교를 위한 각종 연구 논설문과 및 중국선교 상황의 귀중한 정보 참고. 선교지망 교회 및 헌신자들의 필독서. 가격/ 20,000원.
- ◆ **중국선교 앤드북**: 홍콩 중국교회연구소(CCRC) 소장인 조나단 차오 박사 著.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과 중국교회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중국교회의 현황을 중국의 종교정책과 제도와 연관지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서 중국의 각 성 및 소수민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중국관계 참고 자료들을 수록. 예비 중국 선교사들의 필독서. 322p. 가격/ 4,800원
- ◆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서방세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중국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중국 종교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조명한 조나단 차오 박사의 글. 중국교회 이해를 위한 기본 필독서. 35p. 가격/ 1,500원.
- ◆ **중국어 성경번역소식**: 중국성경번역에 대한 약사. 이 책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주시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소수민족 성경역본 현황을 개관해 볼 수 있다. 34p. 가격/ 1,500원.
- ◆ **민 남**: 유년시절 문화대혁명을 겪고 대학 진학을 앞 둔 시점에서 두 자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중국 청년의 고백적 서신. 63p. 가격/ 2,000원.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보시려면.

-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본회(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 대금은 1부당 2,000원 이며(1년 구독은 10,000원), 보내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중국선교훈련원 제3기훈련생모집
M.T.I. for CHINA (93.9.4 개강)

● 예비선교사님,
선교지에 들어오기 전에
꼭 언어훈련을 받고 오세요! ●

경험에서 우러나온 선배선교사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분을 찾습니다.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능력이 배양됩니다.
-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찬양, 전도, 설교, 회화 등)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훈련기간

- 1993.9.4~1994.1.29 (5개월)
-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 93.9.4(토) 오후 3시

선교중국어집중코스(총20주)

- 목 표 :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전도, 찬양 등 선교전문중국어를 습득케 함
- 일 시 : 매주 월, 화, 목, 금, 토(토요일은 "중국선교전문강좌")
- ▶ 선교현지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4년 2월중에 실시함.

중국선교전문강좌(총16주)

- 목 표 : 중국선교상황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지적응능력을 배양코자 함.
- 일 시 : 매주 토 오후 3시~6시 20분
- ▶ 중국어 기초과정
"중국선교전문강좌" 수강자 중에서 희망자를 위해 별도로 개설함

※ 자세한 내용은 본지 82-83쪽을 참고하십시오.

중국선교훈련원(원장: 박진국장로)은 선교언어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中國語文宣教會

(제 4기 훈련은 94년 3월에 개강합니다.)